



8

198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8호

(루계 394)



◆◆◆◆◆◆◆◆◆◆ 차 례 ◆◆◆◆◆◆◆◆◆◆

태양은 빛나라	4
해방된 조선 만세	6
따르고 따르는 그 한길에	9
오 서수라여	10
혁명의 한길우에	11
영원한 모습	12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와 그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	14
그대들은 내 가까이 있다	19
두로인	20
구내산의 푸른 숲	28
기적소리	29
그 기대 조용히 서있어도	30
비단물결앞에서	31
우리의 분조원이라고	32

시대의 노래	33
광주의 새벽	42
광주의 꽃	50
광주여	50
결혼문제	51
다듬은 말	64
우리 시문학의 서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65
세부묘사와 형상의 매력	73
땅우엔 겨울이 한창인데	76
막장의 재부	77

태양은 빛나라

박호범

하늘과 땅이 있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그 어디서나
그이의 이름은
태양으로 빛난다

그 빛발 지너
이 땅은 이리도 아름답고
강산은 이리도 신성하여
아기의 미래를 축복하는
어머니들의 눈빛은 빛나고
로인들의 얼굴은
그리도 젊음에 넘치는것인가

그이의 이름은
다정한 이야기로
아름다운 전설로
가슴속에 새겨지고
마음과 마음속에 간직되어
세기의 중심에 빛난다

아버이로 친근하고
해빛처럼 따사로운
그이의 이름은
인민이 받들어올리고
인민이 지어드린
조선의 별
인민의 태양

그이의 이름을 모시려고
반만년 이 나라 역사는 흘렸는가
그이의 이름을 노래하려고

이 나라 강물은
그리도 오랜세월 굽이쳐흘렀는가

넓으나넓은 지구
조선이란 등불이 꺼진
암흑의 긴긴 력사 그 한끝에서
조선이 우러러부른 아 그이는 별빛!
인민이 우러러받든 아 그이는 태양!

그 숭엄한 빛이
그 사랑의 빛이
한번 누리를 비치면
따사로운 온기가 되어
황무지우에도 꽃은 피고
삶이 푸르려 무성하는
자주의 새 세상을 펼치여라

그 빛발은
두 제국주의를 무릅쪼린
반세기의 성벽우에 빛나고
존엄의 상상봉우에 끝없이 열린
주체의 푸른 하늘에 빛난다

그이의 이름으로 열려진 거리
그이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학교
이 땅 끝에서 끝까지
별빛이 되어
해빛이 되어 내린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던
압제와 질곡의 세월은

흘러 몇천만년이더나

인류의 념원의 새세상우에
위대한 손길 높이 드시여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선포하신
그이는 불멸의 태양!

위업은 하늘에 닿고
사상은 진리로 빛나
그 위업 그 사상을 기발로 날리며
자주의 격랑도
불패의 대오도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나니

별이 없는 하늘을 생각할수 없듯
태양이 없는 우주를 생각할수 없듯
그이를 떠나

찬란한 이 시대를 생각할수 있으랴

만민의 환호속에
세계의 축원속에
태양으로 빛나시여
하늘에 가득
땅우에 가득
사랑의 빛을 뿌리시는

김일성동지!

아 이 아침도 그이는
조용히 생각하시며
환히 웃으시며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
주체의 찬란한 빛발을 펼치신다

해방된 조선 만세

김원복

조국!
너무도 범상하고 레사롭게 울리는 말이다.
조국!
그러나 그것 없이는 한시도 자유로이 숨쉬지 못할
가장 귀중하고 정다운 말이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남과 더불어 언제나 심장속에 귀중히 간직되어있어 기쁠때나 슬플때나 함께 있는 그것이 조국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조국을 어머니라고 부른다.그것은 조국이 어머니와도 같이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 자리잡은 살뜰한것이기 때문이라.
예로부터 우리 조국은 금수강산이라 일러왔다.
푸른 하늘, 기름진 전야,수려한 산발들과 수정같은 맑은물,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우리나라의 모든것이 정가롭고 아름답다.
우리의 조국은 이처럼 겨레의 삶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것, 인민의 운명과 하나로 이어진 귀중한것이다.

오늘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어 《주체의 조국》으로 그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고 있다. 그 빛발은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을 거쳐 해방을 맞은 8월부터 세월의 년륜속에 더더욱 광휘롭게 새겨졌다.

세계는 조선을 바라본다. 세상에 빛을 잃고 버림받았던 조선인민이 어떻게 력사의 주체로 혁명하면 승리하고 건설하면 기적을 낳는가를...

우리 인민들은 감격에 목매어 소리높이 자랑한다. 우리 조국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 민족의 영원한 삶이며 창조와 기적의 무궁한 미래임을...

그러나 지난날 우리 인민들에게는 조국이 없었다.조국을 빼앗긴것으로 하여 모든것이 없었다.

강도일제에게 조국을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는 자유로이 딛고 설 땅도 하늘도 없었다. 이름마저 빼앗긴 우리 민족은 망국노의 신음속에 시들어갔다.

...살아서 살곳없고 죽어서 묻힐 한치의 땅마저 빼앗겨 압록강, 두만강, 현해탄을 건느며 피눈물을 뿌리던 우리 민족, 강도 일본제국주의는 군대, 헌병, 경찰망으로 전조선을 뒤덮고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을 타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1920년대말 한해만도 고향을 떠나 흩어져간 조선인민이 수십만을 헤아린다.

일제는 산업의 명맥을 타고 앉아 금, 은, 석탄,

철광석을 비롯한 조선의 풍부한 자원을 속속들이 파내어갔다.

일제는 선량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냈고 《산미증식계획》의 미명하에 강압적인 량곡수탈정책을 실시하여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700만석의 쌀을 수탈해갔다. 우리 인민들은 빈궁과 기아에서 말버둥치며 쓰러져갔다.

조선의 운명은 너무도 절박하였다. 사대매국노들의 비굴한 처사로 조선의 운명은 참말로 생사기로에 있었다

이처럼 우리 동포가 원썬들의 총칼에 짓눌려 큰 숨도 못쉬고 신음할 때 의병들은 서슬푸른 칼을 안고 몸부림쳤으며 독립군은 산에서 살며 화승총소리를 울리었다. 했으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령도자가 없었고 향도의 빛발이 없었다. 그들은 캄캄한 밤에 항방을 모르고 허위적거렸다.

장차 조선은 어떻게 될것인가!

조선아! 조선아! 너는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할자 누구냐!

이 나라 력사우에 마지막 피눈물을 뿌리며 숨져간 애국의 심장들이 목마르게 기다린것은 새로운 광명을 안겨줄 위대한 태양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복받은 우리 인민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맞이했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어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시며 해방의 빛발을 펼쳐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를 맞이한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에서 이름마저 없어진 우리 인민에게 조선의 뉘를 심어주시고 투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민족은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영영 쓰러지느냐, 아니면 일어나 싸워 재생의 길을 찾느냐 하는 생사기로에 처하여 있습니다. 망국의 처지를 통탄만 하며 일제의 전고미문의 폭정을 용납한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사멸할것이며 전 민족이 꺾기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면 광복의 서광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운동과 투쟁의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장차 조선이 나아갈 혁명의 새 앞길

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신념을 굳건히 하시여 조직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선언이었다.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자기의 길을 확고히 내다보며 나갈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로운 혁명의 길로 청년 학생들과 선진적인 노동자, 농민대중을 혁명의 전위로 키워나가시었다.

...살길을 찾아 산설고 물설은 타국에 와서 처음으로 다섯집이 피나리보짐을 풀어놓았다고 하여 오가자로 불리우는 조선인 농촌마을에 오시여 야학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몸소 교단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칠판에 《조선》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쓰시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조선》 하고 읽으시었다.

씻을수 없는 원한을 품고 이국땅으로 쫓겨와 아직 한번도 조국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오가자의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에만 고이 간직되어있던 그 이름 조선!

부를수록 가슴터져오고 설음이 북받치는 조국의 이름-조선이 아니었던가.

그러던 그들이 검은 구름 뒤덮인 한밤에 힘주어 읽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목소리를 따라 크게 더 기운차게 조선을 불렀다. 그 목소리 이르는곳마다에 울리고 애국의 심장들은 모두 일어났다.

얼마나 가슴뜨겁게 올려주는 이름이었던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따라 조선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담아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이끌어주시는 향도의 새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불멸의 혁명송가를 지어 심장으로 높이높이 불렀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 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깃발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캄캄한 밤하늘 바라다보니
신음하는 조국산천 어리어오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삼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이 노래는 강산에 높이 울리어 긴긴세월 짓눌린 조선동포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다.

무장한 적은 무장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은 즐기차게 진행되었다.

국가적후방도 정규무력의 지원도 없는 매우 간고한 투쟁은 승리의 한길을 걸었다.

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혈전의 숫눈길은 몇천몇만리이며 매식도 건느시고 령하 40도의 밀림속 우등불가에서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였던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지법을 쓰시여 일제놈들을 전몰케한 준엄한 투쟁속에서 독립된 부강한 조선, 혁명이 승리한 조국의 장래를 명확히 내다보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에게 래일의 투쟁과 해방된 조국의 황홀한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압박과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부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게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해방된 조국의 새 모습이 이렇게 태동하고있음을 알았을 때 그 투사의 뒤흔어넘치는 감격은 끝없는 창공을 날았다. 혁명투사는 것처럼 새 조국의 장엄한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투쟁의 길로 떠나갔다.

이처럼 희망을 안고 빛발을 안고 떠나간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원수들을 풀베듯 쓸어놓혀갔다.

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수령님께서 남호두를 떠나 동강에 이르는 기나긴 행군길 밀림속에 천막을 치고 대원들이 어설픈 쪽잠에 드는 숙영지에서도 밤하늘을 태우는 우등불가에서도 쉬심이 없이 작성하신 위대한 강령-조국광복회 10대강령!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조국해방의 대강을 가슴에 안고 조선인민혁명군은 조국으로 향했다. 조선총독과 관동군사령관이란자가 국경경비진을 철통같이 친다고 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대안에도 수백개의 경찰서와 출장소, 포대를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라. 철통같은 국경경비진은 물먹은 담벽이었다.

빼앗긴 조국, 총검의 수풀과 기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내 나라 부모형제들, 못견디게 그리운 산과 들! 이 모든것을 위하여,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암흑속에 묻힌 조국땅에 재생의 화불을 안겨주기 위하여 유격대원들은 국경경비진을 뚫고 압록강을 건넜다.

력사의 그 밤, 조선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알리

는 한밤의 총성!

대원들은 돌격의 함성드높이 용감히 돌진하여 피땀한 원쑤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겼다. 놈들의 비명소리, 아우성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먼 사무소가 불타고 포대가 날아났다.

보천보사람들은 해불을 들고 불초롱을 들고 물밀듯이 쏟아져나왔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인민들앞에서 연설하시였다.

《여러분! 저 불길을 보십시오. 거세차게 라번지는 저 불길은 놈들의 최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남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습니다.》

가슴에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어주시고 재생의 열망을 뜨겁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목소리는 강산을 진동시켰다. 조선인민의 기상이런듯 불길은 캄캄한 밤하늘을 활활 태웠고 만세의 환호성은 강산을 울렸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진군의 길에 뜨겁게 새겨놓으신 영생불멸의 자욱은 그 얼마이라.

김일성장군님께서는 1939년5월, 자나깨나 한시도 잊어본 일이 없는 어머니조국으로 혁명대오를 또다시 이끄시였다.

얼마나 그리운 조국이었던가, 대원들은 저마다 조국의 흐뭇한 냄새가 풍기는 흙을 움켜쥐고 불에 비볐고 맑은 물속의 속도를 끌라 배낭속에 간직하였다.

그것은 언제나 가슴속에 귀중히 간직하는 조국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가슴속깊이에 조국을 안았기에 온갖 시련도 이겨내고 용맹스럽게 돌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하에 대원들은 원쑤가 국경을 경비하겠다고 닦아놓고 검열을 맞히려고 금방 비로 쓸어놓은 100여리의 《갑무경비도로》로 바로 그 원쑤 일제를 치려고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였다.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는 이미 확정적이었다. 놈들은 신개척, 대홍단에서 무리로 녹아났다.

걸음마다 전투마다 조선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뿐아니라 일본제국주의를 반드시 타승한다는 신념이 더더욱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혁명군! 이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형언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며 역사적인 대사변을 마련하여 오매에도 잊을수 없는 조국의

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력사적인 8월의 그날! 조국은 드디어 해방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였다.

하늘도 땅도 이름 석자마저 빼앗겼던 우리 민족은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설레이는 우리 인민! 만세,만세의 파도, 기쁨의 환호, 사품치듯 설레이는 우리 인민!

산천초목도 짹짹 설레이었다. 구름 가득 뒤덮였던 하늘도 청청하고 높았다. 동해의 파도가 광광격랑을 일으켜 목메이게 조국땅을 열싸안고 춤을 추었다.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 젊은이, 늙은이... 맨발벗은 아이, 강보에 어린애를 싸안은 아낙네, 머리수건 벗겨진 할머니 모두 펴쳐나왔다. 백발이 성성한 허리굽은 로인도 지팡이를 내던지고 버선발로 달려나와 허리를 짹 폈다. 그들은 주름덜인 얼굴에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리며 목청껏 해방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김일성**장군님! 고맙습니다.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장군님!...》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이 땅, 이 하늘을 안아볼듯이 두팔 벌리고 목청껏 자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웨침이 심장을 두드린다.

아 조국! 그것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넘고넘으시는 그런 역경속에서 찾아주신 자애로운 어머니 품이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겼다. 그 품은 곧 조국이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시대와 력사의 주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싸우면 이기고 건설하면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인민은 그전날의 인민이 아니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따라 반만년의 력사속에 굳어진 락후와 가난을 깬그리 털어버리고 천리마의 나래 활짝 펴 세기를 주름잡으며 인류의 앞장에서 달리는 《20세기 기적의 나라》의 긍지높은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올해에 영광스러운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한다.

우리 당 발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달리는 력사의 이 시각, 우리 인민들은 오늘의 이 존엄과 긍지 그리고 행복이 어디서 온것이며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세계에 긍지높이 자랑한다. 조국-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

그렇다 조국이며, 영원토록 무궁하라.

해방된 조국-조선 만세!

따르고 따르는 그 한길에

권강일

그립던 대오
뵈고싶던 투사들
여기서 만나는구나
삼지연기슭 넓은 광장
높이 모신 수령님 동상을 우러러
여기서 굽이쳐 가고있구나

나래인양
백포자락은 대공에 펄럭이고
얼굴마다 신념에 넘친
철의 흐름우엔
울려퍼지는 나팔소리

낮익은 모습들이다
내 살아온 서른다섯해
언제나 귀가에 들으며
걸음걸음 따라서던
발구름소리다
나팔소리다

기관총을 틀어잡고 함성 높이 내달리는
저 친위전사가 아닌가
개발지의 밤 우등불가앞에서
돌격대의 기발을 받아들때
뜨거운 내 마음속에
승엄히 솟아오르던 모습

배낭을 지고
한손에 책을 들고 행군해가는 저 대원
어릴적 내 교과서의 글줄에도
새로 거는 분단벽보판에도 찾아왔더라

헐치 않은 수백리 행군길

내 처음으로 전술훈련에 나가던 날
분대장은 어찌하여
나의 풀색배낭에
항일투사들의 회상기를 소중히 넣어주었던가

따르면 그길
막아서는 험한 봉우리도
위훈으로 기적으로 솟아오르고
새기면 그자욱
마음속에 신념의 뿌리 깊이 내리는

아, 언제나 앞서 걸어가며
나를 이끌어세워준 대오여
인간의 참된 의지와 신념의 상상봉에서
그렇듯 값높은 삶의 빛을 뿌리는 대오여

구름우에 솟은 백두성산도
눈부신 광채를 여기에 뿌려오는가
장군님 모시고 따르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굽이치는
혁명의 대오

따르고 따라 그 길에 한이 없고
삶이 그대로 보람인
아, 영원한 영원한
우리 혁명의 선두대오여!

장엄한 그 대오뒤에
나는 따라선다
광장이 넘치도록 들어서는
귀여운 소년들, 인민군전사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는 따라선다

오 서수라여

유성옥

저 멀리 조국의 북변을 감돌아
먼길을 굽이쳐온 두만강
푸른 물이 노래를 안고 바다에 흘러드는
오, 서수라, 서수라!
내 나서자란 정든 교장이 아니건만
한번은 기어이 오고싶었던곳이어

너는 이나라 력사에 새겨진
자랑높은 혁명의 전적지
너는 잊지 못할 8월의 그날에
조국해방의 전위들을 먼저 맞이했더라
만고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
그이의 품속에서 자란 항일의 투사들을

서수라, 서수라, 너는 영광의 땅
저기 번들거리는 바다우에
유유히 날아예는 갈매기 울음소리
절벽에 밀려와 부딪치며
억만구슬을 휘뿌리는 장쾌한 파도소리도
투사들의 용맹과 위훈을 노래불러
저렇듯 끊임없고 절절한것 아니냐

그들은 보천보에 해불올린 투사들
삼지연의 맑은 물을 떠마시고
대흥단벌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놓고

다시 오마고 떠났던 그 유격대원들
그들은 싸움의 나날에 기다려온
최후결전의 불길을 너의 가슴에 지켰노라
포화의 우렁찬 웨침으로
조국의 깃뻛힌 넋을 흔들어깨웠노라

어디냐, 일제침략군의 방어선을 뚫고
해방의 첫자욱을 새긴 모래불은
어디냐, 불을 뿜는 원쑤의 화점을 향해
수류탄을 들고 배밀이해간 그 언덕은
말하라 너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총포성은
일제를 항복시킨 승리의 퇴성이 아니더냐

오, 조국의 북변 서수라 서수라!
너는 해방의 만세소리 울려퍼진 첫기슭
너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께
조국해방 승전의 첫 보고를 드린 땅

그때문에 저기 백사장의 해당화도 아름답고
포구의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도
더없이 소중한 서수라여!

그때문에 한번은 기어이 오고싶던곳
너는 조국땅 한끝에 있어도
아, 언제나 내 마음 가까이 있어라

혁명의 한길우에

- 장길부어머니와 마동희동지의 사진앞에서 -

서봉제

어머니를 생각할때면
멀리 백두산으로 떠나보낸
그 아들을 그려보았고
아들을 생각할때면
귀틀집에 홀로 사는
투사의 어머니를 그려보았더니

여기에 있구나
해빛 넘치는 만수대의 혁명박물관
뜨거운 마음들이 들어서는 여기에
어머니는
그날의 아들과 함께 있구나

살아 한생애
단 한번이나마 아들과 함께
편히 지내온적이 있었다면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생각
이러히도 우리 가슴을 찢것이라

멀리 함박눈 내리는 밀영으로
아들을 바래우던 날
헤여지면
다시 보고싶을 그리움도 앞섰건만
위대한 장군님 높이 모시고
이제 한가정속에 모여살 날 그려보며
그믐밤에도 환히 트이던 어머니 마음

어이 알수 있었으랴
장군별 빛나는 밤이면
소리없이 꿈속에 찾아와
안경너머 그리도 다정히 웃으며
해방의 봄을 안고 오마 하더니
원썩의 포승에 묶이운 아들을

고향의 언덕길에서 만날줄이야

소복이 쌓이는 흰눈우에
붉은자국 남기며 가는 아들을
품에 안아주지 못한 그 아픔
복수의 불길로 태우며
싸움의 길 이어나선 투사의 어머니

사람들이여
이 나라 어머니들의 사랑에야
어찌 변함이 있었으랴
한마당 한지붕아래 함께 있고싶었던
혈육의 정으로 다시 불러올수 없었던 아들을
아버이수령님께서 품에 안아 찾아주시었나니

아, 화전골 귀틀집에서라도
오בות하게 모여살고싶었던 어머니
멀리 장군님 계시는 사령부를 우러러
마지막 미소 남기고 간 아들과 함께
다시는 흐리지 않을 영원한 웃음을 담고
여기 조국땅 한복판에 받들려있구나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모신 만수대
우리 혁명의 크나큰 품에 안겨...

오, 어머니가 걸어온 그 길에
리별도 많았고
떠나보낸 식구들은 많았어도
다시 오지 못할 길이란 없었구나
오직 한맘 수령님만을 받들어
혁명의 한길을 언제나 자식과 함께 변함없이 걸
었기에
영광은 이처럼 끝없는것이구나
상봉은 이처럼 영원한것이였구나!

영원한 모습

박윤영

혁명의 수도 평양의 웅장화려한 면모가 한눈에 안겨들고 유원지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그대로 노래처럼 들려오는 대성산 주작봉마루,

오늘의 행복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혁명렬사들의 숭고한 모습이 그대로 생생히 살아 빛나고있는 여기에 천추만대로 길이 전할 거룩한 사랑의 사연이 있어 만사람의 가슴을 더욱 불태우고있다.

살아서 혁명하는 보람과 영예를 안겨주시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과 함께 빛나는 모습을 이땅우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에 목이 메어 렬사릉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

아, 준엄한 나날에 투사로 키워주시고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들 못잊어
사회주의락원우에 영생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셨나니
대를 이어 길이 전하라
대성산 사랑의 룡이여!

.....

혁명렬사릉 종합사적지의 비문을 읽는 나의 가슴은 한없는 감격으로 설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오늘과 같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역세기에 싸웠습니다. 그들은 비록 오늘의 행복한 생활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생애는 고상하고 보람차며 그들의 영웅적투쟁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을것임니다.》

나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렬사릉의 총계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한단, 두단... 걸음걸음 위대한 수령님께 바친 렬사들의 충성의 높이에도 이끄는 총계였다.

한생을 다 바쳐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들인 김형권, 김철주동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들인 김책, 강건, 안길, 최춘국, 류경수, 오중흡동지

들...

투사들의 숭엄한 모습은 생생히 살아 이 시각도 우리에게 충성의 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길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투사들을 대성산렬사릉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주셨으니 그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것이다!

나는 한 항일혁명투사의 반신상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름름한 유격대지휘관의 군복차림, 넓은 어깨, 슬진 눈썹, 부리부리한 두눈, 날카로운 코마루...

투사의 모습을 보느라니 몇년전의 일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혁명렬사릉을 새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들끓는 조각창작단을 찾은적이 있었다.

거기에는 조각해야 할 투사들의 사진과 그림들이 나뉘어있었다.

조각가들은 투사들의 모습을 형상하면서 온갖 정력을 다하고있었다.

모든 일꾼들이 원화를 받아쥐고 조각에 착수했으나 한 조각가만은 일손을 잡지 못하고있었다.

한것은 그 조각가가 형상해야 할 투사는 이 세상에 사진 한장 남기지 못했고 친척 한사람도 없었기때문이었다.

준엄한 항일의 나날에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혁명렬사들, 세월이 아득히 흘러 기억에서조차 희미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형상할수 있을것인가?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각창작단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모든 투사들의 반신상을 보여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동무의 얼굴부분은 좀더 둥글싸했고, 어느 투사는 눈과 입이 크고 얼굴아래부분이 넓었다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주시였다.

그리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창밖을 내다 보시던 그이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친척도 없고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동무들도 있다고 서운해하시면서 그 동무들의 조각상이 실지 모습과 달라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께 싸운 전우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대원의 모습을 생생히 살려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동무는 키가 크고, 어깨는 넓었고 술진 검은 눈썹밑에서 빛나는 큰눈이 인상적이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도 다른 투사에 대해서는 그 동무의 성격은 낙천적이어서 실참이면 언제나 혁명가요를 불렀으며 조국이 해방되면 혁명가요집을 자기가 출판하겠다고 하던 그 모습도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그러시고는 항일무장투쟁의 어느날에 있었던 한 습격전투를 회상하시었다.

이 전투에서 투사는 다른 동무들이 성문을 여는것을 엄호하다가 적의 흉탄에 맞았던것이다.

뒤따라오는 적들까지 완전히 소멸한 그날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대원을 안장하기 위하여 부대를 이끄시고 100 여리의 길을 되돌아가시었다.

그 밤을 꼬박 밝히시며 추도문을 쓰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그 잊지 못할 날로부터 수십여년이 지난 오늘도 그 대원을 잊지 않으시고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조각할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그 동무는 원쑤들과 싸울 때에는 눈에 증오의 불길이 이글거렸으나 깊은 밤 우등불가에서 해방된 조국의 모습을 그럴 때에는 얼굴에 미소가 피여올랐다는것, 때문에 그 동무는 미소를 띠운 모습으로 조각해야 된다는것까지 가르쳐주시었다.

10 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수십년 세월이 지나면 친척, 친구들의 기억에서도 고인들의 모습은

희미해지기마련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년전에 희생된 혁명전사들의 모습도 잊지 않으시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렬사릉의 빛나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회상에서 깨어나 렬사들의 반신상을 우러르는 나의 가슴은 한없는 격동으로 설레었다.

사람은 한번 태여났다가 한번은 죽는다. 그러면 부모가 준 모습은 이세상에서 사라지기마련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태어난 투사의 모습은 영원한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항일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람의 품속에서 싸웠던 혁명렬사들, 그들은 오늘 영원한 사랑의 품속에서 다시 태여났다.

저 투사가 아니였던가! 원쑤의 단두대우에서도 조국의 앞날이 보인다고 심장으로 웨친 녀전사, 배낭속에 조국의 한줌 흙을 넣어가지고 다니며 죽어서도 조국땅에 묻히고싶다던 전사, 그들은 지금 사회주의락원에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거니!...

세상에 사랑이 있다면 이보다 더 뜨겁고 은정깊은 사랑이 그 어디에 있겠는가!

부모가 준 모습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없어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태어난 혁명투사들의 모습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솟아있으리라!

투사들의 념원이 꽃핀 사회주의락원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사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와 그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

려원만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이 깊이 사색하고 잘 다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써도 걸작이 되도록 써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우리문학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다. 작가들이 깊이 사색하여 작품에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X X

문학작품의 철학적심오성에 대한 리론은 우리 당의 옳은 문예정책에 의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발전된 새로운 독창적인 리론이다.

이전시기까지에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철학적깊이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리론의 발견은 종자를 핵으로 하는 작품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더 한층 심화시키고 작품창작의 질적수준을 새롭게 높일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리론의 발견이 가지는 거대한 문예사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철학적깊이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리론이 밝혀지게 된것은 주체시대 우리의 문학예술이 도달한 높은 질적수준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이르러 문학예술작품의 질적수준은 이전시대에 비할바 없는 새로운 높은단계에 이르렀으며 특히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인류가 일찌기 체험하지 못하였던 찬란한 개화기를 펼치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새롭고 깊이있게 그리면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과 인생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는 우리 시대 혁명적작품들의 심오한 내용과 가늠할수 없이 큰 무게와 품위를 종래에까지 써오던 작품평가의 척도와 특성규정의 범주들만으로써는 결코 원만히 해석할수 없게 되였으며 또 이러한 원칙들과 수단들만

으로는 발전하는 현실과 높아가는 인민의 미학적 요구에 맞는 깊이있고 무게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게 되였다.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성황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만 보아도 이 작품들의 질적특성을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민족적특성, 사상성과 예술성, 독창성과 비반복적개성과 같은 기준범주들만으로써는 옳게, 그리고 다 밝혀낼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확실히 이 고전적명작들에는 이러한 개념들만으로써는 다 포괄하기 어렵고 똑똑히 규정짓기 어려운 그런 질적특성 - 작품세계의 깊이와 높은 풍격, 깊은 사색과 정서적여운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중량감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창작원칙들으로써는 다 포괄할수 없고 다 규명할수 없는 작품의 질적특징을 밝혀내어 작품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창작원리를 심화시키며 그것으로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더한층 올려세워야 하는 바로 여기에 철학의 심오성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밝혀야 하였던 절박한 시대적요구와 그의 현실적기초가 있는것이다.

시대와 문학예술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는 오직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에 의하여서만 해결 될수 있었다.

지난날의 문학예술작품들에도 철학적깊이를 가진 작품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철학적깊이와 관련된 미학상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오직 공산주의 인간학에 관한 리론으로 문학의 본질을 새롭게 밝히고 종자를 비롯하여 작품의 근본생리와 창작의 근본원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에 의해서만이 처음으로 제기되고 완벽하게 해명될수 있었다. 이것은 인류문예학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창작의 질적수준을 새롭게 높일수 있게 한 빛나는 기여로 된다.

X X

그러면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작품을 철학적깊이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런 작품의 주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주체의 문예리론은 작품의 철학적인 깊이는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데서 생기는것이지만 생활의 본질도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화할 때에는 예술에서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할수 없

다는것을 밝혀주고 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철학적심오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생활의 본질에 대한 예술적일반화의 깊이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을 깊이 이해할수 있게 하고 심오한 진리를 가르칠수 있도록 생활현상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근본적인것, 근원적인것까지 깊이있게 밝혀내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예술영화 《포구의 처녀들》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영화는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새세대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으며 새로 자란 세대들가운데서도 먼저 자란 세대들보다는 후에 자란 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심화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사회가 계속 전진하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산주의적으로 개조되어나간다는것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예술영화 《포구의 처녀들》은 잡은 물고기를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가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새세대계수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성실이는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는다 하여도 그것을 먹지 못하게 썩어버려서야 무슨 잡는 보람이 있겠는가고 간곡하게 가르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를 덜어드리려는 오직 한마음을 안고 어로공들과도 일을 짜고들고 가공반 사람들과도 힘과 지혜를 합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새로 계수원이 된 성실이의 이러한 주인공다운 태도와 적극적인 투쟁에 대조되면서 실무에 밝은것으로 포구에서 평판이 높던 순임이의 주인공답지 못한 태도가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된다. 성실이는 자기와 같은 세대의 선배로서 자기에게 처음 일을 가르쳐주다가까지 하였던 순임이의 결함을 묵인하지 않고 교양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고쳐준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이 영화는 새세대들의 로력투쟁을 단순히 펼쳐보이는것이 아니라 그 활기찬 생활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새로운 문제를 밝혀내고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 자란 세대들 가운데서도 먼저 자란 세대들보다 후에 자란 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쟁한다는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는 세대교체로 이어져가는 사회발전에서 낡은 세대에 비하여 새세대가 보다 진취적인 역할을 할뿐 아니라 새세대들 가운데서도 후에 자란 세대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것을 보여준것으로서 사회발전과정의 하나의 합법칙성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힌것으로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사회발전에 따라 강화되는 사상투쟁이 낡은 세대와 새세대사이에서만 이 아니라 새 세대안에서 먼저 자란 세대와 후에 자란 세대사이에서도 벌어지게 된다는 사상혁명의 심화과정을 깊이있게 밝힌것으로 된다.

작품은 이와 같이 범상한 생활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사회발전과 인간개조과정의 심오한 진리를 밝혀내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사회가 발전 하는데 따라 사람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심화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사회가 계속 전진하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산주의적으로 개조되어나간다는것을 보여주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땅우에서 보는 사람 서로 달라라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는 방창이 처량하게 울리는 달밤장면은 계급선에서 볼때 심각한 장면이며 달을 보고 그 달을 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본다는 가사속에 철학이 있다.

이 방창가사의 철학적심오성은 달밤의 정취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일반적으로, 현상적으로 노래한것이 아니라 그 사상정서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사회계급적본질에까지 파고들어 노래함으로써 심리정서적감정의 사회계급적본색을 깊이 밝혀내고있으며 그를 통하여 불공평한 계급사회의 모순까지 깊이 깨닫게 하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하늘중천 달은 하나이나 사람들의 사회계급적 및 생활적 처지가 다른만큼 달을 감상하는 그들의 사상감정이 같을수 없다.

혁명가극의 달밤장면의 내용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호의호식하는 부자집녀인들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즐겨 그네를 뛰며 깔깔거리고 웃어대지만 앓는 어머니 약값을 구하기 위해 꽃을 팔다가 오히려 헐벗은 거지라고 수모를 받고 도적으로 몰려 매를 맞을뿐아니라 지주에게 잡혀 너공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어 돌아오는 꽃봉이에게 그 달이 즐겨보일수 없는것이였다. 그 달은 갓은 고통과 수모에 멎든 그의 가슴에 서러움을 더해줄뿐이였다.

가사는 이와같이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근원적인것에까지 깊이 파고들어 노래함으로써 하나의

무심한 달을 두고도 불공평한 계급사회의 모순과 나라없고 가난한 우리 인민이 당해야 하였던 온갖 불행과 고통을 정서적으로 더욱 사무치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실례들은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이 생활의 본질에 대한 예술적일반화의 심도에 관한 문제로서 그 심도가 작품전체에서나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와 같은데서도 현상적인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 생활의 근본적인것, 근원적인것을 밝히는데까지 이르고 그와 관련한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밝히게 되는 질적특성을 말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철학적깊이를 가진 작품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게 되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과 인생관형성에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

철학적심오성을 가진 작품들의 이러한 커다란 작용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깊은 사색을 동반하는데 있으며 그런 깊은 사색속에서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있다. 그것은 철학적심오성자체가 인간생활의 깊이에 파고들어 그의 진리를 일반화하는 특징이며 그러한 특징으로 하여 철학적심오성을 가진 작품일수록 묘사된 인간생활의 세계가 심원하기때문이다.

철학적으로 심오한 작품을 읽고 사람들이 작품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고 커다란 사상적충격과 잇을수 없는 인상을 받으며 혁명적세계관과 인생관형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는것이다.

실로 철학적심오성을 가진 작품들은 인간생활의 본질을 밝히고 참다운 생활의 진리를 깊이있게 보여주는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사람들의 사색을 불러일으키고 리성을 깨우치며 심장을 그러잡는 커다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활의 근본문제에 깊이있는 예술적해명을 주는 위력한 생활의 교과서로 된다.

X X

철학적심오성은 작품의 모든 내용적요소들과 형상적수단들을 옹계 리용한 창작과정의 총체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종자를 잡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꽃피우는 모든 창작과정들에서 내용적요소들과 형상적수단들을 옹계 살려써야만 철학적심오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종자를 바로잡고 사상을 깊이있게 제시하여 사회적문제성을 옹계 설정하는것이다.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은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며 작품에서 철학적심오성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분야로 된다.

종자는 작품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상적핵이며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기때문에 철학적심오성은 무엇보다도 종자에 의하여 보장되며 종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작품의 사상은 작가가 묘사된 생활형상을 통하여 밝히게 되는 기본적인 주장과 견해이기때문에 종자로부터 출발하여 어떤 사상을 제기하는가 하는것 역시 철학적심오성과 직접 관련되게 된다.

작가가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와 작품에 제기한 사상은 작품내용에 설정된 사회적문제성에서 뚜렷이 표현되게 된다. 작품에서는 사회적문제성을 둘러싸고 인간들의 호상관계가 맺어지고 풀리게 되며 사회적문제성이 해명되는데 따라 종자가 예술적형상으로 피어나고 작품의 사상이 밝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에 어떤 종자를 심고 어떤 사상을 제시하는가 하는 문제는 곧 작품에 어떤 사회적문제성을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문제성은 작품의 종자와 사상과 함께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게 된다.

사회적문제성이라 할 때 그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의의가 크고 가치가 큰 문제, 현실적으로 긴요하고 절박한 문제들은 말하게 된다.

사회적문제성은 어디까지나 새롭고 예리해야 그 가치가 커지고 작품내용의 심오성을 보장할수 있다. 있으나마나하고 들으나마나한 범박하고 범상한 문제, 모나고 뿔이 난데없이 두리뭉실한 일반적인 문제, 누구나 다 알고있는 상식적인 문제로서는 문제를 예리하게 세울수 없고 내용을 깊이 파고들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흥과 사색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은 특히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 문제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예리하고도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 사회적문제성은 종자에 의하여 마련되게 된다. 바로 종자가 현실적으로 절박하고 가치있는 사회적문제성을 띠고있을뿐아니라 인간생활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문제에까지 파고들어 고귀한 진리를 일반화할수 있는 심오한 사상을 밝힐수 있게 될때 그 종자는 철학적인 무게를

가질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 작품의 철학적무게가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철학적심오성은 한 인간의 운명을 통하여 당시 우리 인민들이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불행과 고통의 사회적원인을 찾아내고 사회혁명에 대한 근본문제를 밝혀내는데 있다. 이러한 철학적심오성은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종자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이 종자는 무엇보다먼저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을 띠고있다. 그것은 일제통치하에서 사람이 참답게 사는 길은 어데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갑룡이와 같이 어질고 순박한 사람들이 아무 죄없이 갖은 고통과 멸시를 당해야 하였던 1930 년대 우리 나라 현실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이러한 문제는 절박한 해명을 요구하는 초미의 문제였다.

이 종자는 이와 같이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을 안고있을뿐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제도의 극악한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사회혁명의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게 되어있다. 그것이 바로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으며 일제놈들에게는 빌어봐도 사정해봐도 소용이 없다는것 우리 인민이 참답게 사는 길은 오직 항일혁명의 길뿐이라는 심오한 사상인것이다.

이와 같이 한 인간의 운명을 통하여 당시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사회적근원을 밝히고 생활의 근본적인 진리를 밝혀낼수 있게 된 여기에 이 종자의 철학적무게가 있는것이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로동계급이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근본을 안다고 해도 자신을 계속 혁명화하지 않고 자만하면 변질된다는 종자를 심고 있다.

이 종자의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은 현실적으로 절실한 로동계급의 혁명화문제를 가정혁명화선에서 새롭게 제기한데 있을뿐아니라 혁명화의 대상과 과녁을 문제성있게 설정하고있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두석이와 삼석이. 순옥이 등 로동가정의 새세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비로동계급적현상을 놓고 볼 때 가문의 근본이 로동계급이라 하여도 그들을 과연 참다운 로동계급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혁명적로동계급의 대를 곳곳이 이어가갈수 있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본보기계급으로서의 로동계급이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다할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혁명화의 대상들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동반하면서 문제를 로동계급의 근본을 고수하는 문제, 근본을 잊지 말데 대한 문제로 설정하고있는 여기에 이 종자의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이 있으며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을

을 밝혀낼수 있는 기초가 있는것이다.

특히 이 종자는 로동계급이 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근본을 안다고 해도 자신을 계속 혁명화하지 않고 자만하면 변질된다는 문제에까지 심화되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본보기로 되는 로동계급자체를 혁명화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 하는것을 보여줄뿐아니라 혁명화는 누구나 다 해야 하며 또 언제나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나아가서 이 종자는 사람들의 성분문제, 부모의 출신과 자식의 성분의 호상관계에 대하여서까지 생각하게 하면서 혁명화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아버지가 로동계급이라하여 아들이 저절로 로동계급으로 되는것이 아니며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혁명가 로 되는것이 아니라는것.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의 성분이 나쁘다고 하여 아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으로 되는것도 아니라는것을 깨닫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해 나가도록 사람들을 고무추동하고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 를 놓고 절실한 현실적요구에 해답을 주고있을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생활의 심오한 진리도 깊이 깨우쳐나가게 하는데 이 종자의 철학적무게가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새봄》은 해방직후 농촌에서의 새사회, 새제도의 수립과 토지혁명과정을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작품의 종자를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을 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게 옹게 선택함으로써 토지혁명과정을 단순히 기록하는것과 같은 평면성과 기록주의를 극복하고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밝힐수 있었다.

작품은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해결된 조선의 새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농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마련되었다는 의의있는 문제에서 종자를 잡고있다. 이렇게 선택된 종자에는 8.15 해방과 농민들의 절절한 소망과 열의 하나만으로는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수 없었다고 하는 가치있게 탐구된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이 체현되어있다.

사실 계절을 맞으니 새봄이었던가. 해방을 맞으니 새봄이었던가. 조선농민들의 참다운 사회적새봄은 그렇게 온것이 아니였다. 해방을 맞으니 기쁨은 한량없이 컸으나 지주는 여전히 농민들의 명맥을 거머쥐고 거드름을 피웠으며 농촌을 오래동안 지지누르던 가난도 여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농민들은 제땅에서 제농사를 지어보려는 절절한 소망과 열의를 안고 지주에게서 땅을 빼앗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였으나 실패와 곡절을 면할수 없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

량과 현명한 정도아래 농민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웠기에 농민들은 예수와 빈궁에서 벗어나고 땅과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될수 있었다.

작품은 이와 같이 예술적으로 새롭게 탐구한 가 치있는 사회적문제성을 설정하고 그 기초우에서 토지혁명의 경험과 방법을 폭넓게 일반화함으로써 이미 잘 알려져있는 토지개혁의 과정도 새롭고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었을뿐아니라 해방직후의 지대적특징과 혁명운동의 본질,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의 고귀한 진리도 깊이있게 밝힐수 있었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해서도 보장된다.

생활의 새로운 탐구는 우리 현실생활의 부단한 변화발전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우리 생활은 시시각각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비약을 낳고있으며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오늘에 와서 어제의 기적은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현상으로 되고있으며 래일의 리상이 오늘에 와서는 벌써 현실로 꽃피고있다.

따라서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기 위한 작가의 의식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 문학이 변천되는 현실생활의 제반 측면들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할수 없게 되며 생활의 본질에 대한 깊이있는 일반화를 달성할수 없게 된다.

작품에서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깊이있게 그려지게 된다. 인간관계만 잘 맺어주면 생활은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의 새로운 탐구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탐구로 되며 그로부터 발현되는 사람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세계의 탐구로 된다.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도덕, 새로운 생활양식, 새로운 룰리의 탐구로 되며 새로운 극성, 새로운 정서가 환기하는 생활의 시, 생활의 극의 탐구로 된다.

따라서 이미 문학작품을 통하여 알고있는 생활적내용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이야기하는것은 벌써 무의미한것으로 된다.

예술영화 《포구의 처녀들》이나 장편소설 《로동가정》이 그처럼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담을수 있는것도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나서는 의의있는 문제를 생활탐구의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새롭게 제기하고 풀어나간데 있다.

오늘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는 문제는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되며 시대와 현실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숨은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만 보아도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일대변혁을 가져오게 한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이다. 거기에는 생활을 새로운 립장과 관점에서 새

로운 안목을 가지고 탐구함이 없이는 찾아볼수 없는 감명깊은 생활이 있고 극이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이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는 립장과 자세를 견지할 때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또한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예술에서는 인간성격의 본질을 생동한 생활속에서 폭넓게 밝혀내고 사건의 깊이는 내용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낼 때, 그리고 한 장면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각 하게 하며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할 때 형상이 철학적 심오성을 가지게 된다.

인간성격의 본질을 생동한 생활속에서 폭넓게 밝혀내고 사건의 깊이는 내용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내는것은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는 인간성격의 본질을 밝혀냄에 있어서 그것을 작가의 설명이나 론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동한 생활을 통하여 보여준 다.

작가의 그 어떤 설득력있는 주장이나 론리도 생활처럼 그렇게 감명깊게 그렇게 풍부하게 본질을 밝혀내지는 못한다.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는 또한 사건과 정황을 고정격식화된 시점에서 평면적으로 라렬함으로써 재현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낼 때 이루어진다.

같은 생활도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고 어떤 정치적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그 묘사의 질과 깊이가 현저히 달라지게 된다.

또 생활묘사도 그것이 단순한 현실의 복사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조명되고 분석평가됨으로써 예술적 재구성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로 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야말로 한 장면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온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생각하게 하는 깊이를 보장할수 있으며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생활의 전모를 그려볼수 있게 함으로써 작품의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 이다.

작품창작에서 언어는 문학적형식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의 심화과정에 결정적작용을 미치게 된다.

왜냐 하면 작가의 사고와 감정 모든 사상미학적견해와 립장은 구체적으로 언어를 통하여 표현

되게 되기때문이다.

언어표현의 심도는 곧 그가 반영하는 생활적본질의 심도를 규정한다. 같은 세부도 그것을 어떤 어휘적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어떤 언어표현적수법을 리용하여 그려내는가에 따라 그 생동성과 진실성뿐만 아니라 묘사의 심도와 의미적색채까지도 달라지게 된다.

바로 여기에 언어구사가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게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작가들은 언어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교와 재치 그자체에만 치중하여 다듬고 배렬하고 엮어나가는 그러한 능수가 아니라 한두마디의 말속에도 깊은 뜻이 담기게 한개의 단어나 문장속에도 일생의 총화가 비껴있고 뜻깊은 교훈과

진리가 울려나올수 있는 그런 언어구사의 능수가 되 여야 한다. 심오한 생활철학이 담긴 명대사, 명문장은 작가의 피라는 노력과 꾸준하고 인내성 있는 탐구속에서만 얻어질수 있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이와 같이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는 종자와 사상, 사회적문제성에 의하여 보장될뿐아니라 이 모든 내용적요소들을 구체적인 작품형상으로 보여주는 수단들인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해서도 보장된다.

작가들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더욱 높여 창작적사색을 깊이 함으로써 문학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그대들은 내 가까이 있다

김정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했다
나는 동해기슭 감꽃 피는 마을에
그대들은 먼 서쪽 그 어느 소문 없는곳에

새벽에 또 한밤에
그대가 시험포전 걸을 때
나는 교실마다 새별들이 빛나는
조용한 학교 복도를 걸었다

갈래 많은 생활의 길우에서
낯설은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이
내 기억의 갈피갈피에 정든 벚으로 새겨졌으랴
하지만 그 숨은 영웅들은
소리도 없이 자욱도 없이
내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대들의 맑은 눈
내 아이들 이름 지켜보며 웃음짓고
베개머리 뜨겁도록 불을 대이는 밤엔
그대는 내곁에 나란히 누워
청춘의 삶을 가슴뜨겁게 이야기해주어라

진정할수 없으랴
그 언제부터 그대들의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그대들의 걸음걸음 닮아가고있는것이라
첫사랑의 고백도 나는
그대들의 마음으로 되새겨보았으니

아 생각도
걸음도

사랑도
수령님 받드는 충성의 길에서 찾으며
불별내리는 발머리 실패의 낮과 밤을
급힘없이 걸어온 충성의 자욱자욱...

오! 숨은 영웅들이여
그대는 땅밑에 묻은 하나의 종자를 두고
그처럼 불타는 반생을 바쳤구나
땅우에 핀 이 꽃봉오리를 안고
나는 그 무엇을 바쳐야 하는것이라

시간표로 이어지는 내 일과의 한초한초
아버이수령님 기쁨으로 무르익게
우리 아이들의 걸음걸음을
나는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것이라

그대들과 늘 마주 이야기하며
값높은 대답을 받으며
오늘도 나란히 교문에 들어선다

이제 출석부의 이름들이
저 넓은 공간으로 나래쳐 떠날 때엔
그대들처럼 수령님 기쁨이 되고
그대들처럼 당을 위해 빛나는
그처럼 무수한 충성의 별들이
자기의 시대를 수놓아가리니.

아 그대들은 내 가까이 있다
우리 미래와도 함께 있다
이 땅 모든곳에 있다

두로인

김영근

서산마루에 걸린 마지막해빛이 옥사강의 맑은 물결위에 물박으로 쏟아져내리는것 같았다.

사선으로 엇비쳐내리는 해빛을 받으며 너울치는 물결의 반사때문에 수면위에 떠있는 감부기의 움직임이 똑똑히 가늠할수 없었다.

바루 짙은 하얀 머리위에 농립모를 쓴 강현도로인은 낚시대를 다시한번 뻗 돌려서 물결위에 줄은 던졌다. 그래도 여전히 눈앞이 아물거리면서 감부기의 움직임을 포착해낼수 없었다.

로인은 농립모채양으로 해빛을 가리우고도 모자라는듯 한쪽손을 농립모채양에 덧대어 그림자를 만들면서 감부기의 움직임을 포착하려고 눈귀에 주름을 깊이 잡으며 쪼프리였다. 그래도 감부기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물고기란놈이 감부기를 물속으로 끌고들어간것 같았다.

(음 또 한마리 낚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로인은 손끝에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강한 충격이 오게 될 흥분을 예감하면서 불동적인 동작으로 낚시대를 채내였다. 그러나 미끼가 그대로 달린 낚시줄만이 수면위에 떠올랐다. 역시 해빛을 받은 물결의 반사때문에 감부기의 빛갈과 물사품의 빛갈을 구분해내지 못했던것이다.

현도로인은 낚시대와 줄을 쥐어잡은채 강 양쪽을 휘돌러보았다. 그때야 그는 자기가 집 앞개울에서 낚시질을 시작한것이 물결의 흐름을 따라 내려 오면서 고기를 낚는데 정신이 팔려있었다보니 근 시오리나 강아래로 내려왔다는것을 알았다. 이제 목장사택마을로 올라가자 해도 어두워질것만 같았다.

로인은 부랴부랴 낚시줄을 풀어내고 낚시대도 마디마다 뽑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오늘 하루의 수확물인 고기다래끼를 물속에서 꺼내여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다래끼안에는 서너사발 잘 됴직한 무지개빛 산천어가 담겨져있고 잡아넣은지 오래지 않은 고기들은 지금도 푸들쩍푸들쩍 요동을 친다

현도로인은 마음이 흐뭇한듯 흰수염발이 꺼칠꺼칠한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한손에 고기다래끼를, 다른 손에 낚시대를 들고 동쪽길에 올라 섰다.

마지막해빛마저 서산너머로 사라지고 황혼이 깃들기 사하자 서늘한 저녁바람이 옥사강을 타

고 불어와서 삼복더위에 시달리고 맥을 잃었던 곡식들과 풀포기들에 생기를 북돋아주는것 같았다.

현도로인도 농립모를 벗고 그 서늘한 저녁 강바람에 머리를 식히고나서 자기의 집이 있는 목장사택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또 하루 시원한 물결을 따라내리며 낚시질을 하다보니 개도 지쳐서 허를 빼어문다는 삼복더위조차 느끼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데다가 목직한 고기다래끼까지 들고 저녁 강바람을 쏘이며 강둑길을 걸으려니 마음이 여간만 상쾌하지 않다. 그만큼 나이든 로인들에게 년로보장이라는 혜택을 안겨준 나라의 배려가 고맙게 느껴지기만 했다.

이렇게 혼자서 걸느라 낚시질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자기에게 낚시질의 묘리를 터득시켜주고 낚시도구 일식을 마련해준 옷마을 박성필로인의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박성필로인 - 그는 목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그 바쁜 시절에도 휴식날이면 낚시질로 시간을 보냈으며 목장일을 그만둔 금년 봄부터는 날씨가 좋으면 자주 낚시대를 들고 강으로 나와서 현도로인의 동무로 되어주곤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낚시질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왜서인지 성필로인은 며칠동안이나 강에 나타나지 않는것이였다.

(70 가까운 나이니까 혹시 로환이라도 온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미친 현도로인은 불시로 처량한 생각이 들면서 오늘저녁 물고기라도 뒤사발 가지고 옷마을 성필로인데 집으로 찾아가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도로인이 아래마을어귀에 들어서니 벌써 날은 어두워지고 목장로동자들의 사택들에서는 불빛이 환히 비쳐나오고있었다.

현도로인은 자기의 딸 명희도 목장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을것이며 이제 <어마나!> 하고 놀란 소리를 치며 목직한 고기다래끼를 반가이 받아들이리라는 생각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명희는 아직 목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부엌에서 혼자 저녁동자질을 하고있던 마누라가 가시물을 던지려고 비닐대야를 들고 나오다가 문득 멈춰서더니 《어이구 참, 무슨 나라일을 하는것두 아니구 낚시질이나 하면서 이렇게 늦게

들어올건 뭐유?》 하고 푸념조로 말한다. 그 어조로 보아 어둡도록 안돌아오는 이 령감을 두고 근심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던것 같다. 현도로인은 마누라의 그 푸념속에서 오히려 늙어가면서 두터워지고 다심해지는 정을 느끼며 가슴속이 늑늑해져서 《원, 걱정두 팔자지, 세살난 어린애라구 어두워서 제집엘 못찾아들가?》 하고 대꾸했다.

《어린애가 아닐게 뭐유. 늙으면 아이된다는 말두 있거니와 늙은 령감이 강으로 나가서 어둡도록 안들어오는데 근심이 안될탁이 있소? 젊은 시절엔 직장일이 바빠서 늦어지겠거니나 하지만 이제야 소일거리로 나간 낚시질때문에 늦어진다구 누가 생각하겠수. 제발 안시켜두 될 근심까지 시키지 말구 좀 일찍 들어오군하라고요.》

마누라는 가시물을 마당가의 남새밭에 분수처럼 휘익 - 뿌려던지고는 부엌으로 들어간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동은 령감을 치원하는투로 되어있으나 그 말끝에는 일생을 부부간으로 살아온 마누라에게서만 들을수 있는 정이 깔려있어서 현도로인은 가슴이 뜨거워질뿐이었다.

《허허, 그놈의 물고기가 연방 물려나오는바람에 해가 떨어지는줄도 몰랐당이...》

현도로인은 늦어진 사연을 구구히 변명해가며 마누라의 뒤를 따라 부엌에 들어가서 묵직한 고기다래끼를 부뚜막에 척 올려놓았다.

《어구마, 고기를 수레나 잡았구만요.》

마누라가 다래끼안을 들여다보며 꿈쩍 놀란다.

《아, 글썸 그래서 늦어졌다니까. 요새 한참 날치, 행개리들이 밀려올라오면서 연방 낚시에 달라불더군... 래일은 아마 더 많이 잡힐것 같소.》

《래일도 또 낚시질을 나가시려우?》

《또 나가지 않으문... 몸에 좋겠다, 고기 많이 잡아오니 당신이나 명희의 밥맛 돋구겠다 얼마나 좋소...》 《하지만 낚시질을 며칠 미루구라도 목장에 올라가 젊은 사람들의 일을 좀 도와주기도 하라고요.》 《아 - 니 목장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탁이라도 왔소?》

현도로인은 자기의 오랜 일터에 대한 그리운 감정마저 느끼며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누가 부탁해온건 아니지만 명희의 마음이 그런것 같습데다.》

《명희가?》

《네, 그 애가 혼자소리처럼 하는말이 옷마을 박성필아바이는 이따금 목장에 올라와서 오랜 경험자만이 판단할수 있는 조언을 주군해서 목장간부들이나 로동자들이 무척 존경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목장에 별로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남보기 좀 부끄럽다구 함데다.》

《허, 참, 딸자식은 남의 자식이라는 옛말이 그런데가 없어... 그 애가 뭐 성필로인의 아들 광호 녀석하구 눈이 맞아 돌아간다 어쩐다 하더니 벌써부터 제 애비보다 시애비를 두둔하기 시작하는군...》

하고 현도로인은 부뚜막에 걸터앉으며 통명스런 소리로 대꾸했다. 로인의 이 대꾸속에는 언제나 성필로인보다 뒤떨어져서 살고있는 자신에 대한 반발심이 섞여있었다.

《에이구 령감두 참,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닌것 같습데다. 오늘아침에두 명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요새 목장에서는 여간 바쁘지 않대요. 장마철이 지나고 머지 않아 가을이 다가오니까 겨울나이 양사료도 베어들여야지 방목도 해야지 양털도 깎아야지... 그런데다 장마를 치르고나자 양우리 두채가 벽에 큰 금이 갔대요. 알아보니 전쟁직후에 급작스레 지으면서 기초를 허술히 한탓이 랍디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낮에 기본일을 하고 밤시간을 리용해서 계획외 작업으로 그 두채의 양우리를 빨리 옮겨짓기로 했대요. 그런데 옷마을 성필로인은 목장의 이 바쁜 사정을 알고 벌써 사흘째나 양우리 짓는데 나가서 조력하고있대요. 우리 명희도 양우리 짓는 밤일에 나섰을거웨다.》

이렇게 긴 말을 하고난 마누라는 남편이 또 통명스러운 대답이나 하지 않을가 해서 근심어린 눈길로 령감의 얼굴을 살피었다. 그러나 현도로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머리를 수긏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으흠-》 신음같기도 하고 한숨같기도 한 혼자소리를 하며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였다.

언제나 성필로인과 대비되는 첫순간에는 반발적인 감정을 드러냈다가도 인차 자신을 뉘우치기를 잘해온 현도로인이였다. 지금 이 시각도 마누라의 말을 듣고나서 머리를 끄덕이게 되는데는 가슴에 안겨온 두가지 충격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것은 로환으로 해서 낚시질도 못나오는가부다고 짐작하고 동정심마저 금치 못했던 성필로인이 양우리 짓는데 나가서 조력하고있다는데서였고 더우기는 전쟁직후 기초를 허술히 한탓에 양우리 두채가 벽에 금이 가서 다시 짓는다는 사실이었다. 25년전의 그 어느날 밤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이따금 문득문득 량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던 그 양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자책에서였다.

가슴에 안겨오는 충격이 큰만큼 성필로인의 사람됨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사실 현도로인은 성필이보다 두살아래이지만

년로보장은 한해 먼저 지난해 8월에 받았다. 년로보장을 받은 처음에는 목장의 작업반장이라는 직책에서 물러났다는 서운한 감정과 함께 이제는 힘에 부치는 일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으로 하여 마음이 무척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리사무장실에 가서 년로보장금이라는 현실적인 배려를 받았을 때는 좋은 세월 좋은 세월 하더니 정말 좋은 세월이로구나 하고 감심하게 되었다. 사람이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자기가 낡아서 길러놓은 자식들의 보호속에 여생을 보내게 되어있는 게 아닌가. 현도 자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목장에서 축산기수로 일하는 막내딸 명희나 시집보내고나면 도축산총국에 올라가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그들의 뒤바라지나 해주며 편안히 여생을 보내게 될 게 아닌가. 그런데 국가에서는 년로보장이라는 혜택을 안겨주고 달마다 년로보조금을 이렇게 내주다니...

현도로인은 국가와 인민앞에 크게 기여한 일도 없는 자기에 대해서까지 이런 배려를 돌려주는 데 대해서 뜨거워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로인은 밤맛이나 돌굴 정도로 집일을 하면서 얼마동안은 적적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마리밖에 기르지 않던 양도 한마리 더 기르기로 마음먹고 양의 겨울사료를 베여다 말리기도 했으며 마당가의 남새밭도 기름지게 가꾸었다. 그러나 그런 일들만으로는 적적한 시간을 다 메울 수 없었다. 목장에서 바쁘게 보내던 시절이 더 할나위없이 보람있었던 일들로 추억되면서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그는 옷마을 박성필로인이 년로보장으로 넘어오기 위한 수속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간절하게 만류했다.

《년로보장수속을 취소하우다. 일이 없으니 적적하기 그지없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도 없이 보조금만 받으니 송구하기만 해서...》

그러나 현도로인보다 두살우이면서도 체구가 장대하고 혈기도 쫓아보이는 성필로인은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하기야 일 없는 생활이 적적할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다구 해서 제 일신만 생각하여 자리지킴이나 해서야 뭘 하겠소. 계산도 밝지 못하고 정력도 없는 늙은게 작업반장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오히려 목장일에 저에만 될뿐이라는 것을 느끼니 상 빨리 내밀성있고 새 교육도 받은 젊은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갔는게 진정 나라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보우.》

《하긴 나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서 물러났는데 사실 일을 당하고보니 너무 적적하단말이우다.》

《그건 다 자기 일신이나 생각하는 거구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건 아닐게요. 구실도 못하는 우리같은게 물러나고 제몫을 담당할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나도 지금 수속중이요.》

《경감 생각이 정 그렇다면야 어찌겠소. 그럼 빨리 수속을 끝내고 나와서 동무나 뵈시다.》

현도로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내려오면서 성필로인을 어느정도 고깝게 생각했었다. 선협자의 체험으로 권고했었는데 저만 진짜 애국자인 체하고 혼시같은 소리만 한다고...

그후 어느 일요일날 뜻밖에도 성필로인이 현도로인을 찾아와서 낚시질을 나가자고 했다. 현도로인이 낚시질경험도 없고 낚시도구도 없다고 하자 성필로인은 자기가 다 가지고 왔으니 나가기만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따라나섰다. 성필로인은 정말 낚시도구 두조를 멋지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 중 한조를 현도로인에게 아주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옥사강처럼 세차게 굽이쳐흐르는 강물에서 하는 낚시질의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주고는 실지 강물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서 낚시질의 묘리를 터득시켜주려고 애썼다.

현도로인은 그날을 계기로 낚시질에 취미를 붙이었고 생활에서 공허한 시간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냈다. 그만큼 성필로인에 대한 고마운 감정을 어쩔 수 없었다.

그후 한달인가 지나서 성필로인이 보통년로보장이 아니라 공로보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현도로인은 순간적이나마 《아니 나는 보통년로보장인데 성필로인은 왜 나보다도 더 특별대우를 받게 된단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란 자기가 받아안은 혜택에 대해서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다가도 자기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된 사람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기와 대비하면서 부러워도 하고 어딘가 자기가 남의 축에 못드는 것 같은 위축감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때 현도로인이 느낀 감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동년배로서 목장일도 같이 시작했고 다같이 작업반장으로 25년이나 일해왔는데 왜 나는 보통년로보장이고 성필령감은 공로보장이란 말인가?

보통년로보장금을 받아안고서도 국가의 고마움에 대해서 송구하기만 하던 자기감정이 그 순간엔 어디론가 사라지고 성필령감처럼 공로보장을

받지 못한 서운한 감정과 자기의 지난일이 어떻게 남의 뒤전에 서있었던가 하는 면구스러운 생각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감정은 오래 가지 않고 인차 성필로인이 받아안은 공로보장에 대한 공감으로 바뀌었다. (하긴 성필로인이 공로보장자가 안되면 누가 될구? 그는 나하구야 다른 사람이지...해방후의 토지개혁때에도 나는 가만히 앉아서 땅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령감이야 농촌위원으로서 지주들과 싸움을 벌려가면서 땅을 노나주었겠다-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에도 나는 집에 남았다가 원썬놈들에게 잡혀가서 류치장에 갇혀있었지만 그령감은 인민유격대에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았던가. 정전직후에도 협동화의 앞장에 섰고 이 산간 일부지역을 떼여 국영목장으로 꾸릴때에도 앞장에서서 알심있게 일했지... 박성필-그는 나라와 인민에게 큰힘과 로력을 바친 사람이지... 공로보장이 되는건 웅당한 일이야. 나처럼 남의 구원이나 받고 남의 이फल에 따라다니기나 하는 사람이야 년로보조금만으로도 너무 과분하지...)

현도로인은 공로보장을 받고나온 성필로인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기뻐해주었고 둘이서 강으로 나와 낚시질을 하였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리고 봄과 여름의 많은 날들을 같이 낚시질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그런데 성필로인의 공로보장이 다만 성필로인만을 위한 국가의 배려가 아니라 현도로인자신과 그의 딸에 대한 배려로 된다는것을 통절히 느낀것은 요즘에 와서였다. 그것은 딸 명희와 성필로인의 아들 광호가 사랑하는 사이라는데서부터였다.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딸 명희는 공로보장자인 시아버지를 모시게 될테니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래서 현도로인은 더욱 성필로인을 존경했고 늘구막에나마 성필로인처럼 살자고 마음먹군했었다.그런데 요즘 성필로인은 목장사정을 알고 새로 양우리를 짓는 일을 도우려 나가있었다는데 자기는 목장일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근심도 해보지 못하고 낚시질에만 정신이 팔려있지 않았는가.

×

부뚜막에 걸터앉았던 현도로인은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며 마누라에게 말했다.

《명희의 저녁밥이나 싸주오. 내가 가져다주지.》
《그렇게 해주어요. 우선 당신부터 저녁을 잡숫구요.》하고 마누라는 남편의 저녁상은 차려서 방으로 들여보냈다.

《명희의 저녁밥을 따로 싸고 어제 잡아온 생선을 모두 지저서 싸우. 양우리 짓는데 저녁밥을

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들도 많은텐데...》하고 현도로인은 손갈을 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콧고추를 넣고 물고기 생선튀기를 다 해놨수다.》마누라는 큰 보자기에 밥그릇과 생선튀기남비를 싸면서 대답했다. 현도로인은 저녁상을 물리자 보자기를 들고 목장골로 떠났다.그는 옷마을 마감집-성필로인의 집앞에 이르자 저절로 발길을 멈추었다. 집앞에 이르자 저절로 발길을 멈추었다. 혹시 성필로인이 있을가 해서였다. 그러나 그 집은 불도 켜있지 않았다.

궁금한 생각이 들어 마당안에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앞집 아주머니가 먼저 현도로인을 알아보고 인사를 차리더니 《그 집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의 저녁밥을 싸가지고 목장으로 올라갔어요.》한다.

(음, 그랬구나!)

현도로인은 얼른 마당에서 나와 다시 목장골로 발길을 옮기었다.

딸의 저녁밥을 싸들고 어두운 골짜기길을 올릴걸으려니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지금은 자동차도 다닐수 있게 넓어진 이길이 좁다란 오솔길에 불과했던 전쟁직후부터도 오늘에 이르는 25년간 자기나 성필로인의 안해들이 젖먹이들을 업고 저녁밥보자기를 들고 목장으로 찾아온 밤길은 얼마나 많았으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광호와 명희들이 아버지의 저녁밥을 싸들고 이 밤길을 오르내린것은 그 얼마였던가? 그런데 이제에는 그 딸의 저녁밥을 이 아버지가 싸들고 그 때보다는 비할바없이 넓어지고 고르로와진 길을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목장과 함께 살아온 지난 25년간의 가지가지 생활이 이 길우에 고스란히 새겨져있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편 목장이 가까와올수록 기초가 허술해서 벽에 금이 갔다는 그 양우리는 어느 골짜기에 있는것일가 하는 불안이 자꾸만 가슴을 조이는것이였다. 현도로인은 오른쪽으로 갈라져들어난 속새골양우리로부터 찾아들어가보았다. 25년전에 단꺼번에 10동을 지은데 뒤이어 양이 늘어남에 따라 매해 한두동씩 건설한 양우리 30여동이 보기만 해도 단단하고 규모있게 서있었다. 어느 양우리가 벽에 금이 갔다는 말도 없고 어디에서나 양우리를 새로 짓는데도 없었다. 이 골짜기는 25년전부터 성필로인이 책임지고 일해온 제1작업반골이였다.

현도로인은 속새골에서 나와 또 한참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갈라진 두번째골짜기 부엉골로 접어들었다. 어구에 들어서자 벌써 저쪽 산기슭에 규모있게 서있는 양우리들의 맨아래쪽에 전등불이

환하고 사람들이 돌을 까고 콘크리트를 치며 떠들어대고있었다.

(바로 그 양우리들이었구나.)

현도로인은 오래전에 당했던 상처자국이 갑자기 동통을 일으키는 때처럼 가슴이 찌르르 저러왔다.

바로 자기가 작업반장으로 일해온 그 작업반골의 1 호동과 2 호동 양우리가 벽체에 심한 금이 가서 그옆에 다시 옮겨짓는중이었다.

현도로인은 저 야간작업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며 명희가 얼굴을 못들게 씨까슬러대면서 일하는것만 같았다. 로인은 그 밤작업장으로 십사리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만 얼굴과 몸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면서 25년전에 겪었던 일이 생생히 떠오르는것이였다.

그것은 전쟁직후 이 지역의 깊은 골짜기들을 리용하여 양목장을 꾸리던 때였다. 목장의 첫일은 양들을 받아오기전에 양우리부터 짓는것이였다. 전쟁직후의 형편에서 국가가 많은 세멘트를 보장할수 없었던만큼 적은 세멘트로 여러동의 양우리들을 짓기 위하여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돌을 리용하기로 하였다.

한 작업반이 한골짜기씩 맡아가지고 다섯개골짜기에 50 채의 양우리를 짓기로 하였다.

양우리 짓는 건설전투가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40 대 한창나이의 강현도는 2 작업반장으로서 두번째골짜기 - 바로 이 부엌골의 양우리건설을 진행하였다.

그는 다섯개작업반중에서 제일 선참으로 한동완성함으로써 속보에 크게 났다.

그런데 열채씩 짓기로 하고 받아온 세멘트가 한채를 짓고나니 20%나 소모된것 같았다. 현도는 세멘트혼합비율에서 모래량을 좀 높이기도 하고 기초와 깊이의 폭을 조금씩 조절하는것으로써 세멘트부족량을 메꾸어나갈 생각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현도는 하루의 건설작업을 필하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뜻밖에도 남편의 저녁밥을 싸들고 올라오는 성필의 안해를 만나게 되였다.

《원 아주머니두 참, 남편이 저녁을 좀 늦어먹는다고 큰일 나겠나요? 어두워하는데 이 골짜기에 까지?》

하고 현도는 공연히 어려운 걸음을 하지 말고 돌아내려가라고 권고했다. 《일없어요. 저녁을 늦어잡숫는 정도라면 이런 심부름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겠는데 우리 광호 아버지는 남에없이 손이 굵든지 날마다 밤중까지 일을 해야 다른 작업반만큼이나 하는것 같아요.》

하고 성필의 안해는 현도의 옆을 스쳐지난다.

《아니 밤중까지라니요?》

현도는 성필이가 맡은 작업반이 다른 작업반보다 앞섰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었는데 밤중까지 일한다는것이 놀랍기만 해서 걸음을 멈추며 다시 물었다.

《글쎄 양우리 짓기가 시작되자부터 밤중이 지나야 집에 내려와 눈을 붙였다가 아침이면 또 올라 가군하니 밥을 안나를수 있어야지요.》

《허, 그렇다면야 정말 저녁밥을 안나를수도 없겠구만요.》

하고 현도는 집으로 내려왔으나 성필반장이 날마다 밤중까지 일을 한다는것이 잘 리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날 현도는 작업을 필하고 내려오던 길에 성필반장네가 맡은 속새골로 일부러 들어가 보았다. 거기에도 현도네와 똑같은 규격의 양우리가 한채 건설되어있고 두번째기초를 시작하는중이였다. 날마다 해동무나 되어 일을 끝내는 현도네는 두번째기초를 다 쌓았는데 밤중까지 일하군 한다는 성필반장네는 이제 두번째기초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밤깊이까지 일할 작정이였다.

현도는 도무지 그 까닭을 알수 없어서 한창 기초쌓기를 하는 작업장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때야 그는 박성필네 작업반이 유별나게 로동시간을 많이 투하하면서도 속도가 굹뚱 원인을 알수 있었다. 그것은 현도네가 하고있는 기초에 비해 깊이도 더 깊은것 같고 폭도 더 넓어서 근 두배나 품이 들것 같았다.

《아 - 니 성필동무, 이거 뭐 사람의 집도 아닌데 양우리기초를 이렇게 품을 맥이느라니 로동시간은 늦어지면서두 건설속도는 굹뜨잖나.》

하고 현도는 깨우쳐주려는 심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박성필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담배 한대를 피워물고 잠간 생각에 잠겨있더니

《우리가 로동시간을 좀 더 들이는거야 뭐라나. 원래 돌집이란 기초만 튼튼하면 수백년을 끄떡없이 쓸수 있다가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건데.》

하고 대답했다. 《원 참 별소릴 다하는군. 이제 나라의 경제형평이 꺾이면 양우리도 벽돌집으로 짓겠는데 이런 돌집으로 몇백년을 살 생각을 하다니?》

《허허 벽돌로 양우리를 짓게 될 때는 벽돌로 짓더라도 돌로 지은 이 양우리를 그때 가서도 계속 쓴다 해서 나쁠거야 뭐겠나.》

성필은 오히려 현도를 리해할수 없다는 표정이 다.

《아 글쎄 나쁠거야 없지만 양우리기초를 쌓느라고 이렇게 아까운 세멘트나 로력을 더 들일거

야 있는가?》

현도는 안타깝다는듯 주장을 세웠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들여서 돌과 돌이 이가 딱딱 맞도록 잘 깨여서 쌓기만 하면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두 세멘트는 절반이상 절약할수있소. 우리는 열등분 세멘트로 열다섯동을 지을게 획이요.》

《뭐 기초를 더 튼튼히 하면서도 열다섯동을 짓는다구?》

《그럼, 일을 쉽게 하려고 둥글둥글한 자연석을 그대로 주어다가 세멘트를 많이 쳐넣으면서 쌓는다면 몇배의 세멘트를 쓰고도 기초는 든든치 못하지만 우리가 힘과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돌을 잘 깨서 이가 맞게 쌓는다면 세멘트는 얼마 안들이면서도 기초는 더 튼튼하고 양우리도 더 많이 지을수 있거든.》

성필의 주장은 확고한것이였다. 돌은 이고장에 많으니 문제될게 없고 사람의 힘과 시간만 좀더 바치면 양우리를 튼튼하게 더 많이 지을수 있다는것이였다.

《자, 정 그렇다면 말씨름은 더 할 필요가 없구 쌓던 기초나 빨리 끝내자구.》

하고 현도는 성필반장네 기초쌓는 일을 도와나섰다. 그는 자기네 반에서 기초를 쌓던 때처럼 닥치는대로 돌을 주어다가 성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성필은 둥글둥글한 자연석을 그대로 쌓는법은 거의 없고 밑에 놓인 돌과 이가 딱딱 맞도록 메로 까고 망치로 다스려서 가끈가끈하게 쌓는것이였다. 성필의 기풍을 따라 다른 석조공들도 그렇게 알지게 쌓아나갔다. 확실히 사람의 품이 많이 들고 돌도 많이 들지만 세멘트는 얼마 안드는것이였다.

현도는 자기네가 첫 한동에서 두배나 되는 세멘트를 쓰면서도 기초의 질이 이것보다 어방없이 못했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현도는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가책을 느끼면서 거둬 돌을 날라다 섬기였다. 그런데 좀 갑작한 돌 하나를 날라다 섬겼을 때 성필은 그 돌을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돌을 들어다 쌓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 가벼운 돌은 차돌도 아니고 화강석도 아니네, 질이 낮은 부석이야. 이런 돌 한두개가 끼워 있으면서 습기를 머금고 부식작용을 일으키면 기초가 튼튼치 못하지.》

현도는 모욕이라도 받은것 같아서 화가 동했다.

《여보 성필동무,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할건 없어. 아무리 가벼운 돌이라 해도 100 년은 문제없

을거네.》

《100 년이 마지막 한도겠나. 2 백년이든 3 백년이든 똑같이 변함없을 돌로 쌓으면 더좋은게지.》

《됐네, 됐어. 이 양우리와 함께 몇백년이라도 살것처럼 너무 그러지 말라구.》

현도는 성필이가 구태여 안해도 될 타발까지 하면서 저만 저노라고 우겨대는것 같아서 반발적인 어조로 한마디 짜주고는 집으로 가버릴 생각으로 픽 돌아섰다. 그러다가 저쪽산기슭의 달빛아래 밥보자기를 들고 서있는 녀인들과 아이들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었다. 성필네 작업반원들의 안해들과 아이들이였다. 그 녀인들과 아이들의 맨앞에는 성필의 안해와 함께 뜻밖에도 현도 - 자기의 안해도 서있었다. 성필의 안해는 두살짜리 광호를 업고 자기의 안해는 한살짜리 명희를 업고...

아이들을 업고 밥보자기를 들고 평탄치도 못한 산골의 밤길을 올라왔을 녀인들과 아이들을 보자 현도는 다시 성필에게 돌아서며 또 한마디 했다.

《여보, 성필동무, 그렇게 가벼운 돌이 어떻게 이음짬이 어떻게, 타발하면서 일을 굼뜨게 해서 밤마다 저렇게 아주머니들과 아이들을 밥심부름 시켜서 좋을까?》

그러자 박성필은 일손을 멈추고 밥보자기를 들고 서있는 녀인들과 아이들쪽에 눈길을 돌리더니 손을 툭툭 털며 현도의 안해앞으로 걸어갔다.

《이거 내가 일을 빨리 제끼지 못하다보니 다른 작업반 아주머니까지 이런 고생을 시키누만요.》

성필은 자기 작업반원들의 안해나 아이들은 이미 리해가 되었으니까 일 없지만 현도의 안해앞에서는 진정 미안하다는 어조였다.

《아이참 별말씀을... 혼자걸음도 아니고 광호 어머니랑 다른 집 아이들이랑 같이 오는길이어서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현도의 안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허참, 재미까지 있을거야 있겠습니까? 사실 현도동무하구는 너나들이로 지내는 친구지간이니 까 하루밤쯤 지원반하는것이 그리 미안할것두 없지만 아주머니까지 이렇게 수고하게 해서야.》

성필은 무슨 말을 더 해야 적중할지 몰라하면서 한동안이나 발끝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더니 다시 현도의 안해에게 눈길을 보내며 절절한 음성으로 말하는것이였다.

《명희 어머니,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미국놈들은 우리 강토를 재더미로 만들어놓구 100 년이 걸려도 못일어설것이라구 떠벌인다는데 우리가

그놈들이 바라는대루 살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밤일을 좀 더하고 안해들은 멀고 험한 밤길에 밥을 날라오고 하면서라두 어버이수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이 열발자국 걸을 때 우리는 백발자국을 뛰어야 전쟁의 상처두 빨리 가시구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밤일을 하고 안해들과 아이들이 밥을 날라오지만 우리가 해놓은 일이 은을 내게 될 먼 후날에 가서 우리의 아들딸들은 밤일을 안하고도 잘살수 있고 그들의 안해나 아이들이 밥을 나르지 않아도 된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호 아버지, 정말 그러참구요!》

현도의 안해가 감심한 억양으로 대답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필의 소행에 반발심이 일었던 현도조차도 성필의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진실한 목소리에 공감될뿐이었다.

너인들과 아이들이 가지고 온 밥보자기들을 펴놓고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이 계속되었다.

현도는 무거운 돌만 날라다가 이가 맞게 깨고 다스려서 쌓았다. 그는 자기가 성필네 작업을 도우러 왔다는 감정보다는 좋은 방식상학을 체험하였다는 감정을 받고 일을 끝마쳤다.

이튿날아침 현도가 자기 작업반이 맡은 부엌골 양우리건설장에 나와서 어제 쌓아놓은 기초를 들여다보니 성필이네가 쌓은 기초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하였다. 무거운 돌, 썩돌, 둥글둥글한것, 납죽납죽한것 가림없이 처널고 세멘트만 많이 메꿔 넣으면서 깊이와 두터이도 넉넉하지 못하게 쌓아진 그 기초의 몰골은 그대로 자기의 량심을 비쳐 보이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많은 세멘트와 로력이 투하되었고 이미 굳어진 기초를 까낼수는 없었다.

현도는 기초우에 방수제를 깔고 기본벽체를 쌓아 올린 다음 기초부분은 빨리 묻어버렸다. 2호동 건설이 끝나고 다음채 3호동부터는 기초도 성필이네처럼 무거운 돌만 규격맞게 깨어서 깊이도 두터이도 넉넉히 보장하면서 알지게 쌓았다. 그러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차피 밤길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밤마다 현도의 안해를 비롯한 너인들과 아이들이 저녁밥을 날라왔다.

계획대로 반년동안에 양우리가 다 건설되었다. 같은량의 세멘트를 가지고 성필네는 열다섯동을, 다른 세작업반들은 열세동씩을, 현도네는 열한동을 건설하고 국가로부터 보내온 양들을 받아들이었다. 다섯끝짜기에 양들이 차고넘치였다. 해마다 양들이 늘어났다. 양이 늘어난것만큼 건설계

획에 넣어서 한해에 한두동씩의 양우리를 더 지으면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양우리는 여전히 돌로 지었다. 돌이 벽돌보다 더 좋았던것이다.

돌로 든든히 지은 양우리들이 무너지거나 금가는 일은 없었으므로 계획의 밤작업을 할일은 별로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어른들이 밤일을 한다가나 안해와 아이들이 저녁밥을 날라야 할일도 별로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25 년의 세월이 흐르고 현도가 로인으로 되어 년로보장을 받은지 1 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바로 이 부엌골의 1 호동과 2 호동 양우리가 기초사고로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계획의 로동으로 다시 짓고있는것이다...

현도로인은 축수높은 야외선등의 불빛아래에서 새 양우리의 기초를 쌓고있는 광호와 명희 그리고 양우리 짓는 일을 지휘하다싶이 간참하고있는 박성필로인의 모습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힘이 없었다. 자기가 한때에 불성실하게 해놓은 그 후과로 오늘은 젊은 사람들이 계획의 작업을 하게 되었고 더구나 25 년전 안해의 등에 업혀왔던 딸 명희가 그 작업성원속에 끼여있고 자기가 그 딸의 밥보자기를 들고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많은 인생추억이 되살아났다.

속새골 양지기숙에 탄탄하고도 그뿐하게 줄지어 서있는 양우리들이 바로 공로보장자 박성필의 한생을 비쳐주는 거울이라면 이 부엌골의 1 호동과 2 호동처럼 벌써 기초가 흔들리고 벽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양우리들은 바로 보통 년로보장자인 강현도-자기의 한생을 비쳐주는 거울인것만 같았다.

(자기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도 오랜 세월을 두고 후대들에게 은혜를 입힐만한 가치있는 일을 해놓은 사람들은 웅당하게도 공로보장자의 자격이 있지만 나처럼 제나이때까지도 은을 내지 못하는 일이나 해놓은 사람은 보통년로보장도 과분하지, 과분해!)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한 현도는 얼굴뜨거움을 무릅쓰고 양우리기초쌓기작업장으로 다가갔다.

《아-니 이거 명희 아버지가 딸의 저녁밥을 가지고왔구만요!》

현도를 먼저 알아본 젊은 작업반장이 반겨하며 현도의 손에서 보자기를 받아들였다. 작업장에서 일손을 다그치던 그 누구도 현도를 원망의 눈길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저 나이 많은 로인이 밤길을 무릅쓰고 옛날의 자기 일터에 찾아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온통 반가와하는것이였다.

명희도 아버지를 보자 반가와하며 얼굴이 빨개가지고 웃음을 지었다.

《허허, 령감두 올라왔나?》

하고 저쪽 희미한 등빛아래서 돌까는 메질군의 메자리를 그어주던 성필로인이 현도에게로 다가오며 반가운 소리를 한다.

《아니 령감, 그래 이런 일에 오겠으면 나한테두 말해서 같이 오는게 옳지, 무슨 꿍꿍이를 하자구 혼자만 왔나?》

하고 현도가 진정 노한듯 볼부은 소리를 하고는 피씩 웃었다.

《원 이런데 령감이 돌씩 와선 뭘 하고 혼자서두 도돌만한 일이 별루 없는데.》

《도올 일이 있어두 같이 오구 없어두 같이 와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나?》

《흐흐, 낚시질로 잡은 생선이나 좀 구워가지구 올게지 빈손으로 와서 투정질이나 하려나?》

《생선? 흥 비위는 좋구만. 령감뭇은 없네. 이진 젊은 사람들이나 좀 맛보게 해야겠네.》

하고 현도로인이 생선틈기남비를 헤쳐서 젊은 사람들만 혼자 먹으라고 확 안겨주는바람에 와 - 웃음이 터졌다.

저녁요기들이 끝나자 성필로인과 현도로인은 작업반장과 광호, 명희들의 돌쌓는 일을 도와주었다. 현도는 자기 생활의 설궤던 흔적을 여기에서라도 메꾸려는 심정에서 돌과 돌이 조금만 이가 맞지 않아도 다시 다스려쌓게 하며 어지간히 잔소리를 해나갔다.

《아바이두 참, 그만하면 됐어요. 땅속에 파묻힐 기초인데 그렇게까지 가쁜하지 않으면 뭘까나요?》

광호가 한마디 했다.

《허, 기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돌은 땅속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묻힌다네. 돌이 잘못 묻히면 늘 가슴속에서 깔그렁거린다네.》

현도는 지금 자기의 마음속 피로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버지두 참, 기초 하나 쌓는데 이렇게 꼼꼼히 하다간 양우리 하나 짓는데 밤일을 열흘도 더 해야겠어요》명희가 웅석비듯이 하는 소리다.

《열흘밤이라 ... 그래 열흘밤이 더 걸릴수도 있지. 하지만 오래간만에 해보는 밤일인데 며칠밤 더 한다구 큰일 나겠냐. 지금 너희들이 며칠밤 더 힘들어서라도 일을 알심있게 해놓으면 먼 후날에 가서 너희들의 자식들은 계획외 밤일을 안하고도 잘살수 있을게고 너희들은 나처럼 자식의 밥보자기를 나르지 않아도 될게다.》

하고 현도는 광호와 명희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의미있게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명희는 별말을 다한다는듯 광호를 힐끗 결눈질해보고는 얼굴이 빨개서 사람들의 뒤로 몸을 감추어버린다.

그러나 현도의 그 말속에 담긴 깊은 뜻을 누구 보다도 똑똑히 느낀 성필로인이 현도앞으로 다가서며 한마디 끼었다.

《음, 이 령감이 꽤 셈이 든 소리를 한다.》

《예끼 이사람.》

현도로인은 남의 이야기에 자꾸 빠치기 말라는듯 성필로인의 어깨를 툭 쳐 물리치며 눈을 흘겼다. 그들의 말과 행동 밑해 깔려있는 뜻을 다 알수없는 젊은이들은 70 로인들이 마치 아이들처럼 노는것이 우스워서 와 -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또 기분들이 명랑해져서 일에 달라붙었다.

×

두동의 양우리 건설이 끝난 다음날아침, 해도 채 뜨기전에 성필로인이 불룩한 가방과 낚시대를 들고 현도로인을 찾아왔다. 빨리 낚시질을 나가자는것이였다.

《아니 이거 강에 해도 들기전에 웬일이요?》

현도는 너무도 일찌기 서둘러 나서는 성필로인을 의아히 맞이했다.

《아, 그놈의 양우리가 금이 갔다 어쨌다 할 때는 마음이 깨름해서 낚시질 생각두 없었지만 이제야 새로 번듯이 지어났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낚시질을 나갈수 있지 않소. 요새 한창 날치, 행개리 철인데 한번 본때있게 낚아봅시다.》

성필로인은 불룩한 가방을 헤치더니 생선국 끓일 냄비며 간장병, 식초병, 쫓고추 지어 한병의 인삼술까지 슬쩍 내보이였다.

《아니 그 좋은 술은 어디서 났소?》

현도로인은 구미가 부쩍 당기여 물었다.

《어제밤 목장지배인동무가 가지고 와서 <양우리 짓는 일을 도와주시느라고 그 기간 낚시질도 못하섯했는데 래일은 두분이 나가서 폭쉬십시오.》 하잖겠나.》

《지배인이? 허허, 령감이야 떼떽하지만 내아제 잘못을 씻으러 다닌 사람인데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되나?》

《원 별소리, 이제야 마음 깨름할것두 없겠다, 한번 나가서 낚아봅시다.》

《자, 이거 인삼술을 보고야 안따라갈수 있나.》

현도로인은 못이기는척하면서도 실상은 기분이 흥겨워서 낚시도구를 꺼내들고 따라나섰다.

복반은 로인들의 즐거운 하루를 기약하듯 옥사강물결우에 찬란한 아침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렸다.

강철전사들이여!

사회주의건설의 《1211 고지》를 지켜선 혁명전사의 영예를 높이 떨치라!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전투장들에 더 많은 철과 여러가지 규격의 강재를 보내주라!

-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 -

구내산의 푸른 숲

권태여

오뉴월 우거진 록음이
구슬땀 식혀주는
숲으로 가자
구내산의 푸른 숲으로

쇠물을 끓이는 로동의 희열속에
꽃향기에 이끌리는 휴식의 한때면
잔디 고운 풀잎우에 팔씨름 다투는
숲으로 가자 사랑의 숲으로

밀화부리 도요새 나무마다 춤추고
아카시아 꽃그늘에 꿀통이 넘치는
종구나 구내산의 푸른 숲은
용해공들의 정다운 휴식터

용광로의 불길도 꽃바람에 젖어들고
쇠물꽃보라 더더욱 고와보이는 숲이거니
한점의 맑은 공기를 두시고도
사랑을 안겨주신 그 은정
한그루 나무 한송이 꽃에도
뜨겁게 펼쳐주신 사랑의 언덕이여

폐허우에 용광로를 세우던 그날
재가루 밟으시며 찾아오신 수령님
혈뺀 산우에서 설계를 보아주시л 때
구내산을 없애버리겠다는 제의를 들으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도면을 접으시며

조용히 하시는 말씀
산은 사울수도 세울수도 없다시며
구내산에 그대로 용광로를 세우고
더 푸르게 아름답게 가꾸라고
뜨거이 가르치시는 어버이사랑이여

아 이 나라 력사우에
용해공들을 앞세워주시는 그 사랑
포화에 그슬렸던 나무에도 꽃이 피고
새들도 노래하며 날아왔거니

쇠물뽑는 용해공들에게
맑은 공기 부어주신 그 은덕
사람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시며
인간애의 그 높은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자애로운 품이여

그 품에 안겨
뽑아낸 쇠물은 얼마이더냐
쇠물보다 더 뜨거운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은 영광스러운 당 6 차대회를 맞으며
강철로 조국을 더 높이 받드는
이 나라 강철공들의 자랑 끝없거니

구내산의 숲이여 푸르려 설레이라
흐르는 세월과 함께
사랑의 년륜을 더 많이 아로새기며
꽃과 록음으로 더 무성하라

기적소리

정렬

붉고푸른 신호등들이
역구내에 흐르는 밤
엇갈리어 들어서는
렬차들을 맞으시며
수령님께서 걸으시여라

어제는 그 어느 농장마을
벼포기 설레이는 들길을 걸으시며
한해의 농사일을 돌보시더니
오늘은 동해선
산촌의 작은 역을 찾으신 수령님

구내를 걸으시며
이윽도록 들으신다
산굽이를 돌아
철다리우에서
은은히 울려오는 기적소리를

아 반가운 메아리
언제나 들어도 정다운 기적소리
별들이 흐르는 하늘을 흔드는데
수령님의 생각을 싣고
오늘의 행복한 궤도를 지나며
렬차는 달리는가

싸움의 그날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달려나와
두줄기 궤도를 안아지키던 사람들
적의 기총탄속에서도
거대한 흐름을 받들어
드팀없이 서있던 이고장 철다리

차량마다
넘치는 사랑을 싣고가기에
조국의 목소리를 전해가기에
사람들은 물속에 잠기면서도
적탄에 쓰러지면서도
전선천리

목숨으로 기적소리 울리지 않았던가

순간도 멈춤없이
철의 궤도로 흐르는 그 소리에서
인민들은 큰힘을 얻었다고
오늘도 온 나라에 기쁨을 안겨준다고
뜨겁게 뜨겁게 구내를 울리시는
수령님의 음성이어

철길우에서 사는 승무원들도
수원들도
처음 기적소리를 듣는듯
눈이슬에 젖고
두고두고 외우시는
수령님의 그 은정 전해가며
아 목이 맨 기적소리

불비속의 그날을 넘어
정시에 이어져 흐르는 그 소리에서
나날이 실려가는 보화의 더미에서
키를 솟구는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수령님
환한 미소 지으시여라

오 기적소리
싸움의 불바다를 지나
시련의 년대와 년대를 넘어
불노을이 피는 락원에 줄기차게 흐르는
조국의 숨결소리여

정시를 알리며
전진하는 시대의 음향으로
수령님 들어주시는 기적소리 기적소리
아 우리 당 6 차대회의 축전장으로
온 나라가 안고사는 노래가 되어
렬차가 달린다
끝없이 마주 다가오는 미래에로 미래에로!

그 기대 조용히 서있어도

한기운

드넓은 직장구내 아득히
물결치듯 흐르는 자동흐름선 한결에
어제날의 소박한 하나의 기대가 놓여있어라
하많은 사연을 이야기하며
못잊을 나날을 되새겨주며

우리의 자랑찬 노래인양
수령님 우러러 당을 따라 걸어온
공장구내를 울리며
번쩍이는 흐름선은 장엄히 돌고
《자력갱생》호 크지 않은 선반기는
나지막한 단우에 조용히 놓여있고

아침에 저녁에 또 한밤에
사람마다 첫 일손을 잡을 때에도
이제는 버릇처럼 되였는가
그 선반기를 바라보며 시작하고
하루일 끝내고 돌아갈 때에도
그 선반기를 생각하며 걷는다

세월은 흘러 그 몇십년
지금은 어느 작업공정에 맞물리지 않았어도
《자력갱생》 그 글발처럼
우리모두를 그날의 신념으로 불러주며
당을 위한 한마음 뜨겁게 하여주는 그 기대

채 식지 않은 재더미우에서
조국의 오늘을 바라보던 그날
없는것이 너무도 많아
누가 줄것만을 바랄수 없던 우리 마음
제손으로 너를 다듬어 세웠거니

잊지 못한다
아버이수령님 모셨던 그날
이렇게 우리 손으로 기계를 만들어

이렇게 제이름 붙이니 얼마나 떼떽한가고
기쁘시여 친히 손잡이도 잡아보시던
그 선반기

기대는 소박해도
그날의 그 손길 힘이 되어
밤낮으로 쉬임없이 돌고돌아
건설장엔 기증기탑들 숲을 이루었고
산정의 채굴장들엔
다듬어낸 굴착기의 크고작은 부속들
새끼친 기대들은 그 얼마이던가

전야마다 수리화의 언덕엔
그 동음에 화답하듯
양수기의 거센 동음에
억년 만풍년의 물기등 뿜어올렸거니

지나온 그 나날들이 감회깊어
눈물겹도록 더 황홀하구나
자랑 많은 《어머니》기대
그날의 그 동음속에
오늘은 우리 힘 우리 기술로
온 공장에 굽이치는 자동흐름선

아 《자력갱생》호여
너 이제는 조용히 서있어
그 어느 공정에 맞물려있지 않아도
너는 언제나 자동흐름선과 함께 돌고있어라

그날의 그 신념 그 의지로
천만마디 귀한 말을 다 담아
어머니당 6차대회에 승리의 노래를 드리며
래일에 펼쳐갈 더 빛나는 변혁을
우리의 가슴마다에 깨우쳐주며...

비단물결앞에서

윤명숙

하루에도 몇십번
수령님 걸으셨던
직기사이를 오갈 때면
뜨거워지는 내 마음
칠색무지개 되어 피어나는 꽃비단이런가

직포공이 걷는 작은 순회길
그 리수마저 헤아려보시며
나의 옷자락도 여미여주시던
아, 어버이사랑
비단에 꽃피여
비단이 그리도 아름다운것인가

그 어디에 가시여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생각하시며
옷을 입을 때엔 방직공들을 잊지 말자고
뜨겁게 하시던 그 말씀 새겨안고
행복에 잠긴 내 마음
언제나 꽃으로 반겨주는 비단물결이여

오늘은 수령님께서 무엇을 구상하실가
끝없이 흐르는 비단천우에
수령님 꽃피우시고 바라시는것
복실을 바꾸어가며
다시 비단에 수놓아가는 마음

수령님 오늘도
헤쳐가시는 새벽길을
내 그려보며
새벽에 짜면
은구슬 새벽이슬이 수놓아 흐르고

한낮에도 수령님 들길을 걸으시니
그이의 걸음따라 펼쳐지는 황금파도가
내 마음에 물결쳐와
금비단이 되어
비단엔 가을향기가 넘쳐나는가

이 밤도 현지도의 길을 가시는
수령님 따라 제철지구의 밤노율이
비단에 비껴가고
이 밤도 달이 되어 별이 되어 따르는
내 마음
달비단 별비단이 되어 흘러라

아 한평생 인민 위해 걸으시는
거룩하신 그 길을 이어서
조국의 아침이 밝아오고
그 따사로운 해빛은
온 강산에 넘쳐나거니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리는
내 행복이 크면 클수록
락원의 강산에 꽃바다를 수놓아가며
승리자의 자랑높이 당 6 차대회에로 대담는
나는 직포공

수령님 가시는
그 길을 우러러
따르고따르는
순결하고 깨끗한 이 마음이
이 땅에 꽃비단이 되어 꽃물결이 되어
언제나 비껴흘러라

우리의 분조원이라고

김국용

푸르른 들판에 나서면
김매는 농장원들 반가이 맞아주고
층층 설레이는 과원에 가면
사과나무를 가꾸는 처녀들
저마다 손을 잡아 이끌고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가는 일터마다
그는 우리의 분조원이라고
그는 허물없는 한집식구라고
언제나 따르며 함께 있는
미더운 3대혁명소조원처녀

들메꿀 솟눈우에
작은 발자국을 낸 그날부터
봄내 여름내 들판을 떠난적 없어
그 알뜰하고 간진 마음이
누런 벼이삭으로 설레이 때

산기슭에 돌기돌기 돌벽을 쌓고
계단식과원을 일으킨 그날부터
정을 붓고 마음을 쏟아
아지마다 가꿔온 그 사랑이
알알이 붉게 배여 휘늘어질 때

아, 무겁게 고개숙인 한이삭의 벼
탐스럽게 무르익은 한알의 과일
그 모든 알찬 열매들은
수령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논에도 언덕에도 불러온것이기

우리의 분조원이라고
우리의 한집식구라고
사람들 스스로 불러줄 때

그 부름이 오히려 기쁘고 반가와
논벌을 과원을 떠날줄 모르는
소조원처녀라네

언제나 수수한 옷 입고
들판과 사람들 맘속에 살며
찾아가 일깨워준 그 자욱우로
사람들의 새 걸음을 이끌어준
그는 혁명의 전위

뜸부기 우는 한밤에도
아지치는 논벌
맑은 물의 깊이를 가늠하고
접한 가지를 지켜 몇밤
향기론 새 과일을 얻어낸
우리의 사랑스런 처녀라네

그가 옮겨가는 충성의 자국우에
그가 남기는 아름다운 웃음속에
별은 별마다 만풍년을 이루고
사람들 환희와 희망을 받아안네

기쁜 일 생기면
그 기쁨 그가 있어 생겼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손길이 기다려져
온 분조 온 작업반이 찾는
그는 미더운 소조원

아 소조원 그의 가슴속엔
온 분조 온 작업반이 다 있고
농장원 그들의 마음속엔
언제나 그 처녀가 함께 있어
들판에도 언덕에도 만풍이 설레이네
3대혁명 그 빛발이 가슴마다에 넘치네

시대의 노래

최용규

XX 항구도시에서 진행되는 XX 지역 주체사상 연구토론회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커다란 흥분 속에서 계속되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연락앞에 나선 사람은 스물대여섯나는 청년이었다.

그는 회의장을 빙 둘러보고나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 토론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연구 토론회가 열리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금 항구에 닿을 내린 상선에서 달려온 해원 미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3 년전에 인디아양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켈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X X

현시대의 우주공간에는 무수한 전파가 날고있다. 그 전파들은 다 자기의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있다. 거기에는 평화와 건설의 성과를 축복하고 이웃과의 친선을 도모하는 선의의 전파로부터 딸라와 파운드의 시세를 룡간질하고 지배와 예측을 꿈꾸며 화약내를 풍기는 전파에 이르기까지 지구우에서 벌어지는 크고작은 모든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어 얹혀날았다. 이속에 끼여 다음과 같은 공개전파 하나가 날고있었다.

《SOS, SOS, 미켈씨를 살려주세요. 여러 선장님들께 빙니다. 바다에 떠다니게 된 저의 미켈을 구원해주세요...》

이 공개전파는 류달리 거칠은 인디아양의 물결 위에 떠돌며 항행하고있는 배의 당직무전수들과 전파탐지수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미켈은 차종지안의 홍차로 목을 적히고나서 어찌하여 그러한 전파가 날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이야기했다.

《저는 바로 그때 다국적회사의 상선인 〈미시간〉 호의 갑판원으로 고용되어있었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에 들여밀 상품을 싣고 긴급항해를 하고있던 〈미시간〉 호는 태풍을 만나 예상외로 소비한 기름과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XX 항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악성독감으로 자리에 쓰러지게 된 나는 그것으로 하여 뜻하지 않은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 그때 세계 여러곳에서는 사망률이 강한 악성전염병이 폭발적

으로 퍼지고있었습니다...》

《미시간》호가 입항한 항구는 언제나 봄비는 국제무역도시였다. 동남아시아의 입쌀과 오스트랄리아의 밀을 실은 상선이 떠나가는가 하면 가구목재로 이름이 높은 흑단목과 코코아같은 특산물을 싣고온 중미상선대가 들어서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중동의 원유를 실으러 갔다가 문전거절을 당한 유조선의 검은 선체도 보인다. 러객선, 수로안내선 그리고 해양경찰선, 각이한 화물, 각이한 침로, 각이한 목적을 가진 화물선들로 항구는 한순간도 조용치 않았다. 걸죽한 기름과 통줄임통, 깨진 상자, 각가지 빈병들이 뚱뚱 떠도는 부두앞에 닿을 내리고 서있는 《미시간》호에서는 이틀밤째 작업등이 꺼지지 못했다.

출항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월슨은 굳이진 유들유들한 얼굴을 조타실창문밖으로 내밀었다. 자기가 계획했던것보다 출항준비가 훨씬 앞당겨진데 흐뭇해진 그는 선원들에게 저녁 10 시까지의 외출을 허락했다.

《이틀간 허리 한번 제대로 못뻐는데 겨우 5 시간 동안이야?》

《일이 끝나면 반나절은 쉬우겠지구? 흥...》

《언제나 이 모양이라니까.》

《제길, 빨리 나가자구.》

잠시후 한패의 선원들이 배전에 펼쳐놓은 사다리를 타고 부두로 내려갔다. 항구에서 얼마간 떨어진 언덕에 자리잡고있는 만국해원구락부로 가기 위해서였다. 이 구락부는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해원들의 정거장이었고 주머니의 잔돈까지 깨끗이 털어내는 환락장이었다. 이곳에 들리면 세계의 여러 항로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알수 있고 수만리밖에 있는 친우를 뜻밖에 만나는 일도 드문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서는 형형색색의 해원들이 모여들었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 모여드는것처럼 끝없는 이야기들과 토막소식들이 잠간사이에 종합되고 구두통신에 의하여 지구의 도처에 퍼져가기도 했다. 그 하많은 이야기가운데서도 해원들이 자주 듣고 읊기는 말마디는 《맑은 아침의 나라》 - 《천리마 조선》에 대한 이야기였다. 구락부에는 《카-》 하는것도 흔하고 간드

러진 웃음과 노래를 파는 《비계덩어리》들도 있었다. 상 밑에서 벌어지는 《트렁크무역》도 해원 구락부의 인기중 하나였다. 참으로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수부들의 쿵쿵한 마음을 한순간이나마 잊을수 있게 하는곳이었다.

미켈이 선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부두에 내린 친구들이 넓은 바지가랭이로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가고있었다. 미켈은 급히 사다리를 구르며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얼마간 갔을 때였다.

《미켈씨.》 하고 그를 부르는 너자의 목소리가 배우에서 울려왔다.

미켈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었다. 값진 천은 아니나 깨끗하게 지은 원피스차림의 자그마한 처녀가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미시간》호의 보조무전수인 엘렌이란 처녀였다.

미켈은 오른손을 약간 쳐들어보이였다. 시내에 나갔다가 오겠다는 뜻이 었다.

배전에 가슴을 기대고 미켈을 지켜보고있던 엘렌이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미켈은 엘렌에게로 되돌아갔다.

미켈이 엘렌을 알게 된것은 두해전이었다.

엘렌의 아버지는 서우처럼 건장한 체력과 표범처럼 성깔진 성격을 가진 키가 구척같은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장놈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는 리유로 태평양상의 자그마한 무인도에 강제하선당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선장놈의 만행을 폭로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려다가 오히려 칼침을 맞았다. 엘렌이 이 사실을 떠들자 그의 밥줄이 달려있는 우편국에 까지 검은 손이 뻗쳐졌다. 랑부모와 직업까지 모두 잃어버린 나 어린 엘렌은 세상을 저주하며 바다가 절벽에 나서 검푸른 물결을 향해 몸을 던졌다. ... 마침 뽀트를 타고 부두밖에 정박하고있는 자기 배로 돌아가던 미켈이 그를 건져실었다. 통신기술이 높은데다가 먹여만 주어도 좋다는 채용조건이 월슨선장의 마음을 움직여 엘렌은 《미시간》호의 무전조수로 남아있게 되었다

미켈을 멈추어세운 엘렌은 그에게로 마주오며 시내외출을 하는가고 물었다.

미켈은 엘렌의 앞가슴우에서 번쩍이고있는 브로치를 더듬어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처녀에게 진짜 보석목걸이 하나 선물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스럽게 가슴을 허비여 그는 엘렌의 가슴에서 눈길을 돌리였다.

엘렌은 구두코로 세멘트마닥을 우빌뿐 왜서인지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왜 그러오?》

엘렌은 가는 속눈썹사이로 미켈을 말끄러미 건너다보며 맥주나 한조끼 하려거든 배에서 하는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미켈은 엘렌이 자기를 무엇때문에 멈추어세웠는가를 알아차렸다..

《배를 놓치지 않게 돌아올테니 걱정마오.》 하고 미켈이 엘렌을 안심시켰다.

《이곳 항구에도 실업자가 많은것 같애요.》 하고 엘렌이 호하고 한숨을 쉬였다.

들리는 항구마다 다 그러하지만 《미시간》호가 들린 항 역시 실업자들이 욱실거리였다. 외출하였다가 배에 미처 돌아오지 못하면 그는 이국의 실업자대렬을 보충하는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선장이나 배에 타고 다니는 회사감독이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선원들에게 《강제하선》으로 위협하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미켈이 외출하려는 목적은 세계 여러 나라 수부들이 모여드는 이곳에서 행여나 고향의 친구를 또 만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에서였다.

미켈의 조국은 대서양의 물결이 밀려드는 해변가 나라였다. 땅은 기름지고 바다엔 왕새우와 안초비(정어리일종)가 툭툭 꼬리치며 욱실거리였다.

그러나 미켈의 창자는 언제나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한가지가 없어서였다. 그것은 돈이었다.

미켈은 입가에 앓는 쉬파리마저 날리지 못하는 병약한 어머니와 눈먼 어린 동생에게 《돈을 벌여가지고 인차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고향을 떠났다. 불별이 쏟아지는 차재배원과 밀림속개간지, 삿잡의 기름까지 깡그리 짜내는 동광산 그리고 사탕수수밭에서 살을 깎이우고 젊음을 잃으면서 마가울의 단풍잎처럼 굴러다녔다. 그러다가 발을 올려 놓은곳이 바로 《미시간》호였다. 그것이 어느새 4 년하고도 석달이 되어온다. 하지만 그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단 한번 어느 항구에서 천만뜻밖에 만난 고향사람에게 혈액은행에서 받아쥐고 나온 딸라 몇장을 살아있다는 소식삼아 보낸것이 전부였다.

《미켈 그만 떨어지라구.》 하고 앞서간 친구중의 한사람이 뒤를 돌아다보며 소리쳤다. 걸죽한 룡말이 뒤따랐다.

미켈은 얼굴을 붉히는 엘렌을 정겹게 마주보며

자기의 외출목적을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돌아서 걸음을 옮겼다.

멀어져가는 미켈을 측은해하는 눈길로 지켜보며 생각에 잠겨들던 엘렌이 그를 다시 따라 달려왔다.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다.

부두의 야외등에 반사되어 그의 손바닥우에서 무엇이 번쩍거려였다.

《뭘데?》 하고 엘렌이 주는 물건을 받으려던 미켈은 흠칫하고 자기의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처녀의 앞가슴으로 눈길을 주었다. 방금전까지 목에 걸려있던 구슬과 브로치가 보이지 않았다.

《만약 고향사람을 만나신다면 살아계신다는 소식만 전하시겠어요? 이 목구슬이 진품이 아니어서 값진것은 못되지만 어머님께 보내주세요. 제게는 보태드릴게 이것밖에 없어요.》

미켈은 입술을 꼭 깨물며 먼 하늘을 바라볼뿐 아무 대답도 못했다. 사랑하는 처녀의 목구슬까지 벗겨야 하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엘렌이 벗어든것이 그의 어머니가 생존시 험한 세상에 나서는 딸의 앞길에 불행이 없기를 빌며 마련해준 《호신부》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왔다.

비구름을 물고오는 습한 바람이 엘렌의 머리칼을 잡아흔들며 지나갔다.

《날씨도 좋지 않을것 같은데 어서 갔다오세요.》

엘렌은 미켈의 손에 목구슬을 쥐여놓고는 배우로 달려올라갔다.

《엘렌!...》 하고 미켈은 배전너머로 사라지는 처녀를 지켜보며 뜨거운것을 삼켰다...

엘렌과 헤어져 만국해원구락부로 간 미켈은 자기의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고향사람을 꼭 만날수 있으리라는 담보가 있어 외출한것은 아니였지만 정작 그 뜻이 허사로 되자 다리맥이 풀렸다. 그는 홀 한켠에 놓여있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쥐었다.

맞은편 식탁에서 병을 기울이고있는 늙은 수부의 노래소리가 미켈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은 동으로 래일은 서쪽으로

부모처자 어데 두고 나홀로 예 왔다

헤이 헤이 술 부어라

래일은 또다시 바다이라네

미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부는 잔에 철철 넘치게 부어놓은것을 입에 쏟아넣었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오늘은 동으로 래일은 서쪽으로.

무엇 찾아 만리이국 예까지 내 왔다

.....

미켈은 늙은 수부가 마치 자기의 처지를 두고 노래하는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노렐 그만두지 못하겠소?》 하고 고함을 치고싶은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이 시각에도 어머니와 동생이 대양너머 자기를 기다리고있으리라고 생각하니 미칠것만 같았다. 그는 노래소리에 쫓기우듯 늙은 수부의 앞에서 황급히 물러났다. 홀밖에서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있었다. 비바람은 거리의 애얼린 나무들을 쓸어놓히려는듯 아우성치고있었다. 비내리는 이국의 밤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미켈은 외출한것을 후회하였다.

현관에 나선 미켈은 붉고푸른 네온등들이 요염하게 명멸하는 밤거리를 더듬으며 주머니의 지전장을 만지작거리었다. 어서 결심하라고 재촉하는듯 주정뱅이들을 쳐실은 승용차들이 흙탕물을 휩부리며 미친놈처럼 드달려다니었다.

미켈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나서 승용차대기장으로 갔다. 마침 승용차 한대가 어데 나갔다가 돌아와 발동을 끄고있었다. 미켈의 청을 받은 운전수는 휘줄근한 그의 물팔을 결눈질해보고서 이마살을 찡그리며 뒤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운임계산기에 스위치를 넣었다. 이때였다. 로출중에 걸린 계집년을 끼고 나타난 한 놈뎡이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운전수의 손에 딸라 석장을 쥐여주었다. 승용차는 년놈들을 싣고 자리를 떴다. 인간이 아니라 보다 무거운 딸라를 싣고 떠난셈이었다. 미켈의 앞에는 역겨운 자동차의 배기가스만이 남아 떠돌았다. 멀어져가는 빨간 불빛을 쏘아보는 미켈의 아래입술에는 깊은 이발자국이 찍혔다.

《손님!》 하고 새로 나타난 다른 승용차가 미켈을 청했다. 하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승용차를 뒤에 두고 거리에 나서는 미켈을 조롱하려는듯 비는 더 억수로 변해갔다. 아니 미켈에게만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미켈은 몇걸음 걷지 않아 물참봉이 되고말았다. 비물이 등골과 앞가슴으로 흘러내렸다. 온몸이 으시시 떨

렸다. 승용차 하나가 그의 곁으로 바투 지나갔다.

미켈은 얼굴에 들쭉여진 흙물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이새로 부르짖었다.

《빌어먹을놈의 세상!》

X X

다음날 미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엘렌의 간청으로 미켈의 침실을 찾아주었던 《미시간》호의 의사 브라운은 황겁하여 그에게서 물러나왔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브라운은 위생 가방을 침대우에 집어던졌다. 미켈의 말라터진 입술, 충혈진 눈, 가쁜 숨결, 고열로 달아오른 얼굴, 허연 혀바닥이 눈앞에 여전히 얼른거렸다.

(황소같은 그놈이 쓰러지다니, 보건대 그놈이 전염병에 걸린것 같애.) 하고 브라운은 쓴외를 씹은놈처럼 얼굴을 찌프리었다. 브라운의사는 자기가 전염병환자와 접촉했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을 부르르 떨며 입고갔던 위생복을 황급히 벗어 세면대밑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소독비누 한개가 풀어지도록 손을 씻었다.

브라운의사가 세면대앞을 떠나 안락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자 기다리거나 한것처럼 전화종이 길게 울렸다. 선장 월슨이 그를 부르는 전화였다. 그는 제자리에 송수화기를 올려놓고서도 선뜻 거기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벌써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브라운은 미켈의 전염병(브라운은 자기가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 한번 대보지 않았다는것을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이 자기에게 어떤 후과를 줄수 있겠는가 하고 잠시 생각을 굴렸다. 항해중인 배안에 전염병이 생겼다는것은 비상사건이다. 더우기 배가 목적지를 아주 가까이 하고있는 사정은 이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할수 있다. 배에 전염병이 있어 입항이 거절되거나 지연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정신을 차려야 하겠는걸.)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라운의사가 나타나자 월슨선장은 아무말없이 턱으로 응접탁우를 가리켜보였다. 그곳에는 자그마한 종이장 하나가 놓여있었다. 브라운은 그것을 집어 눈앞에 펼쳐들었다. 방금 회사에서 온 전보였다. 무전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나라 해안지대에 악성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생기는것과 관련하여 입항하는 항구들에서 우리 배들에 대한 방역검열을 몹시 까다롭게 하고 있음. 당면한 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

를 잘하기 바람.》

왜 선장이 자기를 불렀는지 브라운은 알만했다.

문제가 서면 그 책임을 의사인 자기에게 물겠다는 암시였다. 《선의》를 베풀 때에는 우유부단하고 린색하지만 책임을 추궁하는데서는 회사가 조금도 우유부단하지 않다는것을 한두번만 목격하지 않은 브라운이었다.

그는 미켈이 침대에 쓰러져있음을 알렸다.

그 말에 월슨선장은 량미간을 찌프리며 브라운을 날카롭게 쏘보다가 아직 알콜에 취해있는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확정진단은커녕 손맥마저 제대로 가늠해보지도 않은 브라운이었지만 그는 노란 눈알을 딱 바로 뜨고 정확한 진단이라고 주장을 세웠다.

월슨선장은 회사가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침을 놓은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뒤짐을 지고 방안을 거닐었다. 그는 자색 용단우에 담배재가 떨어지는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싶었다. 그는 멋어섰다. 그리고 자기만이 알고있는 회사비밀을 알려주었다. 지금 《미시간》호가 목적하고 가는 항구도시에서 활동하고있는 회사정보원의 통보에 의하면 선창에 실려있는 상품들이 최대가격으로 거래되고있다. 며칠후이면 일본상품이 밀려들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매 시간이 수만금의 팔라로 계산된다. 회사에서는 항해시간을 당기면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은행 계좌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하고있다고.

《내 말을 리해하겠소?》 하고 월슨은 설명을 끝내며 브라운의 기색을 살피었다. 브라운의 얼굴에 푸른 독기가 옅게 떠돌기 시작했다.

《저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안다면 됐소. 환자를 어떻게 〈치료〉 하는가 하는것은 의사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므로 더 알려하지 않겠소. 다만 다시 강조하는것은 우리 배가 어떤 일이 있든지 오늘밤 12 시전으로 항구에 들어 가야 한다는것이요.》

(불여우같은놈.)

브라운은 미켈처리를 훌쩍 자기에게 떠넘기는 월슨의 숨씨에 혀를 빼물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브라운의사를 월슨선장이 만류하며 《조용히 한잔 합시다.》 하고 말했다. 전례에 없는 선장의 《선심》이었다. 브라운은 이 한잔의 술값이 녹지 않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그가 권한대로 상앞에 다시 앉았다.

월슨선장이 수정으로 된 축배잔에 포도주병을 기울이었다.

점심식사후 대기중에 있는 당직수부들에게 1인용 쏘트 한척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산호섬 하나 보이지 않는 이 난바다에 쏘트는 내려 뿔한데?》하고 퍼런 줄무늬샤쓰를 입은 수부가 쏘트에 씌워놓았던 썬우개를 벗기며 의문을 던졌다.

《글썬말이야. 난바다에서 쏘트놀이래... 피상한걸.》

《이걸 누가 타겠대냐?》

《브라운의사의 지시라네.》

《브라운의사가...?》

두 수부가 일손을 끝내었을 때 담가를 앞세운 브라운의사가 갑판에 나타났다. 위생복차림의 그의 몸에서는 소독수냄새가 지독하게 풍겼다. 담가우에는 누구인가 꼼짝않고 누워있는데 그는 얼굴까지 백포로 덮여있었다. 수부들은 자기네 배의 어느 수부가 영원한 안식처로 갔다는것을 알았다. 그들의 얼굴은 침울하여졌다. 그들은 브라운의사의 지시대로 배전밖으로 내리우게 준비된 쏘트에 담가를 실었다.

납덩이처럼 무겁게 드리운 시커먼 구름장들에서 쿵알같이 굵은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를 물고오는 새바람이 갑판을 휩스쳐 지나갔다. 잡 여미지 못한 백포의 옷부분이 펄럭거리다가 흠 젖혀졌다. 입술이 까맣게 타서 갈라진 미켈의 이그러진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감겨있었으나 속눈썹은 파르르 떨었다. 브라운의사가 해열제라고 먹인 수면제가 약했는지 찬비방울이 얼굴을 때려서인지 하여간 그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것이었다. 조용히 일을 처리해보려던 브라운은 당황했다. 그는 수부들을 둘러보며 쏘트를 배전밖으로 밀어내라고 독촉했다.

《아직 숨이 있는데...?》 하고 줄무늬샤쓰를 입은 수부가 눈에 도끼날을 세웠다. 브라운을 쏘아보는 그의 눈길은 사나웠다. 브라운은 마른침을 삼키었다.

《미켈은 악성전염이요. 이젠 저승에 간 사람이요.》

미켈이 전염병환자라는 말에 수부들은 흠칫하고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손으로 쏘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권양기에 스위치를 넣으려 하지 않았다.

등이 버쩍 단것은 브라운 의사였다. 미켈이 움

죽거리기 시작하자 그는 그만 더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빨리 권양기를 풀란말이야.》

머리우의 검은 구름장, 배전밖으로 나가게 매달린 쏘트, 그우에 실린 자기의 몸, 쏘트밑에서 아우성치는 거무스름한 대양의 물결, 브라운의사의 고함소리...

미켈은 자기의 신변에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육감으로 깨달았다. 그는 갑판에 내리려 쏘트에서 몸을 일으켜다. 그 순간 《윙-》소리와 함께 쏘트가 아래로 움직이었다.

브라운의사가 제손으로 권양기를 돌린것이다.

미켈은 쏘트를 넘어서려다가 쏘트가 배전밖으로 나가며 기우뚱거리는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잠간사이에 쏘트는 현측을 스치며 아래로 내려갔다.

미켈은 쏘트가 허공중에 매달리게 되자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한순간에 알아차렸다. 등골에 얼음덩이를 놓은때처럼 선통했다.

《수장!》

만경창과우에 떠다니는 바다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숙명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순간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에 새로운 대못이 박혀지던 자신이였다. 한평생 고역을 치르고 이 세상과 하직하며 받는 대가가 포대짜 하나가 아니면 한조각의 천필이었다. 포대나 천조각에 휘말리워 배전밖으로 던져지면 그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첨병》하는 소리를 남긴 다음 수천길 바다물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족쇄마냥 연추를 발목에 매단채... 그런데 바로 내가 그렇게 된단말인가. 미켈은 너무 놀라와 다시 몸을 일으켜 갑판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의사선생님, 권양기를 멈추어주. 당장 일어나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무쇠도 녹일듯한 그의 애원에 대답하는것은 권양기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와르릉-와르릉-》

미켈은 자기앞에 절벽처럼 막아선 차거운 배벽을 두주먹으로 두드리며 《...나를 버리지 말아주...》 하고 애원했다.

《첼썩-》하고 아래로 내려가던 쏘트가 곤두박질 하듯하며 바다우에 떨어졌다. 얼음물이 든 고무배개를 안고 미켈에게로 가는 앨렌을 발견한 브라운이 권양기의 바줄을 끊은것이다.

선복에서 뚫어번지는 파도가 쏘트를 치며 미켈

에게 물사태를 뒤집어씌웠다. 파도우에 가랑잎처럼 뜬 뽀트를 희롱하며 《미시간》호는 앞으로 나아갔다. 미켈은 갑판을 향해 두팔을 쳐들며 자기를 끌어올려달라고 절망어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엘렌이 배전밖으로 몸을 날리려는듯 달려오다가 브라운의사에게 덤미를 잡히워 끌려가는것이 퍼뜩 보이다가 사라졌다. 뽀트와 《미시간》호 사이는 차츰차츰 멀어져갔다. 《미켈씨, 미켈씨...》하고 절망에차 부르짖는 엘렌을 싣고 《미시간》호는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는 미켈은 망두석처럼 굳어져 뽀트우에 서있을뿐 더는 소리칠념도 안했다. 그의 눈귀로 원한어린 눈물이 솟아올랐다. 수평선너머로 사라지는 《미시간》호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던 미켈은 마스트마저 보이지 않게 되자 《나를 버리고 영영 가버렸구나.》 하고 웅얼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미시간》호앞에서 번개가 번쩍 일더니 퇴성이 터졌다.

《광, 짜르릉-》

하늘도 분노한것 같았다.

X X

미켈은 손목시계를 보며 자기 이야기를 잠깐 멈추었다.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토론회의장은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토론회장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미켈은 안내원이 특별히 진하게 만들어 가져온 홍차로 목을 적신 다음 그후의 자기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미켈은 난바다에서 이틀낮 하루밤을 떠다녔다. 그동안 멀기는 하지만 그를 볼수 있는 거리로 상선 두척과 유조선 한척이 지나갔다. 미켈은 그때 마다 적삼을 벗어 기를 쓰고 흔들었다. 하지만 어느 한배도 그의 고향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유조선에서는 여러 사람이 갑판에 나와 그를 보는듯싶었으나 항로는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미켈은 때늦게야 그 배길을 멈추어세울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에겐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미켈이 조난당한 산 유기체가 아니라 고가로 팔릴수 있는 미이라거나, 자본가들이 자기의 귀한 식객으로 여겨주는 원숭이만 같아도 배머리는 뽀트

으로 돌아설것이였다. 그다음부터 그는 주위바다마저 살피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였다.

물 한모금, 빵 한쪽을 입에 넣지 못한채 바다에 떠다닌 미켈의 생명은 초볼처럼 가물거리고있었다. 인간체내에서 가장 성실한 심장도 마지막 힘을 모아 겨우 뛰었다. 미켈은 몽롱한 의식속에서 단성으로 울리는 배고동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애착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뽀트배전에 몸을 실으며 머리를 들었다. 상선 한척이 그에게로 다가오고있었다. 미켈은 발치에 내던졌던 저고리를 다시 찾아 머리위에 쳐들었다. 이미 그것이 필요없다는것마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할 배에 오른(뽀트에 그냥 담겨) 미켈은 낮모를 갑판원들의 부축을 받아서야 갑판에 내려설수 있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머리가 핑 돌았다. 그는 뽀트전을 잡고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기가 《미시간》호와 다른 대륙의 사람들속에 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미시간》호와 같은 배에서라면 자기들이 끌어올린 조난자가 도대체 어떤 작자인가 하고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빙글거릴것이였으나 이들의 눈빛에서는 티끌만한 조롱이나 멸시를 찾아볼수 없었다. 사람들은 상냥하고 짹짹해보였다.

풀잎처럼 흔들리던 뽀트의 얇은 널쭉이 아니라 섬같은 배의 갑판이어서인지 안도의 숨이 나갔다.

(살았구나!) 활시위처럼 잔뜩 긴장되어있던 마음의 탕개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불시에 온몸이 나른해지며 눈앞이 흐릿해졌다. 미켈은 자기도 모르게 곁에 선 수부의 어깨에 머리를 떨구며 온몸을 그의 팔에 맡겨버렸다. 그러나 미켈은 이런 허탈상태에 그냥 있을수가 없었다. 누구의 손인지 자기의 어깨를 잡아쥐고 우악스럽게(그는 그 순간 그렇게 느꼈다.) 잡아일으키였기때문이었다. 미켈은 그 우악스러운 손이 집게처럼 자기의 뺨 어깨를 짹 거머쥐고 마구 흔드는바람에 다시 정신을 차리였다. 갑판에 늘어진 자기를 어찌나 세관게 잡아일으켜세우는지 눈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것 같았다. 미켈은 다급히 몸을 바로세우며 두눈을 휘둥그레 떴다. 빛이 꺼져가던 그의 눈이 비록 공포이긴 하지만 번뜩이기 시작했다. 온몸이 다시 긴장되어갔다.

미켈은 자기의 어깨를 잡고 사정없이 일으켜세

은 사람의 시선과 마주쳤다. 중키에 몸이 다부진 중년사나이가 자기를 지켜보다가 슬며시 어깨를 놓았다. 미켈은 방금전의 그의 행동과는 달리 눈표정이 조금도 사납지 않은데 놀래었다. 오히려 부드럽기까지 한것 같아 어리둥절하였다.

중년사나이는 미켈이 혼수상태에 빠질번한 고비를 넘기자 갑판원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즉시 담가가 그의 앞에 놓여졌다.

미켈은 담가에 들려가면서 자기와 마주섰던 중년사나이를 다시 돌아보았다. 흰 정복팔소매에 두른 누런 수장, 모자에 두른 금테 등으로 보아 그가 이 배의 큰 인물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미켈은 자기가 갑판에 발을 내려놓자마자 쓰러짐으로써 그의 비위를 몹시 거슬렀다는 불안을 안고 치료실로 갔다...

구급처치를 받고 침대에 누운 미켈의 마음은 착잡하였다.

(왜 그렇게 잡아흔들었을까?)

겨우 목숨이 붙어 배에 오른 조난자가 자기앞에 똑바로 서지 않는다고 하여 어깨를 잡아일으켜세우는걸 보니 이 배도 역시 《미시간》호와 별로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갑판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가졌던 기대가 돌각담처럼 무너지는것 같았다. 세상에 자기처럼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울것 같았다.

미켈은 멍하니 해빛밝은 창밖을 내다보며 길게 탄식했다.

입원실문이 소리없이 열리었다.

갑판에서 그를 사정없이 잡아일으키던 중년사나이의 구급처치를 해준 위생복차림의 사람이 입원실로 들어왔다.

미켈은 눈을 감아버렸다.

미켈은 이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왜 바다에 떠다니게 되었는가 하는것들을 물으리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숨결이 차츰 가빠지면서 가슴이 눈에 뜨이게 들먹여졌다.

미켈은 두사람이 자기곁으로 다가온것을 연한 소독수냄새와 기침소리로 알았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말도 안했다. 하지만 미켈은 그들이 자기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었다.

《기분이 좀 어떻소?》 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울렸다. 그런데 그 질문은 뜻밖에 영어였다.

미켈은 어인 영문인가 하여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떴다. 그가 눈을 뜨자 두사람의 얼굴이 한시에 그의 몸위로 수그러졌다. 《기분이 어떻습니

까?》하고 위생복차림의 사람이 다시 영어로 물었다. 《.....》 미켈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켰다.

바다에 떨어질 때 뼉트이물에 부딪쳐 터진 머리의 상처와 높은 열이 가져다주는 고통보다 마음의 불안이 그를 더 괴롭히고있는것이였다.

조난자가 두사람의 얼굴표정만 살필뿐 자기의 속심을 입밖에 내려고 하지 않자 중년사나이가 지금 환자의 곁에 배선장과 의사가 와있으니 할말이 있거나 청할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다.

의사가 미켈의 침대에 걸터앉아 그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을 가늠하던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혈압계를 가지고 돌아왔다. 혈압을 재본 그는 선장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듯싶었다. 미켈은 그들사이에 오가는 담화를 알아들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문득 의사가 미켈에게 피형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미켈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름, 국적, 재산관계, 기술 그리고 조난전말 등에 대하여 첫 질문이 있을것이고 자기는 대답하게 될것이다. 그러면 그 대답여하에 따라 자기의 운명이 결정될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는데 난데없이 피형이라니?...

미켈은 자그마한 철곽에서 의사가 꺼내는 낮은 의료기구를 보았다. 혈액은행의 뿌연 창구로 팔을 들이밀때마다 의사들이 내들군하던 채혈주사침이였다.

(응?) 미켈의 얼굴은 공포로 하여 이그러졌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던 《미시간》호의 화부 하나가 치료비를 다 갚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어 피한방울 없는 몸으로 찬땅에 묻히던 처참한 모습이 다시금 눈앞에 안겨들었다. 그는 얼굴을 싸쥐고 부르짖었다. 《아, 엘렌...》미켈은 마치 발작을 일으킨 정신병자처럼 온몸을 떨며 몸부림쳤다.

《당신들에겐 O 형이라야 더 좋겠지요. 제 피가 바로 O 형입니다. 그래서 혈액병원에 가면 남만저 팔군하였습시다. 피형이 무엇인가구? 예익...》

미켈은 지나친 흥분으로 입에 거품을 가득 물고 뱉어버렸다. 미켈이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팔에는 주사바늘이 꽂혀있었다. 그것은 가느다란 고무관과 이어지고 고무관의 반대쪽은 높이 매달린 투명한 병밀에 연결되어있었다. 이런식의 채혈방법을 겪어본 일이 없는 그는 병에 절반이나

차있는 붉은 액체가 바로 자기의 몸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사바늘을 와락 뽑아던졌다. 하얀 바늘끝에서는 붉은 피가 방울뿔을 떨어졌다. 잠시 방을 나갔던 의사가 들어오다가 그것을 보고 황급히 고무호수를 꺾어쥐었다.

《수혈을 받으니 부작용이 입니까?》

의사는 근심스러운 안색을 지으며 물었다.

(수혈?) 미켈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공중에 매달려있는 병을 다시 쳐다보았다. 유리병의 윗부분이 불그레한것으로 보아 피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지금까지 줄어들고있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러고보면 혈액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다시말하여 자기 몸안으로 흘러든것이였다.

뺨 한쪽을 위해서도 팔아야 했고 고향에 보낼 송금액을 불구기 위해서도 뽑아준 피였다. 각박한 세상은 그에게서 무엇하나라도 더 앗아내려고는 했지만 휴지 한장 거저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낫도, 성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난자에 불과한 자기에게 뜨거운 피를 주고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때문에, 내가 원이나 제네바 은행에 비밀구좌라도 가지고있는줄로 여기는것이 아닌가. 미켈은 끝없는 의문수에 새로운 의문표를 세우기도 하고 불안을 희망으로 지우기도 하면서 번민하였다.

이 번민이 자랄수록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있는지 무척 알고싶었다. 알고싶은것은 그뿐이 아니였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나라 배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있으며 자기를 어디다 내려놓으려고 걱정하고있는지... 하지만 그는 물을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당한 보수를 지불해야 하겠으나 딸라 한장 없는 몸이 바로 지금의 자기였기때문이었다.

무전실에 올라갔던 선장이 다시 입원실에 나타난것은 수혈이 끝났을 때였다. 그는 의사에게 수혈경과를 물었다.

수혈기구를 거두고있던 의사가 만족스럽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선장은 미켈의 침대앞에 의자를 가져다놓고 앉았다. 그의 랑손에는 사과통줄임과 숟가락이 들려있었다. 선장은 통줄임을 내들어보이며 파일물부터 몇모금씩 마셔보자고 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사과 한쪽과 통줄임통안의 단물을 떠냈다.

숟가락이 입술에 닿았으나 미켈은 목이 메여와 그것을 받아마실수 없었다.

《자, 입을 벌리오 아주 시원하오. 억지로라도 먹어야 기력이 회복되오.》 하고 선장이 다시 권했다. 그 순간 미켈의 눈귀에 커다란 이슬이 맺혔다. 그는 선장이 떠넣어주는 사과물을 입에 문채 고개를 돌리였다. 베개에 얼굴을 묻은 그의 어깨가 들먹이였다. 소년시절의 어느때인가 열병에 걸려 태칠하는 자기결에 몇밤을 지켜앉아 말라터지는 입술을 적서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자기를 낳은 어머니였다. 그런데 이국의 배우에서 그 어머니의 뜨거운 손길을 받고있는것이였다.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사이에 사랑과 애무에 주릴대로 주린 미켈이였다.

미켈은 자기의 이마에 찬물 적신 수건을 놓아주는 선장의 손을 잡으며 토막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장님, 선장님은 제가... 어떤놈인지 알기나 하고 이처럼 돌봐주십니까?... 저는 몸값을 낼만한 돈도, 후에 치료비를 갚아줄 바튼 친척도 없는 최하층수부입니다...》

미켈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대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동정을 지금처럼 받지는 못했을것입니다.》 하고 선장이 뜻깊게 대답했다.

《?...》

《격정 마시오. 우리는 이미 당신이 어떤 처지의 사람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를 안단말입니까?》

미켈이 용수철에 튕기듯 침대에서 일어났다.

선장은 뜻있는 미소를 지으며 옷주머니에서 차곡차곡 접힌 종이장 하나를 꺼내어 읽었다.

얼떠름하여 선장이 권 종이장을 보던 미켈의 입에서는 비명인지, 탄성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엘렌이 대양우에 날린 무전문이 찍힌 전보지였던것이다.

미켈은 이때까지 침묵으로 숨겨온 자기의 신분과 처지에 대하여 이 배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다만 그것이 까밝혀지는것을 은근히 불안해하는 본인의 속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것만을 물랐을뿐이었다.

《엘렌!》 하고 미켈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전보문을 가슴에 꼭 대었다.

선장은 그러한 그를 이윽히 지켜보다가 미켈의 처음 질문에 다시 대답했다.

《미켈씨, 당신은 조금전에 우리가 왜 당신을 구원하고 성심성의껏 보살펴주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셨지요? 만약 엘렌의 공개무전이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값진 물건을 위해 날았다면 우리의 바쁜 배걸음을 조금도 지체시키지 못했을것입니다. 엘렌이 구원을 청한것이 바로 당신, 다시 말하여 사람이였기때문에 우리의 배머리가 당신의 뱃트에도 향하여갔던것ियो.》

미켈은 너무나 놀라운 선장의 대답에 넋을 잃었다. 해면처럼 한순간에 선장의 설명을 다 받아 들일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미켈이었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똑똑히 알아들었다.

《황금이 아니라 사람, 사람이기때문에...!》

그는 선장과 의사가 서로 눈짓하며 자리를 뜨는것조차 알지 못하고 선장의 대답을 마음속에 새기고있었다.

얼마후 선장이 다시 미켈의 병실에 나타났다. 그의 두눈이 유난히 번쩍이고 가슴은 눈에 뜨이게 들먹이고있었다. 미켈은 자기 흥분에 포로되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선장은 이마에 올려놓았던 물수건을 벗기며 재빨리 말했다.

《당신은 먼 항해길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선장은 해도가 걸려있는 맞은편 벽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해양도우에서 항로상에 있는 XX 항을 짚어보이며 지금 가고있는 항구보다 가까운 거리상에 있는 도중항에 먼저 들리게 된다는것과(돌아올 때 들리기로 된곳이었다.) 그곳 부두에는 이미 구급차가 나와있다고 했다. 그리고 미켈은 그곳에 있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일꾼들의 보살핌속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게 되리라 했다.

《나는 방금 조국으로부터 당신에 대한 무선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기뻐했다.

항로의 매 한마일한마일, 항해시간의 매분까지가 거액의 돈으로 계산되는 무역선의 도중지체, 수혈, 항해계획의 변경, 한나라 무역대표부의 관심... 자기 한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배에서의 생활체험은 그것을 부정할수도 없게 했다.

미켈은 종잡을수 없었다.

《선장님, 저를 구원해주고 이처럼 돌보아주시는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미켈은 가슴을 조이며 물었다.

선장은 금치어린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원들이요!》

《아시아 동방에 있는 천리마의 나라...!》

《그렇소,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조선사람이요!》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이지만 세계 여러 항구에 들릴 때마다 꿈같은 이야기로 너무나 많이 들어온 이름이었다. 《미시간》호에서 던져진 자기가 바로 조선무역선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지 몰랐다. 이때까지 불안과 위구, 초조로 떨고있던 두눈이 보석처럼 번쩍이기 시작했다. 고열과 두통이 주는 아픔도 가뭇없이 사그라지는듯싶었다.

(사람!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겨주는 조선!)

미켈은 만시름을 잊고 베개에 머리를 뉘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

다음날 해돋이 아침에 미켈을 구원한 《학무봉》호는 X X 항이 바라보이는 명해에 들어섰다.

미켈은 담가에 들리워 갑판으로 나갔다.

넓은 안개가 떠처럼 물리운 수평선우에 이글거리는 둥근해가 불끈 솟아오르고 바다를 무겁게 짓누르고있던 어둠은 눈부신 해발에 쫓기여 황급히 사라지고있었다. 《학무봉》호의 배길우에서 한무리의 갈매기들이 날아올라 나래를 폈다.

항구에서 나온 자그마한 고속정 한척이 《학무봉》호를 향하여 마주 달려왔다. 그 배머리에 올린 람홍색기발이 아침노을을 안고 기운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미켈은 맑고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나뭇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를 우러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라!》

X

X

《여러분, 이렇게 저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바로 사람중심의 사상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으며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에서만 억세게 살아가려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오늘 이 길에서 처음으로 빛나고있으며 영광을 받아안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라고 자부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는 엘렌도 또 나의 동료수부들도 함께 서있습니다.》

미켈은 자기 토론을 마치면서 정중히 제의했다.

《우리모두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불멸의 송가를 합창합시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광주의 새벽

남대현

도시는 살벌했다.

학교교문이며 거리의 요소마다에는 바리케트가 구축되고 건물들 옥상에도 중기관총이 도사렸다. 땅크며 장갑차가 때없이 유리창을 즈름즈름 울리는가 하면 야무진 총성이 물방으로 터지기도 했다. 드디어 파쑈악당들이 오늘부터 봉기자들에 대한 무장공세에 들어선것이였다.

도시는 하루사이에 온통 뒤죽박죽이였다.

밤이 왔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양림동, 자그마한 수경천을 사이에 둔 언덕에 자리잡고있어 재둥이라고 불리우는 60 여호의 마을에도 어둠이 깃들었다. 어느때같으면 까까머리소년들이 한창 석간을 날려대거나 두부장사의 풍경소리같은 손종이 울릴때지만 지금은 삽살개 한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정적은 오히려 태고연한 밀림에 호곡을 불러오는 폭풍직전인양 그 무엇이 밀굽이에서 세차게 꿈틀거리고있다. 실상 이들은 어느 집에서나 지금은 사무친 원한과 울분으로 하여 잠못 이루고있었다. 파쑈무리들의 구두발에 채워 실신한 아들을 지켜보며 치절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 원수들의 만행으로 하여 일시 좌절된 폭동을 두고 비통한 심정을 금치못해하는 사람, 그런가하면 백배의 복수를 가다듬고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비장한 결심을 새기는 사람도 있었다.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였다.

그중에는 항차 이 일이 어떻게 되려누하는 불안에 휩싸여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바로 마을의 첫어구, 커다란 미루나무가 솟아있고 룡각무늬 회벽담벽에 빙 둘러 싸여있는 아담한 양옥채의 주인 유원일씨였다.

그는 아까부터 그런듯이 창가에 서있기만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락향한지 스무해, 그사이 운이 튀어서 요행 시내에 적지 않은 운송점까지 차려놓은 그였다. 이 일판에서는 잔등이며 불따귀에 동그라미를 하고 그안에 한일자를 가로 그은 그의 《원일상회》화물차를 아무때나 볼수 있었다. 초라하게나마 이런 번성에는 부모들이 남겨놓은

밑천도 있었지만 보다는 등지고 간빠먹는 어지러운 세파속에서도 천성으로 타고난듯한 그의 순박성이 오히려 신용본위라는 거래법칙에 어느정도 분철을 한것인지도 몰랐다. 그의 말대로 하면 운송업이란 《현대 지계군》이고 《달리는 날품팔이》인것만큼 결코 악덕상인처럼 야바위쳐서 걷어들이지 않는 《근로상업》이라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어쨌든 누구에게 악하게 구는 일이 없어 름근에서는 이름대신 《호원만》으로 불리우는 그였지만 요즘은 통 이마살이 퍼지지 않았다. 한것은 지금 해운대에 가있는 안해한테서는 당장 현아를 데리고 그곳으로 오라는 독촉의 편발이었으나 것처럼 안해가 걱정하는 현아는 되려 봉기의 제 1 선에서 그것도 역원으로 활약하고있기때문이었다.

《참! 당신두 아직 철없는 계집애소행에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정말 답답해.》

안해는 방금전에도 전화로 토라진 소리를 했다.

사실 돈깨나 있다는 사람들은 벌써 봉기의 심상찮은 조짐을 간파하고는 다른곳으로 내쫓지도 오렸다. 그들은 사람들의 숙주머니도 재빨리 들여다볼줄 알았지만 시국의 대세도 놀랄만치 예민한 축수로 감각하군했다.

그들이 떠나면서 하는 말은 모두가 하나같았다.

《행세(형세)가 가당찮다카이, 기양 있시문 밀천 줄딱 녹는팡이라.》

《자동차라꼬 안심마세. 이번 폭동은 웬통 자동차로 바리케트를 쌓더랑께. 뛰지 안하문 망한당께로.》

그러나 원일은 뜰수 없었다. 이런 때 여기를 뜬다는것이 어쩐지 량심에 못을 박는 모진 일처럼만 여겨지는것이였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각오한 이 사람들을 피한다는것이야말로 불이 붙는 아파트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나는 그런 비렬한 행동이 아니고 뭐랴. 그럴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또 현아를, 아무리 의롭고 자랑스러운 행동

이라 하여도 불길이 널름거리는, 당장 와그르 무너져버릴수도 있는 그 사지에 마구 뛰어드는 현아를 그냥 수수방관할수만은 없었다. 그런 자기의 심정도 모르고 현아는 안타깝게도 제기분에만 사로잡혀있었다.

《아버지, 자동차 두대만 쓰게 해줘요.》

어제는 집에 뛰어들기 바쁘게 이런 청을 했었다.

《자동차 왜?》

《바리케트를 까부셔야지요? 다른 학교에 대표도 파견하고.》

《헛 참!》

그렇지 않아도 어제아침 바풀때기 하나(소위)를 단 새파란 녀석이 본소에 나타나 허바닥을 납땜이라도 했는지 짹짹한 소리로 울려퍼졌던것이다.

《오늘부터 일체 자동차를 단속한닷. 번호에 의해 차주를 엄단하겠단말이닷.》

그게 무서워서라기보다 자동차까지 쓰자는걸 보니 그 어떤 커다란 움직임이 뒤에 있고 그 앞에서 철없이 현아가 날뛰는것 같아 사뭇 불안스럽기만 했다.

《애, 그걸 누가 시키던?》

《그저 우리가 생각한거지요. 옛날 아버지처럼.》

아직 생활을 수학교과서의 공식처럼 생각하는 딸이었다. 하긴 사진첩을 펼칠 때마다 4.19 시위때의 자기의 모습, 커다란 중탕크의 포신옆에서 프랑카드를 휘두르는 자기를 마치 하늘이 내린 영웅 호걸이라도 되는듯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딸인데야!

《자동차 안돼.》

《왜 안돼요?》

《글쎄 안돼!》

초볼처럼 따뜻하게 빛나던 현아의 두눈이 일시에 등그래졌었다.

《비겁해요 아버지!》

다시 애걸하는 일도 없이 뺨 돌아서버리는 현아가 이럴 땐 고등학생이라기보다 마치 유치원생 같았다.

그래 오늘은 좀 안정을 시켜볼까 했었는데 돌아오자바람으로 침대에 쓰러져 흐느껴대기만 했다. 어떻게든 서럽게 우는지 달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소란스런 세상이어!)

통금시간이 가까와오는지 나발차가 또 거리를 휩쓸며 부산을 피웠다. 오늘은 무등산이 있는 뒤쪽에서도 뭐라고 왕왕 떠들어댄다. 낮에 보니 조선대학교의 하얀 7 층청사 꼭대기에 군모들이 옥실거리더니 거기서 아가리를 터쳐놓은 모양이었다.

그는 옆에 있는 포의자에 몸을 잠그며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4.19 때의 일이 떠올랐다. 대학가에서 동대문으로 동대문에서 세종로를 거쳐 《중앙청》으로 옥박해들어가던 질풍노도의 시위물결, 우렁찬 웨침, 만세의 환호, 그 파죽지세와 같던 기세야말로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경찰들이 버리고 달아난 백차에 마이크를 걸고 《학우여 나가자 자유를 위해》 하고 노래를 부르면 저쪽에서 《앞으로 앞으로》 하고 화답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결국은?

원일은 그때 자기들이 것처럼 열렬히 구가하던 아롱진 꿈이 일조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흩어진 때를, 그것이 흩어지기 바쁘게 더 모진 광풍의 세례가 휘몰아쳐온것을 회상하자 저절로 탄식이 쏟아졌다. 청년들이 목숨바쳐 헤쳐놓은 그길로 더 악독한 새 독재자가 군림했을뿐이었던것이다.

(빌어먹을! 마디를 쳐갈기니 웅이라더니.)

그때부터 그는 일생 속히우며 살아야 하는것을 자기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지러운 현실을 직시하는것조차 귀찮아졌다. 그저 지긋지긋 하기만한 현실을 훌 떠나서 어느 고요한 섬에서 혼자 살았으면싶었다. 대학시절에는 강의시간에도 문제가 너무도 쉽게 본질로 육박할때면 오히려 불만을 느꼈고 인류가 아직 해명하지 못한 그런 미지수라고 강사가 말하면 기를 쓰고 달라붙던 그였으나 이제와선 그랬던 자신이 더없이 가소롭게만 여겨졌다. 이놈의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는것이야말로 시궁창에서 보석을 바라누게 아닐텐가!

그에게는 곧 하나의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그것은 세상만사를 건성으로 대하는것이었는데 그 본의아닌 묘리를 터득하고보니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다. 고뇌에 시달리거나 울분에 몸부림치기는 커녕 모든 일이 그저 다 순평하고 무난하기만 했다. 그것이야말로 생활의 훌륭한 만능공식이였다.

(살아가는 구멍수가 있기는 다 있는가봐.)

결국 이러한 사이에 그는 점점 본래의 자기를

달팽이처럼 갑속에 숨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어 호감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갔다. 그러나 지금은 주위를 둘러싼 세찬 불길이 자기를 그냥 갑속에 뒤두지 않았다. 하나 정작 그 불길에 휘말려들자니 미친듯이 막아서는 광풍이 무서웠고 그렇다고 그냥 배겨있자니 그건 또 량심이 허락치 않았다. 더우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그 량심의 벽을 무시로 두들겨대는 것이었다. 그들은 곧 현아였고 봉기자들이었으며 민주화를 그처럼 피타게 웨치다가 쓰러진 4월의 전우들이었고 아직껏 옥고에 시달리는 잊지 못할 친구들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뿜었다.

도무지 진정할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문득 아무 죄도 없으면서도 쫓기고있는 듯한 자신을 발견하자 공연히 화가 나서 담배를 입에 물고는 성냥을 득 그었다. 그 순간 확-하고 불이 달리는 그 소리가 너무도 큰데 그는 또 깜짝 놀랐다.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스산하게만 들린다. 그런가 하면 당장 무엇이 터지고 와지곤 부러질듯싶은 숨막히는 정적이 또다시 온몸을 엄습하기 시작한다.

이때였다.

좌- 하는 미루나무잎이 설레이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가느다란 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를 찾는듯한 가냘픈 목소리였다.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느라니 분명 〈인-수-야-〉 하고 웨치는듯싶었다.

(인수?)

갑자기 원일은 불쑥 몸을 솟구쳤다.

(인수라니? 똥보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럼 저 녀인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얼른 현아가 있는 옷방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현아는 아무 갑촉도 못느꼈는지 여전히 흐느끼고만 있었다.

다시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었으나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창문가로 다가가 신경을 도사려보았지만 역시 바람소리뿐이다. 착각인가? 지나친 과민때문인가? 그러고보니 정말 그런 소리가 들리는것 같기도 했다.

그는 천천히 방안을 거닐었다.

(똥보라...)

돌개바람에 휘날린 가랑잎이 고요하던 호수에

파문을 새겨놓듯이 느닷없이 떠오른 똥보에 대한 생각은 깊은 망각의 심연을 헤치고 사정없이 추억의 물결을 거슬러올라갔다. 그 추억의 동그라미는 먼 대학시절, 돈암동 막바지에서 같이 하숙하던 막역친구 진호에게 가닿았다.

호방한 성격에 구척같은 키, 누구나 마주보면 위압감부터 느끼게 되는 그런 친구, 그가 바로 주진호였다. 원래 살갗이 검은데다가 일년내내 감장학생복 하나로 살아가는 그여서 《까마귀》라는 별명까지 돌려메고 다니던 친구였다. 그러나 이 괴상한 별칭에는 부패한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파헤치는 그의 강개한 결패에 대한 호감이 숨어있기도 했다. 학생회 회장인 그가 시위대의 선두에서 날뛸 때면 그야말로 성난 갈범을 련상시키곤했다. 그의 한마디에 수만 학도가 파도처럼 설레이곤했다. 교정에서는 그 누구도, 지어는 총장까지도 함부로 범접케 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위용을 갖추고있었으나 하숙생활에 들어선 영 망태기였다. 새벽마다 밥을 짓는것도 자기였고 찬거리를 구해야 하는것도 자기였다. 고향의 늙은 아버지한테서는 드러내놓고 《1 급똥쟁이》라는 딱지까지 얻어붙인 그여서 여유편전한잎 받아쓰지 못하는 터였지만 그런 궁색한 빛은 전혀 나타내본적이 없었다. 그는 뭐이 그리 바쁜지 늘 통금사이렌에 쫓겨 들어오는가 하면 어떨 땐 새벽녘에야 이불안에 기여드는데 아침이면 대들보같은 장판지를 빨래판으로 몇대 갈겨서야 겨우 눈을 비비곤했다.

차려놓은 밥상에 마주앉기가 민망스러우면 다른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으련만 밤낮 똑같은 소리다.

《자네가 처녀라면 내가 훌쩍 반하겠는데 고만...》

《아이구 맙시사. 난 자네 〈시집살이〉에 이젠 지칠대로 지쳤네. 억지로라도 후임을 앉히는수밖에, 도대체 어떤 〈오토바이〉가 견뎌낼는지...》

모르긴 해도 원일은 그의 안해될 사람은 영남 없이 팔다리가 튼튼하고 웬만한 편잔쫓에도 눈섭오리 하나 까딱안할 그런 녀장부래야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웬걸 매주에 꼭꼭 한번씩 라면(해면국수)이 아니면 식찬을 사들고 찾아오곤하는 너대생은 더없이 갈람하고 이쁘게 생긴 처녀였다.

얼마나 단정하고 아릿다운지 얼핏 스쳐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수 없는 그런 처녀였다.

《아니 자네 춘향(애인)인가?》

《그럼 좋거나 하게. 아 우리 대학에 런대호소문을 가지고 와서 랑독하던 그 권영옥이도 몰라?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찔러봤다가 영 혼이 났네.》

《어째서?》

《자긴 꼭 혼자 살겠다는거야. 그래 나도 혼자 살텐데 둘다 혼자 살바엔 집세, 물세, 전기세를 반부담씩 하면서 한집에 있는게 어떠냐구 말이지!》

《하하!》

《그랬더니 대뜸 새파래서 돌아보며 〈모욕하시는 건가요?〉 하잖겠어. 할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대낮에 한지에서 모욕은 무슨 모욕〉 하고는 얼른 내빼고말았지!》

《하긴 어떻게 그런 이쁜 처녀가 자네한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그해 결혼초청장을 받고 그의 고향에 갔던 원일은 그만 깜짝 놀라고말았다. 아버지의 완고한 고집으로 할수없이 구식혼례를 하게 됐다는 진호의 얘기를 들으면서 신부방으로 들어섰는데 칠보단장을 하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새각시가 다름아닌 그 영옥이었던것이다.

(엄금하기란...)

시골에서 성례를 올린탓으로 동창들이 많이 모이진 못했지만 그대신 축전들은 굉장히 날아들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례의 《행복의 꽃을 피우라》는 문구보다 《영원한 투쟁의 불씨가 되소서》하는것이 더 많았던것이다.

그날 진호는 이런 말을 했었다.

《앞으로 10 년, 아니 20 년후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보세. 음달에 핀 사꾸라가 되는가 아니면 해빛을 부르는 우뢰로 지동치는가!》

《그래 자넨?》

《아니 그건 기원을 담은 신부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세.》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맞정을 대자 영옥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다.

《우습네요. 세월이 흐른다구 까마귀 백로될순 없지 않아요.》

일시에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그래 난 언제나 까마귀여, 구린내나는 그 한

복판에만 서있을테네.》

그러면서 진호는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말아.》라는 시조 한가락을 멋들어지게 읊었다.

그런 진호가 결혼한지 3 년만에 그만 놈들에게련행되었던것이다. 신문에서 X X 사건 주모자라는 요란한 기사와 함께 그의 사진을 봤을 때 원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부터 무척 알아 보려고 했으나 종내 소식을 알길없던 영옥이가 글썽 몇해전에 불쑥 자기 집에 나타날줄이야!

그때 그는 여라문살 되보이는 사내아이의 손목을 잡고있었다.

《아들이예요.》

굽적 허리를 굽히는 사내아이의 얼굴은 신통히도 진호모색 그대로였다. 복역중에 있는 진호의 생각이 치밀어올라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영옥이도 그사이 상하기는 했으나 아직 단아한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있었다. 그저 그사이 돌아다니며 이일저일을 했달뿐 딱히 밝히기를 저어하던 그는 방안에 들어서서도 줄곧 망설이기만 했다. 뭔가 몹시 난처한 사연이 있는듯싶었다. 왜 그렇지 않으랴!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남편도 없이 아들을 키우려니 힘인들 얼마나 들것이며 마음고생인들 오죽 할텐가. 원일은 그의 부탁이 아무리 어려운것이여도 힘자라는것 도외주고만싶었다.

《차마 말씀드리긴 죄송스러워서... 대학때부터도 원일씨 신세를 너무도 많이 졌고요. 그렇지만 또 할수 없군요. 앨 몇달만 집에 좀 맡길가 해서... 자리를 잡으면 곧 데리러 올테예요.》

원일은 기꺼이 응했다. 옥중에서 고생하는 진호를 위해서라면 그까짓게 무슨 대수랴! 바로 이럴때 도리를 지키는게 참다운 벗이렸다. 그렇지만 대학시절 세방살이를 같이하던 자기들 사이가 오늘은 너무도 상반되는 현격한 생활상 차이로 나타난데 대한 새삼스런 느낌은 피할수 없었고 그것으로 하여 어쩐지 영옥이를 대하기가 송구스럽기도 했다. 자기만 아니라 영옥이 역시 지금 그런 감정으로 자기를 대하며 그런 감정에 속박되어 웅색한 립장에 있다는것을 감촉하고 원일은 부러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여튼 날 못살게구는 친구라니. 대학땐 〈시집살일〉 시키더니 이제와선 또 〈보모살이〉 라,

어쨌든 품삯을 단단히 받아낼테니 그리 알아두라고 전하슈. 굶나졌나 영옥썬 결국 처녀때 각오를 리행하시는셈이군요. 그 혼자 살겠다니던... 하하.》

이렇게 되어 이날부터 원일네 집에는 한식구가 더 늘어났던것이다. 원일부처는 더없이 살뜰한 정으로 새 식구를 대했으나 그보다 두살 아래인 현아는 자주 깔끔한 눈길로 쳐다보곤했다.

《네 이름이 뭐니?》

첫날 현아는 이렇게 물었었다.,

《인수야! 그런데 본랜 똥보고.》

《똥보? 호호. 시장도 아닌데 똥보야?》

《아버지가 붙인 이름이래. 내가 나서 똥똥하니까 그렇게 불렀다나. 후에 이름을 달아주겠다구선 가막소에 갔지뭐.》

《가막소?》

《가막소도 모르니? 형무소말이다.》

《그럼 인순?》

《인수란건 할아버지가 단건데 성이 주가니까 주인수야. 근데 그건 주인이 누구냐는 소리라나? 한문으로말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면 어머니가 우셔.》

《그래? 그럼 난 똥보라고 부를게 좋아?》

두 어린것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린것은 원일의 부부였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수의 얼굴에 그들이 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도의감에 더욱 힘써었다. 그래 월사금납부기일이 되면 어린게 민망해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두었다가 꼭꼭 하루전에는 주었고 용돈을 주는 경우에도 똑같이 나누어주곤했다.

한데 약속한 몇달이 지나도 영옥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해가 다 가고 이태가 저물 때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었다.

《분명 털어놓지 못한 그런 사연이 있는거예요. 생각해보श्य. 아무럼 그런 미인이 어떻게...》

안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원일은 대뜸 면박을 주었다.

《천만에 말씀이요. 당신같으면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런 녀성이 아니란데.》

어디선가 분명 남다른 일을 하고있을 영옥이겠지만 돈때문에 고생하리라는 생각이 들자 애초에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못한것이 더없이 후회되었다. 그때까진 아직 밑천이 발기도 했지만 마음이

라도 표시할수 있지 않았던가.

원일은 뒤늦게나마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신문사로 찾아가 영옥이 앞으로 광고를 냈다. X X 은행에 위약금 얼마를 지불해놓았으니 찾아가라고, 그의 인격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 위약금이라는것을 찍어밝혔던것이다. 그러나 그 선행도 몇달째 은행에 보금비만 무는것으로 끝나고말았다. 이쯤되자 은연중 그도 안해가 걱정하던 그 《털어 놓게 못한 사연》에 은근한 위구를 품지 않을수 없었다.

그사이 인수는 중학생이 되었다. 이전처럼 현아와 허물없이 지내긴 벌써 서로가 부끄럼을 먼저 생각하는 시기였다. 그런데 하루는 눈이 땡그래서 들어온 현아가 인수의 책상빼람 밑창에 돈이 수두룩이 있다면서 요즘 밤늦게 들어오는게 아무래도 수상쩍다고 소곤거렸다.

대뜸 옷방으로 올라간 원일은 그의 책상빼람에 있는 돈을 몽땅 꺼내놓았다.

《이 돈이 어디서 왔니?》

인수는 당황한 눈길을 어디로 돌렸으면 좋을지 몰라 갈팡질팡했다.

《어디서 났어?》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있던 인수는 이윽고 현관문쪽으로 다가가더니 신발장뒤에서 구두닦기통을 꺼내놓는것이였다.

《아-니?》

원일은 입이 딱 벌어졌다. 《누가 너보고 구두를 닦으라던?》

구두통을 보자 원일은 더 화가 치밀었다. 어떤지 목이 짹 메여오르기도 했다.

《누가 구두를 닦으라던가?》

눈물을 떨구던 인수가 띠띠띠 띠띠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디 밥이 목구멍로 넘어가야지요. 아저씨한테 너무 미안해서...》 《.....》

원일은 아무말도 못하고 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옆에 있던 현아도 얼굴을 숙이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달아났다.

영옥이가 나타난것은 바로 그해 겨울이였다. 그사이 너무도 변모된 영옥의 모습에 원일은 그만 어안이 빙빙했다. 본래 감스레하던 얼굴은 온통 백지장같이 하얗고 탄력이 넘치던 몸매는 한둘레 나 더 작아진것 같았다. 오직 변함이 없는것은 두눈뿐이였다. 그 어글어글한 눈동자만은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억센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용서하세요 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원일은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쪽다리를 약간씩 절고있다는것을, 그것이 눈에 뜨일가봐 안간힘을 쓰며 감추고있다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그사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디에 가있었는가를 구태여 물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그를 일시나마 꼭해했던 자신이 더없이 죄스럽고 수치스럽기만 했다. 그러면서 오해했던 그만큼 그를 위해주고싶은 충정이 불길처럼 솟구쳐 올랐다.

(과연 무서운 녀성이여!)

새로 꾸린 용접실이며 그사이 들어온 새 가구들을 바라보고있는 영옥의 눈길에서 원일은 지금 그가 주단이며 전축이며 수은등이며 하는 외계들보다는 자기의 정신적내면을 응시하고있다는것을 곧 느낄수 있었다.

그것은 어쩐지 이제까지 없었던 그와의 그 어떤 커다란 간격과 서글픔을 자아내게 했다. 확실히 그것은 이전에 느끼던 단순한 생활상차이에서 오는 그런 간격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말하자면 서로 융합될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있는 듯한 피로운 느낌이었다. 하지만 원일은 그런 감정을 애써 일축해버리면서 이전처럼 무릅없이 대하려고 했다.

《진호군도 이제 출옥할 때가 된가본데.》

《네, 멀지 않아 만기랍니다.》

영옥의 얼굴에는 순간 옛날 대학시절 단정한 교복차림으로 하숙집에 찾아와 던지군하던 그 미소가 방긋하고 피어올랐다.

《참 기막힌 세월이지! 부자지간 15년만에 상봉이라니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원...》

《다 우리 책임이지요. 이런 세상을 한탄만 하고 뒤집어 엎지는 못하는.》

뒤집어엎어야 또 그 꼴이라고 말하고싶었던 원일이었으나 잠자코만 있었다. 그러나 그런 눈치를 알아채기라도 한듯 영옥의 눈길은 사뭇 직심스러웠다.

《가치나 웅이가 돌기마련이란거지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뿌리를 뽑아던지기만 하면 그만이지않아요. 그렇지요?》

그의 말에서, 보다는 타는듯한 그의 눈빛에서 원일은 이제까지 느끼던 소외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소곳이 앉아있는 그가 갑자기 어떤 슬기로운 거인의 영상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생각갈아서는 일자리도 잡고 옥고를 치른 몸이 얼마만큼 추선다음에 인수를 데려가라고 권하고싶은 원일이었으나 이 순간에 와서는 어찌선지 그런 호의조차 입에 담기 어려웠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약소하지만...》

원일은 지폐를 만 두툼한 종이몽치를 그앞에 내밀었다. 어쩐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니 이러지 마세요. 여태 폐를 끼친것만 해도...》

《진호군을 생각해서라도...》

《고마와요 정말, 그러나 그가 이걸 알면 오히려 피로와하실거예요. 그인 서로가 서로를 인간의 존엄으로만 대하는 그런 세상에 미친 사람이니깐요. 그리고 더이상 원일씨의 신세를 질수도 없잖아요. 저에게도 아직 약간의 량심은 남아있다는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주셔요.》

그의 눈은 사려깊게 빛나고있었다.

이날 자기들은 서로 서먹서먹한채 헤어졌지만 현아와 인수의 작별에는 눈물겨운 그 무엇이 있었다.

《잘 가.》

《잘 있어.》

서로가 땅만 보며 하는 말이였다.

《또 와.》

《또 오께.》

그리고는 눈내리는 밤길에 서서 오래도록 서로 지켜보고있었다.

눈내리는 그날, 바로 그렇게 헤어졌던 영옥이와 인수였다. 그러니 그것도 벌써 이태전 일이다. 그 사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 몸들이나 무사한지.

현아의 눈치로 봐서는 확실히 자기네끼리는 가끔 만나는것 같았다. 자기만의 비밀을 마음속깊이 품고있을 나이지만 또 그 비밀을 숨기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기도 했다.

현아의 입에서는 가끔씩 인수에 대한 말이 오르곤하는데 그것은 더없이 교묘하면서도 소심스

레 나타나군하는것이였다. 그런 현아를 볼때마다
원일이라도 은근히 즐거웠다. 하긴 그 인수도 인
젠 고등학교에 다닐 나일테니까.

이런 생각에 젖어있던 원일은 갑자기 거리쪽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흠칫하고 놀랐다.

여러 사람들의 발자욱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면 무슨 무거운 물체가 맞부딪치는 소리도 났다.

얼른 옷방창문으로 다가선 그는 창문보를 열어젖히고 수경천다리목, 오동나무가 휘늘어진 유원지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풍치는 좋지만 개병대(해병대)라 불리우는 망나니들의 술놀이터와 싸움터여서 누구나 접근하기조차 꺼려하는 바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고있지 않는가! 이런곳을 골라 택한것을 보면 틀림없이 시위대 역원들같았다. 아니 놈들이 목에 현상금을 몇십만원씩 걸어놓은 용맹한 봉기지도자들인지도 몰랐다. 원일은 저도모르게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그들은 얼마 안있어 다시 바람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관청이 있는 충장으로 가는가 하면 임동으로 또 무등산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여럿되는 사람들속에서 그중 한사람만은 곧추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자세히 보느라니 그는 뜻밖에도 굵술굽술 보기 좋게 흘러내린 머리칼에 또렷한 곡선이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있는 날씬한 몸매의 녀인이였다. 놈들의 삼엄한 경계를 경원하는지 자주 이쪽저쪽을 돌아보기는 하면서도 밋밋한 등성이로 걸음발을 찾고있었다. 무심코 그를 여겨보던 원일은 불현듯 눈살이 꺾혔다.

(아니?)

그는 더 바짝 창가로 다가섰다. 짐작에 대한 확신이 굳어질수록 그 어떤 기쁨과 알지 못할 불안으로 가슴이 소용돌이쳤다. 설마 하고 다시 보았으나 틀림없는것 같았다. 아니 틀림없었다. 그는 바로 영옥이었던것이다.

(역시 그 한길에서 살고있구나!)

반가왔다. 그러면서 어쩐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체소한 한 녀성이 너무도 거대하고 벽찬 집을 지고있는데 대한 더없는 감사와 격려의 감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너무도 그 집이 무겁고 너무도 그 길이 가파롭기에 우려와 위구의 불안한 심정도 없지 않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을텐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있느라니 발자국 밟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귀에 익은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수야-》

(인수?)

분명 아까 울리던 그 목소리다. 그러니 우리 집에 인수가 와있는줄 아는 모양이구나. 도대체 이 녀석은 어딜 나다니기에?

안뜰을 거쳐 현관문으로 향하던 원일은 어느새 거기에 서있는 현아와 마주쳤다.

《그래 너도 인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

현아는 아무 대꾸도 없이 툭툭 부어오른 눈길로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

문득 현아의 눈빛에서 이제까지 본적이 없었던 쓰라린 비애와 타오르는 증오의 섬광을 감촉한 순간 원일은 어쩐지 가슴이 섬적했다.

《그는... 인젠 우리옆에... 있지 않아요.》

《뭐라구?》

원일은 믿을수 없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금시 심장이 멎는것만 같았고 온몸의 피가 얼어 붙는듯싶었다. 아니 펄떡이는 심장이 당장 흉박을 터치고 밖으로 쏟아질것만싶었다. 인수가 죽다니? 것처럼 사랑스럽던 동보가!

《시외로 호소문을 가지고 떠나다가... 그만... 놈들은 그를 나무에 비끄러매놓고 총창으로 마구 형체도 알아볼수 없이...》

얼른 두손에 얼굴을 묻은 현아는 어깨를 떨며 서글프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이가 갈렸다.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도 있단말인가! 이전 깡패가 그의 아버지를 가두어넣더니 오늘은 새 강도가 또 그 아들을 죽였구나! 도대체 이 원수를 어떻게 갚는단말인가!

《그리니 영옥썬 아직...》

그런것도 모르고 인수를 찾아다니는 영옥이를 생각하느라니 가슴이 더욱더 터지는것 같았다.

《알고계셔요. 그 어머니 다 알고계셔요.》

《?》

《우리모두가 오늘부터 인수씨의 이름을 따기로 했어요. 그의 피맺힌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너

무도 일찌기 쓰러진 그의 소중한 넋을 꽃피우기 위해서지요.》

현아의 표정에는 서리발같은 중오가 서려올랐으나 두볼로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 흐르고 있었다.

《전 오늘부터 인수씨가 하던 시위대지역책임을 맡았어요. 그 어머니 지금 행동지시를 주기 위해 역원들을 찾아다니시는거예요. 인수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드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의 가슴에 백배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거예요. 아니 자신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천만배의 투지를 다지시는거예요.》

《…………》

원일은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순간, 그는 호되게 얻어맞은것처럼 머리가 뻥-했다. 새로운 충격이 커다란 함마가 되어 가슴을 쿵-울리는것이였다. 놈들에게 희생된 인수, 그 아들을 잃고도 굳건히 투쟁을 지도하고있는 영옥이, 그런 사람에 비해 자기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인간이었던가! 이제야말로 그들과 자기사이에 가로놓였던 커다란 장벽을 뚜렷이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야말로 어지러운 세상이 보기조차 역겹다는 《지성인》의 미명아래 그놈들이 이 땅에서 살판치게 만든 범죄적인 방관자가 아니고 뭔가! 바로 자기야말로 그 악착한놈들이 독을 쓸 뿌리를 내리게 한 더러운 거름이 아니고 뭘었던말인가! 현실을 도피한 변절자, 그 음달에서 피어난 사꾸라.

《걸 회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진호가 웨치던 시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가슴을 찼다.

《인수야-》

다시금 영옥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결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서글픈 목소리가 아니였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고 웨치는 불같은 호소였고 썩은것을 뿌리채 불살라야 한다는 퇴성같은 웨침이였다. 아니 그것은 또 자기 같이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온 사람의 부

식된 가슴을 도려내는 서리발같은 비수였고 그런 자기까지도 장벽을 헤치고 떨쳐나와 일어서기를 바라는 피타는 절규였다.

문밖으로 나서려는 현아를 붙들어서운 원일은 사나운 눈길로 딸을 노려보았다.

《그래 넌 왜 벌써 이 병든 가슴을 두드려주지 못하니, 왜 갈기갈기 찢어주지 못했는가말이다. 아- 참! 가자! 이제라도 같이 가자!》

원일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영옥이를 향해 힘차게 걸어나갔다.

놈들의 진압에 일시 무춤했던 항쟁은 이날저녁부터 화산으로 터져올랐다. 진을 쳤던 군경들은 모조리 뺑소니쳐 달아나고 바리케트와 군용차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것처럼 으리으리하게 도사리고있던 건물우의 중기관총들도 어느새 봉기자들의 손에 쥐여졌다.

《파쇼를 때려죽이자!》

《테로정치 불사르자!》

천지를 진감하는 군중들의 웨침은 노호한 파도마냥 온 도시를 휩쓸었다. 캄캄한 질곡을 불사르며 도도히 굽이쳐나가는 봉기자들의 흐름은 점점 더 거세찬 격류가 되어 두터운 암흑의 장벽을 두드려댔다.

《전두환을 찢어죽이자!》

《유신잔당 몰아내자!》.

《민주승리 이룩하자!》

휘넓은 금남로를 따라 흐르는 시위대의 물결, 그 맨앞장에는 영옥이가 서있었고 그 옆에는 보람찬 새삶의 궤도에 들어선 원일이가 따라서고있었다.

바로, 그 시각, 현아는 목포를 향해 쏜살같이 달리는 자동차안에 앉아있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문에 어떤 표식이 새겨져있다는것도 모르고 이제 학교며 부두가에서 연설해야 할 호소문만 열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밤이였다.

아직은 밤이였다. 그러나 먼동에는 벌써 광휘로운 새벽빛이 황홀하게 어렸었다.

광주의 꽃

림호권

나는 모른다
너의 이름과 지내온 경력도
다만 네가 간호원이란것을 알따름
거리엔 항쟁의 물결이 굽이치는데
봄비는 병원복도에서
나는 너를 처음 보았다

안타까움이 실린 그 맑은 눈동자
응급처치에 열중한 사랑의 손길
새하얀 위생복차림은
그대로 순결한 너의 마음씨런가

스물안팎의 한창나이
도무지 너는 겁이 없어
피의 광장을 마구 뚫고 뛰어들어
그 가슴에 부상자를 불안아왔고
사자같은 젊은이들 손에 돌을 섬겨주었다

자유의 화신처럼
불사의 나래 퍼덕이며
5월의 거리를 도도히 누벼간
피어린 낮과 밤은 그 얼마나

부상자들 머리맡에서
어느 한순간인들 눈을 붙이었으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식어가는 몸에 뜨거운 너의 피를 부어주며
모대긴 밤과 낮은 또 그 얼마나

봉기의 불길이 터진 그 아침
늙은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하직하며
어찌하여 네가 집을 뛰쳐나왔는지
나는 안다!

처녀시절의 다감한 꿈이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그토록 소중해
비발치는 총구앞으로 내달려간

너의 불같은 열망을 나는 안다

파쑸의 광풍이 몰아치는 남녘땅우에
자유의 푸른 하늘을 열어가려는
기특한 네 마음-
원쑤에 대한 증오의 일념은
복수의 불길로 삼단같이 타올랐고나

광주의 딸이여!
반듯한 너의 이마
어글어글한 그 눈매
어찌 그리 흡사히도 닮았는지
네게서 남녘에 두고 온
내 사랑하는 누이의 모습을 본다
불현듯 혈육의 정이 가슴에 젖어든다

그래서 나는 네 오빠이고
그래서 너는 내 그리운 누이가 아니냐
그래서 더욱 간절한 내 마음
지금 네곁으로 달려가고있다
분망한 병원복도로
결사전의 그 거리로 줄달음치고있다

광주의 내 누이야!
어서 구급가방을 메고
하얀 위생복 정다운 그 모습으로
바람 사나운 남녘의 거리거리를 찾아다오
원쑤 미제와 파쑸의 칼부림에 찢기운
민족의 상처를 구원해다오

오, 너는 내 눈망울에 찍힌 순결의 꽃-
광주에 피어난
한떨기 아름다운 민주의 꽃이 아닌가
그 슬기 그 용맹을 지니고
네 영원한 청춘과 미래를 위해
민족의 자랑으로 붉게붉게 피어있어라!

광주여

아르네 해를로브 피터슨

광주여!
그대는 투쟁의 상징 불길의 예감이여라
파시즘은 결코 불씨가 아니다
항전을 진압하는데 군대를 내몰수는 있다
허나 투쟁은 계속되나니

인민들은 억압에 대한 대답으로 투쟁에 떨쳐나

섰노라
동지들이여, 광주에서 학살된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이름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그대들의 복수의 날은 오고야말리라
진리를 무시할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나니
(필자는 단마르크 기자이며 작가인 주체사상국제
연구소 리사임)

결혼문제

박종상

1

장마철을 앞두고 한여름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명희선생!》

《명희선생 - 오!》

겨울옷을 벗고 여름옷으로 갈아입은 직후의 학교안은 녀학생들의 흰 적삼과 남학생들의 흰 사쓰로 목화밭에 목화꽃이 한꺼번에 핀것처럼 눈부시게 산뜻하고 시원스러웠다. 그것은 어찌다가 가볍고 들뜬 어딘지 어수선했던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한 여름의 분위기가 가득찬 복도에 명희를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경숙이의 소리임에 틀림없다. 경숙은 올해 명희와 함께 고교부 3 학년을 맡게 된 녀선생이었다. 명희는 5 반 담임이고 그는 6 반 담임이었다. 둘 다 녀학생반이다.

《리명희선생님, 리명희선생님, 교무실까지 속히 와주십시오... 리명희선생님, 리명희선생님, 교무실까지 속히 와주십시오.》

학교안에 있는 모든 학생기가 일제히 명희를 불러댄다. 억양이 없는 그 목소리가 금속성으로 확대되어 교사 콩크리트벽에 마주쳐 울렸다.

명희는 점심을 먹다 말고 3 학년직원실을 나서다가 하마트면 계단쪽에서 달려오던 경숙이와 맞부딪칠번하였다.

경숙은 부딪칠번한 상대가 명희인것을 알자 다급히 명희의 손을 잡았다.

《명희선생! 큰일났어요. 정애가》

《예? 정애가 어떻게했어요?》 정애란 명희가 담임하고있는 고교부 3 학년 5 반학생이다.

명희는 침착성을 잃은 경숙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것을 느끼며 되물었다.

《조금전에 운동장에서 갑자기 넘어졌어요.》

명희는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물었다.

《그래 정애 어디 있어요.》

명희는 경숙의 대답을 듣기전에 벌써 계단을 내려디고있었다. 그뒤를 쫓으며 경숙이가 말했다.

《교무부장선생님이 의무실에 업고갔는데...》

《의무실에?...》

명희는 본관 1 층에 있는 의무실로 달려갔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려 다리가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았다. 10 년가까이 교육사업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갑자기 넘어지다니...)

의무실에서는 간호원이 굵다란 주사기를 가지고 침대에 누운 정애의 팔에 주사를 놓고있었다.

명희는 정애의 얼굴을 주시하였다.

정애는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본래 그리 혈색이 좋은편은 아니었지만 살결이 희고 곱던 정애의 얼굴이 창백하다기보다 파랗게 질려있었고 관자노리에서 이마에 걸쳐 그리고 눈가풀에 푸른 혈관이 들여다보였다. 이마와 입 언저리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돌아있다.

숨이 멎은 사람같이 눈을 딱 감고있는데 눈가풀이 종이장처럼 얹어보였다.

명희에게는 주사놓는 시간이 마치 자기 팔에 주사바늘이 꽂힌것처럼 지긋지긋하고 길게 느껴졌다. 자기 가슴의 고동소리가 쿵덕쿵덕 갑자기 크게 들렸다.

《뇌빈혈입니다. 좀 심해서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다만 교의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우선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 크게 걱정하실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원은 정애의 팔에서 주사바늘을 빼고 소독솜으로 주사놓은 자리를 비비면서 말하였다.

명희는 후 한숨을 쉬었다 정애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손도 이마도 놀라우리만치 싸늘하였다.

정애는 약 한시간후에 의식을 돌이켰다.

의사는 별로 크게 걱정될것은 없으나 뒤일을 생각하여 하루이를 입원시켜서 안정을 보장하고 중혈제를 계속 주사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명희는 조선식당을 경영하고있는 정애의 집에 전화를 걸어 양해를 받고 정애를 차에 태워다가 병원에 입원시켰다.

오후수업을 끝마친 명희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다. 도중에서 꽃과 과일을 좀 사가지고 갔다.

정애의 부모들도 황급히 달려왔다. 정애는 명희를 보자 어린애처럼 기뻐하였다. 정애의 부모들은 딸의 안정된 모습과 의사의 소견을 듣고 마음을 놓았다고 하면서 식당일이 걱정된다면서 명희에게 거듭거듭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정애는 원기가 저지기 회복되었는지 명희가 갈아주는 과즙을 빨아마셨다.

《선생님, 오늘저녁 병원에서 주무세요... 네? 전 혼자 병원에 있는건 싫어요.》

정애는 한번 앓더니 어린아이로 되돌아간것처럼 그답지 않는 코멘 응석부리소리를 내군하였다.

그러잖아도 명희는 정애의 병세도 그렇고 음식점장사로 손이 팔리는 그의 집사정을 생각하여 오늘 하루밤 정애의 곁에 함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를 걸어두었던것이다.

그는 예정대로 정애곁에서 하루밤 시중들여주기로 하였다.

빈혈증이 심하게 일어난다는것은 수면부족과 파로, 영양상태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만치 이 기회에 정애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해보리라 생각하는 있었다.

《어머니두 아버지두 다 식당일로 바빠서 집에 계시지 않아 혼자서 외롭겠어요. 밤엔...》

교의선생의 호의로 차려진 독방에서 창문가에 놓인 침대에는 정애가 누웠다. 그곁에 침대와 나란히 긴의자를 갖다놓고 무명훔천으로 쓴 담요를 덮고 누우며 명희가 물었다.

《어릴적엔 무서울 때도 있고 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에 바람이 사납게 불거나 하면 누가 문을 두드리는것 같고 무서웠어요...》

정애는 자기곁의 잠자리에 눕는 명희를 선망이 가득찬 눈을 깜박거리지도 않고 말끔히 쳐다보면서 말하였다.

그 악의없는 맑은 눈에 부딪쳤을 때 명희가 오히려 당황하였다.

《식당에 달린 방이 없어요? 식당에서 기다리다가 어머니하구 같이 돌아오든지 할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두 어머니두 제가 식당에 있는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나쁜 버릇을 배운다고... 그렇지만 이제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아요.》

정애는 해죽이 웃어보였다.

부모들이 줄곧 식당일에 매달리고있는 정애의 가정은 집에서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한밤중 2시, 때로는 손을 기다려 새벽 4시경까지 식당문을 열어놓고있는 그의 부모들은 정애가 학교가기 위해 집을 나설무렵에는 지칠대로 지쳐서 자고있었다. 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는 식당일이 한창 바쁜 때였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아침밥을 안먹고 학교에 가게 되었고 점심은 빵으로 애웠다. 저녁때는 밥을 지어먹거나 귀찮을 때는 식은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대로 자기도 했다.

밥에는 숙제를 대강대강 해놓고는 늦도록 텔레비존을 보는것이 일과였다. 그는 텔레비존에 등장하는 일본인배우나 가수들의 이름, 영화, 연극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있었다.

《정애 그러다가 정말 병들겠어요. 인젠 고급부 3학년 안예요?... 저녁에 좀 일찍 자고 그대신 아침엔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지어먹어야 해요. 될수록 점심밥도 싸가지고 오구...》

명희는 좀 엄한 어조로 타일렸다.

정애는 인제 완전히 버릇이 돼서 고치기 어렵다면서 명희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희는 그런 정애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사랑과 조국의 혜택,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명희는 정애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것을 느꼈다.

자본주의사회인 일본에서 동포들의 생활은 그 지향과는 달리 많은 경우 먹고 살기 위하여 식당, 술장사 등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있다. 이런 영업환경은 그자체가 자녀교양에 좋은 영향을 줄수 없다. 게다가 많은 가정들에서 장사일에 매달려 자녀들의 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정애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편이다. 학생들가운데는 집에 돌아가기가 바쁘게 부모들의 일손을 거들어 점방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학생도 있다.

(그런데 우리들 교원들은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책임지고있는가? 그런 학생들의 처지를 하나하나 료해하고 그들의 부모들이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는 교양을 주고 보살피고있는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양, 가정교양이다 갖추어져야 훌륭한 새형의 인간을 만들수 있다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인데 그러면 혁명가로서...)

그런데 자기 주위를 둘러봐도 모든 교원들이 다 부모된 심정으로 말은 학생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책임적으로 교양해내고있다고는 말할수 없었다. 어떤 녀교원은 결혼을 하기 바쁘게 학교에서 물러났고 지어 결혼도 하기전에 그 준비를 하느라고 사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남을 탓할게 있어? 나자신은 어떤데... 졸업반을 맡아가지고서...)

이튿날아침 명희가 세수를 하고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조심 학교에 나갈 차비를 하고 있는데

정애가 눈을 떴다.

《아이, 더 자지 않구… 내가 깨웠는가봐…》

명희가 미안해하자 정애는 엉뚱한 말을 꺼냈다. 《선생님, 내 한번 해보겠어요… 어제 선생님이 얘기하던것… 하다가 안되면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처음엔 무슨말인지 명희는 뜻을 알지 못해 멍하니 서서 정애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윽고 그것이 텔레비존을 보느라 밤늦게까지 앉아있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찌기 일어나서 밥을 지어먹어야 한다고 타이론데 대한 대답임을 알아차렸다.

무심히 자고있는줄로만 알았는데 자는척하면서 그는 그대로 심각하게 생각하고있었던 모양이다. 명희는 별안간 정애에 대한 사랑스러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쳐올라 와락 안아주고싶었다. 그것을 참으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정애에게로 다가가서 이불을 고쳐 덮어주면서 말하였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해봐요… 나두 힘껏 도와줄테니…하면 되지 안될게 뭐예요.》

하루밤 자고나니 정애의 몸은 더욱 회복되었다.

혈색도 좋아졌다. 명희는 그날 수업을 끝내고 저녁무렵 문병가겠다는 학생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정애 정말 좋구나… 선생님하고 같이 자구. 나두 학교에서 병나봤으면…》

너학생들은 인기있는 선생님을 하루밤 독차지한 정애를 부러워하며 부산스레 떠들었다.

정애는 결보기에는 완전히 정상인것 같았다. 웅근 하루동안 밥을 먹지 않고 누워있은것으로 하여 자세히 보면 좀 병색이 느껴지지만 인제는 일어서서 다녀도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의사도 더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학교에 다니면서 당분간 강의가 끝나면 병원에 들려 주사를 맞아야 하고 파로운 운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애의 집에 연락을 하였다.

부모는 오지 않고 웬 청년이 승용차로 마중왔다. 키가 후리후리한 청년이다. 기름기 없는 머리카락이 흰칠한 이마를 절반나마 가리우고 짙은 눈썹아래 우묵한 눈이 조용히 반짝였다. 곤색 양복저고리에 곤색넥타이, 회색바지를 입고있었다.(정애한테 이런 오빠가 있다는 말을 못들었는데…) 명희는 의아쩍게 생각하면서도 속으로 정애의 가정조사료의 기억을 더듬어보았다. 청년은 병실에 들어서자 너학생들만이 옥실거리는 방안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음인지 일순 주춤 섰다가 곧 명희에게로 다가왔다. 《선생님이십니까? 정애가… 이번에 이애때문에 수고를 많이 끼쳤습니다… 벌써

부모들이 왔어야 했을텐데…》처음엔 주저주저하더니 이내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하였다.정애가 청년을 보고 《아이, 삼촌이 왔구나.》

하고 반가운 소리를 질렀다.

《그래, 인젠 다 나았는지… 난 오늘 문병오느라고 서둘렀는데…벌써 퇴원이라면서? 그놈의 병두 원… 한 1,2 년쯤 움짍두 못하구 아무것두 못먹게 침대에 잡아매놓지 않구…》청년이 빙그레 웃으며 익살맞게 말하였다.

《그게 문병 온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보구… 삼촌, 두고봐요. 이다음에 어떻게 되나…》

정애가 눈을 꼭게 합기였다. 병실안에서 폭소가 터졌다.

(젊은 녀성들이 많은데서도 주눅든 기색이 없이 룡담을 하는걸 보니 비위가 좋은 모양이다. 보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정애동무의 삼촌이십니까?》

명희가 물었다. 《아니올시다. 삼촌은 삼촌이라도 외삼촌입니다. 최정규라고 합니다.》

청년은 그때 비로소 명희를 정면에서 보고 눈이 둥그래지더니 이내 부신듯 시선을 돌렸다.

명희는 학생 한들의 도움을 받아 퇴원준비를 서둘렀다.

명희의 모습을 정규는 일을 거들면서 이따금 한참씩 주시하다가 명희와 눈이 맞으면 당황하여 어색한 웃음을 짓곤하였다.

명희의 날씬한 몸매는 그의 중키를 더 커보이게했다. 수수하게 파마를 한 술이 많은 까만 머리, 가름한 얼굴에 약간 도드라진 이마, 긴 눈썹과 커다란 눈이 리치적인 인상은 주었다.

더위로 하여 홍조편 얼굴이며 부드러운 어깨의 선이며 부푼 가슴이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일손이며 이따금 이마에 땀 땀을 손수건으로 훔치는 처녀다운 몸짓이며…… 그 모든것을 정규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명희도 처녀의 민감성으로 정규의 시선을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흔히 있는 남성들의 녀성에 대한 호기심, 이따금 천차간같은데서 느끼곤하는 남성들의 시선과 같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거기에 당황하고 수집어하며 얼굴을 붉히기에는 처녀로서 그는 지내 나이가 찼었다.

그후 청년은 한 2~3 일 병원에 다니는 정애를 데리러 학교에 왔었다.

그러나 명희는 그의 모습을 학교구내에서 피땀 피땀 보았을뿐이지 분주한 학교의 일과속에 파묻혀 단 한번 만난 청년에게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없었다.

정애가 퇴원하여 정상적으로 학교에 나오게 되면서부터 그 청년의 모습은 차츰 명희의 기억속에서 멀리 밀려나갔다.

2

장마비가 런던 내리었다.

학교도 집안도 습기차고 더위에 떠서 축축하다. 산 사람의 몸예까지 곰팡이가 필 지경이다.

그러한 6월말의 어느날이었다.

명희는 다음주 일요일에 예정된 학교내연구수업의 준비사업에 대한 중간총화를 하고 주룩주룩 궁상맞게 내리는 비속을 뚫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다.

그는 지칠대로 지쳤다. 어깨가 뻐근하고 팔다리가 나른하였다. 날씨탓인지 머리가 무겁다. 밤이 깊었는데도 시창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어서 발을 펴고 눕고싶었다.

집앞까지 온 명희는 집안의 공기가 여느때와 좀 다른것을 느끼었다.

여느때라면 나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늦게 퇴근하는 자기를 기다리는 호젓한 집, 밤도 이밤때쯤 되면 외등만 켜놓고 집안이 쥐죽은듯 조용할텐데 오늘은 어쩐지 집전체가 환해보였다.

그것은 오래간만에 느끼는것이였다.

그는 우산을 접어두고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안도 축축하다.

현관에 웬 신발들이 서너켤레나 있었다.

안방에서는 떠들썩하니 이야기소리가 들리었다.

(웬 손님들이 이 밤중에 오셨을까?)

그는 비옷을 벗어 현관벽에 걸어두고 옷차림새를 매만졌다.

《명희냐?》

방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맞받아나왔다.

결결 짹짹 웃는 소리가 한창 방안에서 났다.

(언니로구나!)

명희는 그 특징있는 웃음소리로 가까운 도시에서 집간 언니임을 곧 알았다.

명희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자 방문이 확 열리면서

《애, 요즘도 늘 이렇게 늦냐? 니 기다리다 눈알 빠지겠다!》

하고 언니가 뛰어나와 명희의 팔을 잡고 방안으로 이끌어들이었다.

방안에는 큰오빠내외도 와있었다.

《아버지는?》

명희가 묻는 말에

《아버진 주무신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저쪽 방에서 쿨럭쿨럭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나도 아직 자지 않고 너희들 이야길 다 듣고있다.) 하고 대답하는것 같이 들리었다.

방안사람들은 모두 목을 움츠리고 킬킬 웃었다.

《아이구, 이 엘 보면 내 가슴이 막혀서... 옛날 같으면 아이가 두셋 났을 나이가 된걸 아직도 홀몸으로 두니... 기가 찬다, 기가 차...》

어머니가 명희를 보며 끝끝 혀를 찼다.

《아이, 어머니 또...》

명희는 질색이런듯이 상을 찌프렸다. 그리고 나서 방안사람들을 둘러보며

《어떻게 이렇게 다 모였어요?》

하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그 말에 방안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의미있는 웃음을 지었다.

명희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오래간만에 모인 동기간들의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기뻐 아까 그토록 고달프던 피로감까지 어텐가 말끔히 날아나버린것 같았다.

《누이가 언제 그런 좋은 사람을 사귀었어?... 그런 눈치도 없더니.》

올케가 장난기어린 표정으로 말하였다.

《뭐예요? 그런 좋은 사람이라니...》

명희가 의아쩍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애, 너 바로 대라! 시침을 따지 말고.》

언니가 따지고들었다.

《언니두 참... 시침이고 고름이고 딸게 있어야 따지요.》

《명희야, 너 최정규란 사람을 몰라?...조선문화연구소에 다니는...》

오빠가 누이들의 장난기어린 싱깅이를 누르고 점잖게 물었다.

《...최정규요? ... 조선문화연구소? ...》

명희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어디서 들은 이름 같기도 한데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다.

《왜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하고 되물었다.

《모를리 있나? 그쪽에선 너를 잘 안다구 선불 필요도 없다는데... 앙큼한게 그래도 시치미를 탄나?》

언니는 아무래도 명희더러 항복을 받을 작정인가부다.

명희는 그제야 언니와 오빠내외가 궂은비 내리

는 이밤중에 모인 이유를 알았다.

(혼사가 늦어진 막내동생을 얼마나 걱정했으면 이 장마철에 어린 아이들을 떼어놓고 이처럼 달랠왔을까?)

명희는 형제들이 고마왔다.

《참 잘되었어요. 아직은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도...》

어머니가 신기해하였다.

《오늘저녁때 조선문화연구소 소장하구 지부위원장님이 다녀가셨다. 너한테 혼사얘길 가지고 말이야... 그 상대자가 이제 말한 최정규란 사람인데... 정 몰라?》 오빠가 재차 물었다.

《...어디서 들은 이름이긴 해요... 그런데...》

《아이구 애두... 명칭하니... 그래 젊은 처녀가 충각을 보고 그러도 무관심하게 지낼수 있어? 참, 이래 명종하니 여태 시집도 못간거지.》

큰언니의 핀잔이다.

《어쨌든 날을 받아서 선을 한번 봐야겠는데... 당차끼리 안다 해도... 아버지, 어머니도 한번 상대편을 보셔야 할게 아닙니까?》

오빠가 말하였다.

《암, 그렇구말구... 그러구 이쪽에서두 사람을 시켜서 저쪽 형편도, 사람됨됨도 좀 알아봐야지.》

큰언니의 말이다.

《모처럼 일어난 혼사얘긴데... 그리고 조직의 간부선생님이 일부러 가지고 온 얘기고... 어쨌든 날을 정해서 랑쪽 부모들하고 같이 만나봐야겠군... 좋지요. 어머니?》

오빠가 어머닐 보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투로 다짐했다. 모두들 들뜬 기분이다. 집안이 갑자기 확 밝아진것 같다.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막내딸의 혼사문제가 늘그막에 이르러 단 하나의 우환거리였다.

《저걸 혼자 봐두고 내가 어이 눈을 감겠는가.》

어머니는 친척들만 만나면 한탄하였다.

그럴 때면 자연히 집안이 어두워졌다. 동기들도 어머니의 한탄하는 소리를 듣는것이 괴로웠고 홀로 나이먹어가는 막내동생 보기가 딱하여 잘 다니지 않았었다.

그러던 집안에서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던 혼인얘기였다. 어찌 반갑지 않으랴.

《좀 기다려요... 아이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난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요... 막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명희는 아닌밤중에 흥두깨격으로 날아든 혼인 이야기가 부모형제들앞이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방안의 분위기에 당황하기도 하여 항변하듯 말하였다.

결혼문제는 누구보다도 그자신의 문제였고 그 자신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맞다든 혼사말에 놓칠세라 독촉하는 언니, 오빠들의 태도가 한편은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꼭 고깝게도 생각되었다.

리유는 딱히 짝어 말할수 없었다. 구태어 말한다면 나이먹었다고 《짜구려》로 팔려고드는듯한 분위기가 감촉되어 싫었다. 그리고 결혼 그자체에 대해서도 기쁘다기보다 무언지 불안감이 앞섰다.

그날밤 명희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언니와 그전날같이 한방에서 잤다. 오빠내외는 아이들이 걱정이라면서 밤중에 비속을 해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불을 펴고 누운 뒤 얼마동안 얘기를 주고받다가 언니는 어느새 잠이 든 모양이다. 언니의 코고는 소리가 제법 크다. 처녀시절에는 코고는 버릇이라곤 없었는데 너자도 시집을 가서 살림하느라고 고생을 하다나면 숨결도 거칠어지는것인지...

명희는 몸이 지칠대로 지쳤는데도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청하려고 들면 들수록 정신이 더 말뚱 말뚱하여졌다.

(최정규... 어디서 들었을까?... 일본대학을 나왔다지... 나이가 나하구 같고... 최정규...)

그러자 의연히 최정규란 이름은 명희의 기억의 언저리를 초점이 흐려진 영상으로 지나칠뿐이었다.

생각하면 자기에게 혼담이 있는지가 몇해나 될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는 쏠아지듯이 여기저기서 혼담이 많았었다. 중매군이 그칠새없이 찾아들었었다. 대학시절의 선배, 동급생, 교원들중에서 그럴사한 상대자들이 걸어온 이야기도 하나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는 사업에 재미가 나서 결혼문제란 3~4 년후에나 생각하면 되려니 하고 천연스레 지냈었다.

3~4 년이 지나고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다가 그냥 지나쳐왔다. 실상인즉 사업에 쫓기여 고를 사이도 깊히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어머니의 성화가 불같이서 인젠 결혼문제를 좀 생각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중매군의 발걸음은 이미 뜸해졌고 요 몇해는 통 결혼을 하라는 말을 건늌는 사람이 없었다.

명희자신도 괜히 남의 말밥에 오르는것을 저어하여 아예 그런파위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이 범접을 하지 못하도록 일에만 열중하여왔었다. 그

리는 사이에 너자로서 청춘이라고 할만한 시절이 지나가고말았다.

3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가. 명희는 자기의 기억 속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초점 흐린 영상과 숨박곡질하는데 지쳐 아물아물 얽은잠이 들었다.

몇시간 눈을 붙인 명희는 어느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언니는 아직 자고있다. 오래간만에 친정에 돌아와 요람속처럼 마음놓고 단잠을 자고있는것이 나 아닐가. 어제밤에 있었던 일이 꿈속일같이 생각났다.

명희는 살며시 이불속에서 빠져나와 옆방으로 가서 전기불을 켰다. 4월부터 매일아침 수업시작하기전에 전교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있는 10분간 국어단어뜻풀이시험에 대한 채점을 하여야 하였다. 학급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분조단위로 경쟁이 되니 이즈음은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한 10분간시험이었다.

명희네 학급에서도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10점만점이 한사람도 없었는데 최근은 절반이상이 10점이다.

채점을 마치고 성적을 수첩에다 옮겨적고있던 명희는 문득 한 답안에 쓰인 이름우에 시선을 멈추었다. 정애의 답안이었다.

정애는 그 일이 있은후로 명희와의 약속을 잘지켰다. 점심밥을 싸오고 밤에 텔레비존을 보지 않았다.

명희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의 집에 텔레비존이 눈에 띄지 않았다. 명희가 이상스러워 물었더니 방에 놓아두고는 보지 않을 자신이 없어서 벽장속에 깊숙이 감추어버렸다는것이였다.

밤에 그전보다 일찍 자게 되었는데 그의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성적뿐만아니라 행동이 의젓해지고 어딘지 듄직해보였다.

지금 명희가 정애의 답안에 눈길을 멈춘것은 그런 변화때문이 아니였다. 정애의 모습에 겹쳐 생각난 하나의 영상이 있었다.

옛저녁, 어디서 들은듯하면서도 생각나지 않아 그렇게 궁금하던 최정규란 그 이름의 주인은 다름아닌 정애의 외삼촌이라던 그 청년이였다.

명희의 가슴에 그날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 동무였구나... 그 동무가...》

온몸이 별안간 뜨거워졌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명희는 누가 자기를 보고있을것만 같아 뒤를 돌아보았다. 다음순간 그는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는 평소와 다른 자기를 발견하고 안타까이 두팔로 젖가슴을 안고 그속에 얼굴을 묻었다. 자기가 까닭없이 애처로웠다. 코등이 찡해지면서 영문모를 눈물이 폭 솟았다.

다음 토요일날저녁에 명희는 어떤 조선식당의 한방을 빌려서 최정규와 정식으로 선을 보았다.

그날은 오후부터 오래동안 내리던 장마비가 멎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언니가 함께 갔었다.

저편에서는 정규의 랑친과 누이인 정애의 어머니가 참석하였다.

조선문화연구소 소장과 총련지부위원장이 중매군격이 되어 이 일을 맡아나섰다.

랑쪽 부모들은 첫눈에 서로 마음에 든것 같았다. 부모들끼리는 대회에 참가했을 때라도 더러 만난 일이 있었던지 구면같이 곧 친숙해졌다.

그들은 벌써 서로 사돈이 되거나 한것처럼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허물없는 이야기속에서 서로의 가족관계며 친척들, 집안형편들을 알아보았다. 정규의 집도 명희의 집과 형편은 어슷비슷하였다. 명희 아버지는 총련지부의 비전임 일군으로서 고철장사를 하고있고 정규의 집에서는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있다는것, 명희가 삼남매의 막내인데 정규는 사남매의 셋째로서 외아들이며 누이동생이 그보다 먼저 출가하였다는것쯤이 서로 다른 점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는 어느덧 최근 일본의 텔레비존방송에서 소개된 공화국의 모습이 일본사람들속에서 호평이였다는 이야기로부터 평양에서 열린 세계탁구대회가 민족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서 좋은 기회였었는데 남측의 방해로 통일팀이 실현되지 못한것이 얼마나 아쉽고 원통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자, 이제 이만하면 여긴 어른들에게 맡겨놓고 정규동무는 명희동무를 데리고 나가보지... 둘이서 할 얘기도 있지 않겠나.》

총련지부위원장이 웃음어린 얼굴로 술도 담배도 들지 못하고 어쭙은 태도로 앉아있는 정규를 바라보고 또 동의를 청하는 표정으로 랑쪽부모들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어른들사이에 오랜 시간 끼여앉아있는것이 조심스러운듯 꾹꾹하게 앉아있던 정규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일어섰다.

명희는 그렇게 하는것이 면구스러워 잠시 머뭇거리였으나 모두들 권하는바람에 정규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둘은 밝은 불빛속에서 봄비는 사람들 틈에 끼어
상점거리의 보도를 거닐었다.

한참 걸어가니 상점거리는 없어지고 자동차들이
많이 달리는 큰길에 닿았다.

《이거 안되겠군.》

정규는 혼자말처럼 뇌이고 사이길로 빠져들어
갔다.

거기는 주택지구였다. 큰길과는 대조적으로 어
둡고 조용하다.

명희는 여태 아무렇지도 않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는것을 느꼈다. 그는 들먹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정규와 나란히 걸었다.

《놀라셨지요. 갑작스런 얘기여서.》

정규가 앞을 보며 말하였다.

《예.》 명희는 늘 학생들을 상대로 이야기하여
왔고 학부형들,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하여왔으나
이런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을지 몰
랐다.

정규는 그런 명희의 처지를 생각해서인지 대답
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말들을 하였다.

《어른들이란 그저 성미가 급해서 내가 명희선
생 이야기를 한두번 입밖에 내었더니 막 서둘러
서... 명희선생 의향도 알아보지 않고... 이거 정
말 안됐습니다.》

정규는 혼자서 말하고 고개를 꾸벅거렸다.

나이는 둘이 같은데 정규가 꽤 옷사람답게 행
동하였다.

명희는 그런 정규의 말에 그저 《예.》 아니면
《안예요.》 할뿐이었다.

주택지구를 빠져나와서 한참 가니 오른쪽편에
자그마한 공원같은것이 있었다. 푸르스름한 외등
빛에 비치여 나무잎들이 자주빛으로 빛나고있다.
촉촉한 땅바닥의 감촉이 기분좋다.

둘은 공원을 한바퀴 돌았다.

《고단하시지요... 의자에 잠깐 앉지 않겠습니
까.》

정규는 휴지를 꺼내어 촉촉한 장의자를 말끔히
닦았다.

《앉읍시다.》

명희더러 권하였다.

명희는 그리 걸지도 않았는데 몹시 지쳤다. 정
규의 마음씀이 고마웠다.

명희가 앉자 정규도 옆에 나란히 앉았다.

《명희선생.》

정규가 불렀다.

《아이, 선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명희는 저절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럼 어떻게 부르십니까? <명희동무> 도 이상

하고...》

《동무지요 뭐.》

《그렇가요... 그럼 명희동무!》

《네.》

둘은 얼굴을 마주보고 조용히 웃었다. 어느사
이에 어쭙던 느낌이 조금 가시여졌다.

《나한테도 그럼 최동무... 이건 소장동지가 날
부르는것 같아 지시조가 풍겨서 재미없군... 역시
<정규동무> 가 좋겠습니다. 정규동무라고 불리
주십시오.》

《네.》

둘은 다시 빙그레 웃었다.

《명희동무.》

《네.》

정규는 명희의 그 대답소리를 귀속에 고이 담
아놓고 음미하고있는지 오래도록 잠자코 전등빛
에 반짝이는 나무잎들을 바라보고있었다.

명희는 그 침묵이 숨이 막힐듯 갑갑하여 어서
이 자리에서벗어났으면 하는 생각과 이 침묵이
영원히 계속되어주었으면 하는 서로 상반되는 느
낌의 섞갈림속에 흔들리고있었다.

《명희동무.》

이윽고 정규가 다시 입을 뗐다.

《네.》

명희는 낮게 대답했다. 입안의 침이 그동안 다
말라버린듯 체소리가 체소리같지도 많았다.

《당돌하고 성급하게 청혼을 들이대고있는 나를
경멸하고 있지나 않습니까? 이런 얘기란 소홀히
할것이 아니라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해야 할텐
데 몰상식하다구말입니다.》

《.....》

《그러구 저 인간은 대학을 나와서 10 년이 넘
도록 사업을 하면서 여태 장가도 못들었으니...
어디 큰 결함이라도 있는거나 아닐까? 하고말입
니다.》

명희는 역시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나이찬 처녀로서 선을 본 남자앞에서 점잔을
뿜내고있는것도 아니였고 할말이 없었던것도 아
니였다. 말을 하자니 심정이 너무나 복잡하였다.

(여태 결혼을 하지 못한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
면 너자인 자기는 무어라고 말을 해야 한단말인가!)

명희는 그냥 잠자코 있었다.

《사실은 이때까지 결혼이야기가 전혀 없었던것
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맘에 드는 녀성도 없지
않았는데...》

(맘에 든 사람도 있었다면서 어째서 결혼을 하
시지 않았을까?)

명희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 말도 입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정규는 입맛을 켜켜 다시면서 주섬주섬 주머니를 더듬어 담배곽을 꺼냈다. 그는 담배를 하나 빼든채 피우지 않고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명희동무... 이런 말을 하면 좀 주체넘은 소리 같지만 난 자기 결혼에 대하여, 아니 결혼일반에 대하여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남자나 여자나 다같이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말입니다.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우리 총련의 일군들인 경우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녀성들은 결혼하면 가정의 무거운 부담에 짓눌려 리상과는 달리 재능과 소질을 꽃피우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많습니다...》

《.....》

정규는 일단 말을 끊고 푸르스름한 전등빛을 받아 파리해보이는 명희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고 다시 또 말을 이었다.

《거기엔 남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녀성들 자신의 각오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는 정규의 생각이 체험을 통해 얻은 신념이 아니라 세상풍파를 모르는 청년의 리상에 지나지않다는것을 느끼었다. 그러나 자기생각을 꺼리낌없이 토로하는 정규의 직선적인 성품이 싫지 않았다.

《...난 명희선생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여태 결혼을 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속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아이참... 전 그런 훌륭한 신념을 가지구 사업하고있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명희는 비로소 정규의 말을 막았다.

《사양하지 마시오... 난 정애가 퇴원하고난 뒤 그 애를 병원에 데리고다니는 일을 일부러 맡아서 학교에 갈 때마다 명희선생의 모습을 보곤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 명희선생의 리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구 어머니두 아마 한두번 가보았을겁니다.》

명희는 그제야 언젠가 낯선 녀인이 교실밖에서 유심히 수업정형을 들여다보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학부형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을따름이었다.

《저런...》

명희는 그들의 무례함을 나무라기보다 눈치코

치 없는 자신에 대하여 화가 났다.

그런 명희의 심리의 움직임에는 아랑곳없이 정규는 한번 달리기 시작한 감정의 분류를 막지 못하는듯 흥분된 어조로 말을 계속하였다. 부름말도 어느새 《명희선생》으로 되돌아갔다.

《...난 학교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식을 완전히 새로이 하였습니다. 난 이번에 교육사업이 가지는 의의, 특히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총련에서 하는 민족교육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알게 되였고 또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어려울것인데 자기 나라 아닌 남의 나라에서 민족교육을 하자니말입니다.》

정규는 마치 스무살안팎의 학생처럼 정열에 들떠서 열변을 토로했다.

《전 그런 훌륭한 교원은 아니지만 교육사업을 리해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명희는 정규의 과대한 평가에 내심 좀 얼떨떨하긴 하였으나 그의 넘쳐나는 정열에 끌리어 솔직히 대하였다.

《명희선생, 난 명희선생을 알게 되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여태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이 바로 명희선생이 아니였던가고말입니다.》

《아이 또 무슨 말씀을...》

명희는 약간 놀라 얼굴을 들었다. 바로 눈앞에 라는듯한 뜨거운 정규의 두눈이 있었다.

굳이 사양하는 명희를 정규는 기어이 명희집앞까지 바래다주었다.

헤여질 때 정규는 피차 결혼하는데 결코 이르다고 할 나이도 아니고 또 서로 전혀 모르는데 덮어놓고 결혼하자고 할수도 없으니 리해를 깊이 하기 위하여 자주 만나자고 하면서 1주일에 한번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일요일에 만나자고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약속을 청하였다.

현관문을 닫고 명희는 멀어져가는 정규의 발자국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정규의 손의 감촉을 더듬어보았다.

오늘저녁에 있었던 일이 어찌진 현실같지 않고 자기가 꿈이나 꾸고있는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4

그 일이 있은후 둘은 매주 일요일에 만났다.

처음 좀 떨떠름하던 명희도 만날수록 정규의 열정에 휩쓸려가는 자기를 느끼었다. 정규의 결점도 차츰 알게 되고 그 반면에 그의 새로운 장

점도 발견하고 하여 정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랑쪽집에서는 척척 일을 추진하였다. 가을에 성례를 하면 어떤가고 정규네 집에서 먼저 제기 하여 왔다.

명희네 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다들 다른 의견이 없었다. 그러나 명희가 졸업반 학생들을 담임하고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여 달라고 억지를 썼고 정규도 그런 명희의 생각에 동의하여 매년 봄방학기간을 골라 결혼식날을 정하기로 하였다.

꿈같은 나날이 지나갔다.

명희는 모든것이 새로와보였다.

사연을 모르는 동료들이 명희가 요즘 고와졌다 고들 하였다.

초복, 중복이 지나고 방학에 들었다. 명희는 학생들에 대한 복습이요, 교원강습회요 하여 방학이라고 하루도 빈한 날이 없었다.

8 월에 들어 정규는 연구론문의 공동집필을 위하여 나가노지방에서 진행되는 한달가량의 합숙에 참가하였다.

우에노역에서 정규를 전송하고 돌아선 명희의 가슴에 별안간 쓸쓸한 찬바람이 일었다. 그가 없는 도표가 이다지도 황량하고 재미없는곳인줄을 그는 여태 느껴본적이 없었다. 명희는 일요일이면 정규와 만나던 일이 생각났고 그가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기다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은근히 놓았다.

자기 방에 들어가 책상위에 정규의 엽서가 없을 때의 그 서운함, 그의 엽서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그는 정규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도 좌우된다는것이 신기하기도 하였고 또 그것이 본래 레사로운 상태인것같이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팔월도 보름이 가까운 어느날이었다.

말복을 갓 지난 한 여름의 피약별이 따갑도록 내려져서 학교구내의 아스팔트를 엇판같이 녹여 놓았다.

복습을 마치고 명희는 졸업반담임모임에 참가하고있었다.

교무실에서 명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알려주어 명희는 회의를 잠깐 멈추게 하고 급히 교무실로 달려갔다.

수화기를 드니 뜻하지 않던 정규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이때까지 학교에 전화를 걸어온 일이라고는 한번도 없었던 정규였다.

(웬일일까?)

나가노에서 걸어온 전화인가 여겼었는데 도표에 돌아와있다는것이였다.

어떻게 된 셈이냐고 묻는 명희더러 정규는 사정은 만나서 이야기할테니 사업이 끝나면 바로 언제나 만나던 그곳으로 오라는것이였다.

(합숙은 예정대로이면 아직도 보름은 남아 있을것인데... 사정이라니 무슨 사정일까? ...)

그러나 명희는 정규를 만난다는것이 기뻐다.

(무슨 대수로운 사정이 있을까... 혹 중간휴식을 받아왔거나 무슨 자료를 가지러 온김에 만나자는것일지도 모르지뭐.)

명희는 회의를 마치고 달리다싶이 정규를 만나러 갔다.

정규는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명희는 그의 표정이 창백한데 우선 놀랐고 그 어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섬찝했다.

《어떻게 되셨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아니, 나는 별일 없소... 한데 아버지가 야단났소.》

정규가 무거운 입을 열고 그답지 않게 떠들떠름 이야기하였다.

그의 부친은 나이가 일흔에 가까왔다. 혈압이 높아서 늘 신고하면서도 식당일을 보아왔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의 혼사가 결정되고 하여 마음을 놓아 그런지 오래동안 마시지 않던 술을 또 마시기 시작하더니 엇그제 밤에 갑자기 뇌일혈을 일으켜 쓰러졌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위낙 고령이다보니 움짙 못하는 몸이 되고말았다.

《년세가 많으시니...》

정규는 사뭇 침통한 얼굴이다.

《어머니 혼자서는 식당문을 열어놓기도 어려운데 아버지 시중까지 들어야 하니... 정말 이젠 야단났어요...》

명희도 이야기를 듣고보니 어안이벙벙하였다.

《그래 지금 아버님은 홀로 병원에 누워계시나요?》

《네, 출가한 누이동생이 지금은 병원에도 가고 식당일도 도와주고 하는데 남의 집에 일단 출가한 사람이 자기 몸에 달린 애도 있고 그리 장기간 와있을순 없지요... 그러나 걱정은 마오...》

《하시던 집필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좀 늦어지지만 해낼테요.》

정규는 창백한 얼굴에 그 어떤 결심을 가다듬고 있는것 같았다.

명희는 그날밤 집에 와서 그 이야길 하였다. 다음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규의 누이는 명희를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반가와하였다. 명희의 부모들과 오빠도 오전중 문병왔다가 돌아갔다고 하였다.

명희는 무어라고 할 말이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명희는 정규에게 집사정이 곤란은 하지만 시작한 집필을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정규도 그것이 옳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나가노로 떠났다.

정규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밤 두시, 때로 새벽 4 시까지의 식당영업을 지탱할수는 없었다. 자연 식당은 11시, 12시에 문을 닫아야만 하였다.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뿐만아니라 밤중에 정해놓고 드나들던 손들이 다른 식당으로 옮겨가 고객이 줄어들었다.

반대로 병원의 비용은 엄청났다. 정규의 결혼식에도 돈이 들것이었다.

정규의 어머니는 공공 앓다가 다시 또 식당 문닫는 시간을 늦추었다.

론문작성을 마치고 정규가 돌아왔다. 예정보다 2~3일 일찍 끝내고 돌아왔다.

정규는 불과 한 열흘동안에 자기의 주변이 급변한데에 저으기 놀랐다. 어머니는 더욱 얼굴이 앙상하여지고 거칠어져보였다.

그는 일터에서 돌아오기가 바쁘게 자기도 팔을 걷고 식당에 나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걸 그리 탐탁히 여기지 않는 눈치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들고 즐라대었다.

《야야, 어차피 내 사람이 될걸 뭘 그러느냐... 니 식당에서 접시 씻으라고 대학 보내지 않았다.

니 장사하라고 총련일군 시킨건 아니다. 사내자식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거 무슨 꼴이냐... 후유 - 이내 간장이 다 녹는다... 이왕 우리 집 사람이 될터인데...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성례를 앞당겨서 나하고 같이 식당일 보라고 해봐라, 니 하나 일군 만드는데 평생소원으로 살아온 애비 에미의 심정을 니가 어찌 그러도 모르느냐...》

어머니는 가슴에 매달리다싶이하여 간절히 사정 하였다.

《...》

정규는 말이 없다.

《그래도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힘드는 일을 도맡아서 다 해주셨으니 밤 2 시가 아니라 온밤 새도록 문을 열어놓아도 괜찮았는데... 혼자서 하려니 어데 해낼수가 있어야지, 사대륙신이 다 녹아나는구나... 이러다가 니 대사 치르기전에 두 초상을 한꺼번에 치르겠다... 후이...》

어머니는 땅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근심이 깊이 새겨진 어머니의 얼굴을 정규는 차마 바로 볼수 없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근심과 로고를 당장 풀어줄 묘한 궁리도 나지 않았다.

말없이 눈을 떨구고 아래를 내려다보고있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어머니는 달래다싶이 말하였다.

《...그 사람 학교일 그만두라고 하면 안되냐? ...》

아들은 눈을 들었다.

《안돼요! 그것은 안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그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자 이내 외면해버렸다. 그는 서글프다는듯이 혀를 끌끌 차며 한탄하였다.

《아들자식 두어봐야 클 때까지 크고나면 다 헛일이라니까...》

《...그래도 명희동무는 학교교원을 오래 해왔는데 그리 간단히 그만둘수 있어요? 그 동무자신의 희망도 있는거고 학교사정도 있을거구...》

그러나 정규의 말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서두 너 자란 출가하면 시가일을 잘 봐야지... 남정네들같이 바깥일이나 잘해서 무얼 하게... 니가 하두 좋아라고 자빠지고 얻어지고 세상없이 마음을 쏟아부으니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난 애당초 너무 똑똑한 며느리 귀찮았다... 내 그전부터 말하지 않더냐. 똑똑한 너자 똑똑한 값을 하고 인물 잘난 너자 인물 잘난 값을 한다고... 며느리감으로 는 그저 수수한 들앓은 처녀가 좋지만...》

《어머니두 참... 그 동무 허물은 마시우. 학교사업만 해두 고달플텐데...》

《넌 벌써부터 그 사람만 귀타 하고 이 에미 입을 막으려드는구나... 그 사람 고달픈줄은 그리도 잘 아는데 이 에미 팔다리가 부러져도 그것은 왜 모르느냐...》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모자는 입을 다물고 외면하여 돌아앉았다.

한참 있다가 정규가 사정하듯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어머니, 인제 들어가십시다. 피곤하실테니 주무셔야지... 자고나면 또 무슨 좋은 수가 생길는지...》

《야야, 거기 앉아라. 내 말 좀 들어주렴.》

《.....》.

《내 말이 좀 과하긴 했다... 니 말대로 그 사람이 내 보기에도 사람은 참 용터라... 그런 용한 사람이니 우리 사정도 알아서 말을 들어줄지 누가 아나... 한번 얘기를 해보거나 해보아라.》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려고 감정을 억지로 죽이고 아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조

심스레 말하였다.

《그런 말은 내 입으로는 할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집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은 너자라도 의지와 재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수 있는 세상인데... 하물며 그 일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우리 애국사업인데...》

아들의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거치르게 의자를 치우고 랭풍기스위치를 끄고 식당문을 열고는 힘 나가버렸다.

정규가 식당의 덧문을 닫고 집에 돌아갔을때 어머니는 벌써 자고있었다.

다음날부터 어머니는 식당문을 열지 않았다. 밥도 짓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 정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동자를 하였다.

병원에서 아버지시중을 들고있던 누이가 시가에 돌아가야겠으니 교체해달라고 성가시게 졸라대었다. 큰누이도 정규를 나무랐다.

명희는 어머니마저 앓아눕게 된 정규네 집사정을 생각하여 몰래 가슴을 태웠다.

정규가 요즈음은 만나도 말수가 적고 집일을 물어도 《뭘, 별일 없소. 그리 걱정할건 없소.》하는 말밖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고 우울하게만 보였다.

명희는 정규의 처지를 심분 이해하였다. 그 집의 딱한 사정을 생각한다면 명희자신이 좀더 도와드려야 하지 않느냐고 그는 생각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학기간만이라도 복습만하고 그 집일을 봐드려야 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니 최악의 경우 지금 담임하고있는 졸업반 학생들만 졸업시키고나면 그 집 부모의 건강이 회복될때까지 오는 4월부터 당분간 휴직하여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명희와 정규는 그 주 토요일저녁 다방에서 만났다.

명희는 밝은 불빛아래 마주앉고보니 수심이 가득 어린 정규위 모습에 가슴이 막혔다.

《아버님 병센 좀 차도가 있어요?》

《예...》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

《어머니야 뭐...》

명희는 자기 속에 생각하고있던 말을 꺼낼 심머리를 잃어버렸다.

《.....》

《.....》

둘은 날라다놓은 차가 다 식을때까지 묵묵히 앉아있었다.

《저...》

이윽고 정규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듯이 입을 뗐다.

《저, 결혼을 구월에라도 앞당겨 할수는 없을까?》

정규는 탁자위에 있는 성냥갑을 만지작거리며 명희의 눈을 피하듯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예? 구월예요? 래년봄에 날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자면 동문 이 방학중에 학교에 이야기를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후임문제도 제기해두어야 할게요.》

정규는 명희의 물음에 대답할 여유도 없는듯이 이까지 무뚝뚝하니 말하였다.

《그건 또 왜요?...》

명희의 물음에 그제사 정규는 《나로서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는 안됐지만 우리집 형편으로서는 결혼한후까지 학교일을 계속한다는것은 불가능하지 않소...다른 리유야 어디 있소...》 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규가 오늘은 결심을 단단히 하고 온 모양이었다.

명희는 아연하여 이윽도록 정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배반당한것 같은감이 들었다.

그전의 열정적인, 리상에 불타던 정규와는 너무나 판판이었다. 웅크리고 앉아 한숨만 쉬고있는 정규의 꼴이 나이먹은 로인같이보였다.

정말 의외였다.

정규네 집사정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응당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기때문에 명희자신도 오늘까지 어떻게 하나 도와줄 방도를 찾아 모대졌고 앞으로 학교를 일시 휴직할 일까지 생각하지않았는가. 자기들 둘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업을 계속하자고 - 그렇게 내놓고 결의다짐을 한것은 아니지만 - 주고받는 이야기속에서, 그때문에 서로 인연이 맺어질수 있었다고 인정해온터였다.

둘은 또 그때문에 결혼이 서로 이날까지 늦어진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땀땀하게 생각할수 있었던것이다.

두사람의 짧은 교제가 그저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약혼중의 짧은 남녀의 달콤한 속삭임에만 몇지 않은, 더 열매있는 사업과 생활에 대한 다짐으로 되고 부추김으로 되고 량식으로 된 거기에 은근한 자기만족도 있었던것이다.

그것이 다 헛말이었단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명희만의 생각이고 정규자신은 그저 그때 그때 너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입에 발린

소리였단말인가?

《...남자인 내가 사업을 중단할수는 없지 않소... 나도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고민이 많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오. 그러니 동무가 리해 해주어야 할게 아니요.》

그러나 정규의 말소리는 명희의 머리속에서 공허하게 웅웅거릴뿐이었다.

《.....》

《.....》

다시 침묵이 흘렀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것은 짧은 시간갈기도 하였고 꽤 긴 시간인것 같기도 생각되었다.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규는 더 무어라고 말하려다 말고 명희를 따라나왔다.

5

팔월중순을 지나서 명희네들 졸업반담당교원들에게도 3~4 일간의 휴가가 차례졌다.

명희는 방학간에 졸업반학생들의 작품집을 만들려고 모아두었던 학생들의 수기요, 수필이요, 감상문이요, 시, 가사 등 작품들을 휴가중에 집에서 검열하고 고칠 작정으로 한보자기 싸들고 교원실을 나섰다.

《그건 또 무얼 하려고 들고 나와? 괜히 가지고 가지? 그걸 볼 틈이 어데 있을라고... 그 동무하고 만나자고 약속했었는데... 남의 눈가림하려고 그러지...》

경숙이가 따라나오며 빈정대놓고는 제탄에 우스워라고 까르르 웃었다.

《아이, 경숙선생도 참...》

명희는 아무 일 없듯이 경숙의 룡을 받았으나 마음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찬물로 손발과 얼굴을 씻고 2 층방 책상앞에 앉았으나 보자기를 끄르는것조차 귀찮게 여겨졌다.

온몸이 나른하고 판자노리가 쑤시듯 아팠다.

그는 방석을 깔고 드러누웠다.

요사이 그는 입맛이 갑자기 푹 떨어졌다.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어머니는 그런 명희를 보고 더위를 타서 그런가부다고 명희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 추어탕을 끓인다 찬국수를 만든다 하며 애를 썼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지부에 부탁하여 조선 특산물회사에서 샀다면서 인삼탕을 두병 사다주었다.

시집보내야 할 막내딸의 몸을 걱정하여 애쓰는 로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니 명희는 가슴이 막혔다.

그래 억지로 밥을 몇술 뜨지만 마치 모래를 씹는듯하였다. 무슨 음식을 먹어도 소태같이 쓰기만 하였다.

(이 결혼이야기가 파혼이 되는 날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어쩌면 그때문에 앓아누우실는지도...)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견뎌낼테니 고쳐 생각해달라고 그 동무한테 한번 더 부탁해볼까?)

(아이 참, 그 동문들 자기 집일인데 오죽 생각했을까... 그러면? ...)

(내가 학교를 이 구월에 그만둔다? 그게 될말이라구...)

(그러면 어쩌단?)

(아버지, 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너자신의 문제가 안야? 이 구혼을 만약 거절한다면 이제 영영 결혼을 못할지도 몰라. 너 나이 몇살인줄 알어?)

그렇게 꽤도 좋아? 앞으로 30 년이고 40 년이고 늙어죽을 때까지 홀로 살아갈 자신이 있어?)

자문자답을 거듭하다가 명희는 갑자기 가슴속에 찬바람이 스치는것을 느꼈다.

별안간 손아귀에 정규의 손바닥의 따뜻한 감촉이 되살아났다. 그의 후리후리한 몸매며 인정이 넘치는 우묵한 눈, 머리카락이 이마를 가리운 얼굴모습이 떠올랐다. 가슴이 저리도록 정규가 그리웠다.

날이 갈수록 정이 든 그였다. 사귄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그였다. 더욱 최근에는 그의 가정사정으로 하여 리상과 현실의 질곡속에서 고민에 싸여 모대기는 그를 볼 때면 인간으로서의 그를 발견한듯 하여 더욱 정겹게만 느껴졌다.

명희는 혼자생각에 지쳤다. 눈을 감고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한참 있다가 멍하니 눈을 떴다.

책장 맨 옷단에 꽂혀있는 두툼한 사진첩이 눈에 띄었다. 꽂아만놓고 오래동안 펴보지 않던 사진첩이었다.

왜 그런지 그 사진첩이 무척 그림계 느껴졌다.

그는 부시시 일어나서 그 사진첩을 빼들었다.

책상우에 그것을 놓고 펼쳐보았다. 사진들이 그동안 변색하여 아주 옛날의 사진같은 인상이었다.

한장한장 더듬어가니 학생시절에 있었던 이 일저 일이 견잡을수없이 샘물처럼 가슴에 용솟아올랐다.

그리운 동무들의 얼굴, 얼굴, 얼굴...

명희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님을 사
이도 없이 사진첩우에 굵은 물방울이 똑 떨어졌
다.

말할수 없는 서러움이 명희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책상우에 엎디어 한참동안 울었다. 웬 눈
물이 그리도 흔한지 자꾸만 솟구쳐올랐다.

이윽고 명희는 울음을 거두고 몸을 일으켰다.

사진첩을 접으려고 하는데 누런 봉투에 든 편
지 한통이 떨어졌다. 재작년에 현옥이한테서 받
은 편지였다. 아마 편지를 받고 반가운김에 사진
첩을 펼쳐보다가 그냥 편지마저 사진첩에 끼워
둔 모양이다. 현옥이와 학교시절에 둘이서 찍은
사진도 편지와 함께 떨어졌다.

현옥이... 초급에서 대학까지 늘 같은 학교에서
배우던 명희의 가장 친한 벗이었다. 함께 조선
어학연구소조에서 활동하였고 졸업후에는 그 회
망대로 언어학연구소에 배치되었으나 오사카에서
일하는 일군과 결혼하여 그리로 갔었다.

결혼하기직전에 만났을 때는 어데 가더라도 총
련 조직은 있는것이니 자기가 배운 어학지식을
살려서 일할것이라고 하였고 편지도 서로 자주
하자고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면 처지도 달라지
는것인지 처음에는 그래도 이따금씩 편지도 오갔
는데 최근은 통 소식불통이었다.

2년전에 온 이 편지가 저쪽에서 온 마지막것이
였다.

명희는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두 아이의 성장모습이 현옥이다운 극명한 필치
로 적혀있었다.

한때는 남편의 애국사업을 돕는것도 중요하
고 자기를 납득시키고 가정에 들어갔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낀 때도 있었으나 날이 감에 따라 자
기가 일본에서 살면서 조선대학을 졸업한 의미는
파연 어데 있는가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있다는
것, 최근에는 무엇이건 해야겠다고 스스로 성인
학교 강사도 맡아하고있지만 그것으로 자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것, 그렇다고 결혼당시의 자신
에게 어떤 길을 택할수 있었던가를 생각하니 현
재의 길외에 달리는 택할 길이 없었다는것, 당
시 자기로서는 자기의 전공을 위해 현재의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는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는것... 자기는 이왕 이렇게 됐지만 명
희만은 초지를 뚫어 학교시기 기른 포부를 실현
해달라는것 등이 적혀있었다.

명희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당시 어떤 회답을
써보냈는지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래도 현
옥이가 두 아이를 거느린 어머니로서 가정의 부
담에 짓눌려버리지 않고 성인학교 강사라도 맡아
나섰다는것이 반갑고 다행으로 생각되어 격려를

해준것만이 떠올랐다.

그는 별안간 현옥이가 야속하게 생각되었다.

(저는 좋아하던 상대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둘씩이나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구서 남에
게만 학교시절의 포부를 실현하라구, 어데 그런
럼치없는 말이 있담...)

명희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사진첩을 접어 한옆에 밀어두고 학교에서 들고
온 보자기를 당겼다.

그는 자세를 고쳐앉아 학생들의 작문몽치를 책
상우에 얹었다.

그는 학생들의 글을 고쳐주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글은 아주 소박하였다.

어떤것은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또 어떤것은
조청반사업에 대한것을 썼다. 어떤 학생은 일가
가 모두 총련사업을 하는 일군가정이라는 자랑을
적었다.

어떤 학생은 조국을 방문하여 난생처음 아버지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계시는 조국의 대지를 밟
은 그때의 감동을 격조높은 어조로 토로했으며
또 어떤 학생은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과
그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정론조의
시를 썼다.

학생들의 글에는 가식이 없었다.

학생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쓸모있는 일군이
될것을 진정으로 결의하고있었다.

(얼마나 장한 일인가. 일본에서 나서자랐는데도
이 학생들의 몸에 약동하고있는것은 조선의 녀
이다...)

그는 자기의 마음도 씻기우는것 같은 상패함을
느끼었다.

명희는 저도모르게 학생들의 작품세계에 끌려
들어 문장을 고쳐주는것도 잊고 읽는데 열중하였
다.

(이 천진한 학생들을 나는 조국과 민족앞에 책
임지고있다! 교육사업은 혁명사업이다.)

명희는 자기가 교육자이고 많은 학생들을 거느
리고있다는 자각이, 자랑이 슬막힐듯한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여 심장을 내리누르는것을 느끼
었다.

정애의 얼굴이며 자기 반 학생들 하나하나의
얼굴, 자기가 국어를 가르치고있는 학생들의 얼
굴이 머리속에 떠올랐다가는 사라지고 다시 떠올
랐다가는 사라지고 하였다. 가슴이 저리도록 그
들이 사랑스럽고 그리웠다.

(수백명, 아니 수천명, 수만명 앞으로의 세대들
을 말아 교양하는 교육일군으로서 나는 너무나
용졸하고 나약하지 않았던가?)

명희는 갑자기 일어난 결혼문제로 하여 자기
일신상문제로 급급해온 이 수개월동안을 돌이켜
보았다.

그는 예상치 않던 곤난앞에서 흔들리고있는 정

규를 따라 주전없이 흔들리고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거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나선 일군의 품모는 간데 없고 한갓 개인의 행복을 쫓아 아득 바득 매달리고있는 초라한 자기가 있었다.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것은 그 어떤 순종이나 동정이 아니라 곤난을 맞받아나가려는 의지와 용기가 아닌가... 그런데 나는...)

물론 교육일군도 사람이다. 그러나 교육일군은 어디까지나 교육일군이다.

그 다음 토요일저녁, 명희는 정규와 언제나 만나던곳에서 만났다.

그들은 어느때와 같은 경로를 거쳐 명희네 집 가까이에 이르렀다.

정규는 명희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토로 하면서 자기에 대한 명희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였다.

명희는 말하였다.

《우리 총련일군이 일본이란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찌 곤난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물러선다면 차례지는것은 패배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녀자들이 다 곤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무에 대한 저의 마음은 추호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

과 사업과 둘중 꼭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기어이 말씀하신다면 사업을 택할수밖에 없어요. 녀자라고 교육자된 사회적책임이 남성들보다 가벼울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녀자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맡고있어요. 전 다만 동무가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당초에 다짐한대로 함께 곤난을 이겨내자고 일러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부터 간절히 바랄뿐이에요. 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가로등의 불빛이 명희의 모습을 더없이 아름답게 드러내놓았다.

정규의 얼굴에 깊은 자책과 뉘우침이 어리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커다란 감동으로 바뀌어졌다.

《고맙소, 고맙소 내가 잘못 생각하였소, 그렇소. 내가 잘못 생각하였소... 명희동무!》

정규는 열띤 소리를 내며 명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명희의 가슴에도 영문 모를 감동이 치받쳐올랐다. 뜨거운것이 불을 타고내리는것을 그는 느끼었다.

한여름의 더위대신에 스며든 시원한 바람이 명희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마분지	판종이
마스트	돛대, 기중기대
마찰	쓸림
마찰력	쓸림힘
마찰음	스침소리
마치중	(말) 이발중
마후라	목수건, 머리수건, 목도리
마이짱	맞걸개
막간	막사이
막간극	사이극
막론하고	...할것없이, 가리지 않고...
만곡	굽음
만난	모든 난관, 모든 어려움...
만년설	만년눈
만단의	빈틈없는~, 물셀틈없는~...
만발하다	활짝 피다, 활짝 꽃피다, 활짝 피어나다
만부하	찬짐

본래말	다듬은 말
만사	모든일, 온갖일
만성간염	끄는간염
만숙종	늦종
만조	참물,참
만조위	참물높이
만재	가득실음
만월	보름달
말단세포	끝세포
머리핀	머리꽃이
면담하다	만나 이야기하다
면사	목화실
면전에서	앞에서, 눈앞에서, 맞대고
면회하다	만나보다, 만나다...
면회장소	만나는곳
명년도	다음해, 오는해...
명란젓	명태알젓
명멸하다	깜빡이다, 껌빡이다, 깜벅거리다, 껌박거리다

우리 시문학의 서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리수립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노래를 하나 지어도 어디까지나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하는것은 혁명적시문학의 본성과 사명으로 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며 현실발전과 인민대중의 장성하는 미학정서적요구로부터 출발하는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의 혁명적시가문학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념원과 의지, 신념을 비롯한 주도적인 감정들을 서정화하여야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서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우리 시문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나감으로써 맡겨진 혁명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으로 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이 풍부한 서정성에 있다는것을 심오히 밝힘으로써 시형상의 근본문제에 명확한 해명을 주고 있다.

풍부한 서정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시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바로 여기에 현시기 서정시문학이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시대적사명을 다할수 있는 기본고리가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가사에 시가있다는것은 정서가 있다는것을 말한다고 밝히면서 가사를 시화한다는것은 세련된 시형상속에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서가 풍부하게 흘러넘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여기에는 시적인것, 즉 서정성의 본질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시의 서정성, 그것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시인의 강렬한 정서가 세련된 시형상에 집약되어 이루어지는 서정시에 고유한 형상적특성이다.

서정시는 자기의 형상성전반을 높이는 중심적인 고리를 서정성에 둔다.

서정성을 높이는 여기에 시문학의 사상적높이와 철학적인 깊이를 보장하는 문제도, 서정적주인공문제도 그리고 감정조직과 운률및 언어에 관한 문제들도 다 함께 련관되어있다.

시문학이 사람들의 심장에 깊이 파고들어 감정을 앙양시키고 심금을 울리는 힘은 혁명적서정에 의한 시의 정서적작용력에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인들이 현실을 체험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현실에 대한 강렬한 체험과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정서적탐구, 서정적인 형상을 위한 기교와 노력은 서정성의 본질로부터 출발한 서정성제고의 기본방도들이다.

시인들은 이 기본고리들을 철저히 해결하여나감으로써 주체의 행군길을 다그쳐가는 우리 시대를 한가슴에 안고 현실을 불태울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풍만한 정서를 받아안으며 세련된 기교로 시작품을 꾸리어 서정적형상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수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시인의 립장으로 부터 생활탐구의 방법, 시적기량의 준비 등 창작활동의 기본고리들에서 원칙적방향과 방도들을 빛나게 밝혀주고 있다.

1

우리 시문학에서 서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현실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야 하며 투쟁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볼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한편의 시로써 천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고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곳에서도 적들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는 혁명적시가의 예리하고도 위력한 무기는 오로지 시인의 불타는 심장의 도가니에서만 버려낼수 있다.

시적체험의 강렬성과 그로부터 출발하는 시인의 불타는 열정은 풍부한 서정성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열정은 시형상에 사상의 높이를 주고 감정의 활력을 부여주는 원천이며 시적사색과 환상의 나래를 펼쳐주는 동력으로 된다.

열정은 또한 감격에 북받쳐 스스로 노래를 터치게 함으로써 감정의 진실성을 담보하며 감정의 저조성과 인위성을 자취없이 사라지게 한다.

시적열정, 그것은 시인의 심장에서 타오르는 숭고한 사상과 정신의 불길을 의미하며 생활에 대한 뜨거운 애정의 불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강렬한 체험과 열정은 시인이 간직하게 된 숭고한 사상이 생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로 합쳐 심장의 불길로 타오를 때만이 이

루어질수 있다.

하기에 시인은 강렬한 체험을 위하여 언제나 인민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하며 생활을 대하여야 한다.

인민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하나로 합치시키는 것처럼 높은 자각을 가진 시인에게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슬픔과 기쁨, 투쟁과 보람, 통털어 그들의 모든 감정이 자신의것으로 안겨오게 되며 강렬한 체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시인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나서는 헌신의 열정을 불태우게 되며 현실이 제기하는 인간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온 뉘을 기울여 사색하고 탐구하는 불타는 지향을 간직하게 된다.

인민의 운명에 자신의 삶을 합치고 그들의 앞장에서 자주적인 인간문제와 해답을 탐구해나가는 이처럼 높은 자각과 불타는 지향은 우리 시대의 선구자인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사상정신세계와 통하고있다.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의 심장에서, 전문적인 시인도 아닌 그들의 가슴에서 빛나는 혁명시가들이 스스로 태어나 세상에 전해지는것을 어찌 우연한것이라고 하겠는가.

조국의 해방을 위한 눈보라만리길과 미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 전호가에서 탄생한 시가들은 오로지 혁명과 조국을 위한 일념으로 가시덤불길과 전화속을 헤치고 넘은 혁명투사, 애국자의 숭고하고 열렬한 심장에서 태어난 빛나는 노래들이었다.

시인들은 자신의 정신적자세를 혁명투사, 애국자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뜨겁게 받아안은 문제도 현실에 대한 강렬한 체험의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시인들이 현실을 강렬히 체험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현실에서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체득하는것이다.

주체형의 새 인간들, 특히 숨은 영웅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체험하는것은 시인들이 우리 생활의 본질적특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당하게 파악하는 기본담보로 될뿐아니라 현실에 대한 체험의 열도를 강화하는 생활적기초로도 된다.

그것은 현실에서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정서를 찾아내고 그에 매혹되며 격동되지 않고서는 시인의 열정이 결코 강렬하게 불타오를수 없기때문이다.

오늘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생활속에서 느끼며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이 날을 따라 보편화되는 우리 생활의 흐름을 심장으로 파악할 때라야 전진하는 현실의 위대성과 그 휘황한 앞날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수 있으며 현실을 긍정하고 옹호하는 뜨거운 열정에 복받칠수 있다.

이것은 시문학에서도 인간학의 요구에 따라 생활체험을 깊이하며 우리 시대의 새 인간을 찾아내고 그들의 정신세계의 미를 받아들이는데 모를 박음으로써 현실을 더욱 뜨겁게 느낄것을 요구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조선은 싸운다》(조기천), 《이 사람들속에서》(김조규)와 같은 좋은 서정시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나온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오영재),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정서촌)와 같은 성과작들의 바탕에는 해당한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새형의 인간들의 정서세계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체험과 열정이 놓여있는것이다.

우리가 만약 현실에 대한 시적체험의 이 중심고리를 틀어쥐지 못한다면 인상적인 계기나 탐색하면서 생활을 유람식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경향에 빠질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실을 피상적으로 느낄수밖에 없고 기껏해야 자연풍경이나 생산정황을 분위기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칠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우리는 인민의 운명에 대한 높은 자각과 책임을 지니며 숨은 영웅들의 정신세계에 자기의 심장을 합침으로써 생활을 더욱 강렬히 체험하여야 한다.

시인은 현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높이 세워야 할뿐아니라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생활을 정서적으로 파고드는것은 현실의 본질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시적전형화의 선결조건이다.

생활을 정서적으로 파고들지 않고는 시적인 종자를 잡아칠수 없으며 그것을 서정적인 형상으로 꽃피워 풍만한 정서가 넘쳐나게 할수 없다.

생활을 정서적으로 파고드는것은 시의 참다운 사상적깊이, 철학성을 보장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시의 서정성도 사상성도 모두다 생활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서의 깊이에 의해 담보된다.

생활에서 받은 구체적인 느낌을 생활의 본질을 체현한 정서가 되도록 깊이 추구하여들어가는 여기에 시의 정서적열도와 사상적심도를 해결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

이것은 사상을 개념적으로,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현상, 생활을 떠나 허황하게 노래하는 현상, 류형에 얽매이는 현상 등 시의 예술적형상성을 가로막는 온갖 그릇된 경향들을 뿌리뽑는 투쟁의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생활을 정서적으로 대하는것은 생활에 대한 정서적탐구의 첫공정이다.

생활을 정서적으로 대한다는것은 생활의 체현상을 섬세하고 참신한 느낌속에 받아들이는것을 말하며 생활현상을 예민하게 감수하면서 감정을 생활적으로 조성하여나가는것을 의미한다.

시적감정은 언제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섬세한 감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생활에 대한 예민한 느낌은 언제나 시인의 주정속에 마무리져야 시적정서를 이룰수 있다.

시인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사회의 현상들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파고들면서 그 모든 생활현상의 특성을 개성적이고 비반복적인 느낌으로 받아안고 표현할줄 알아야 한다.

서정시 《나의 조국》은 조국이라는 큰 내용을 시에 담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생활적인 표상들을 여러모로 찾아내었으며 그것을 섬세하고 참신한 생활적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생활에서 받은 예민하고 풍부한 느낌들이 하나로 어울려 조국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세계를 조화롭게 이룬 점에 이 시의 정서적파악의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 시에서는 동구밖 오리나무숲의 정겨운 설레임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녀인들의 웃음 소리도 지어 송아지때 물을 뜰 언덕을 넘어 지출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마저도 들려온다. 그리고 다심하신 고향어머니와 모래볼에 함께 덩굴던 어릴적동무들의 모습이며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고향마을처녀의 그윽한 눈길도 어리어있다.

어찌 그뿐이라.

조국땅 한줄흙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투쟁의 길을 떠나갔으며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며 심장의 땀을 다지였던 항일의 투사들, 두팔가득 조국땅을 그려안고 조국보위의 성전에 목숨을 바친 청년들의 숭엄한 모습도 안겨있다.

자기의 고유한 소리와 색깔, 그윽한 향기와 섬세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특징적으로 포착된 이 생동한 시적화폭들에는 시인의 구체적인 감정, 다시 말하여 조국을 두고 느끼는 그 그림고 정다우며 끝없이 살뜰한 감정이 절절하고 풍만하게 넘쳐흐르고있다.

승고한 애국심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특징적인 생활들을 섬세하고 참신한 느낌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상의 알맹이를 커다란 정서적감동으로 안겨주는 여기에 이 시의 정서적감화력의 원천이 있다.

시인들은 예리하고 개성적인 감성을 가지고 생

활을 대하여야 할뿐아니라 그 섬세한 느낌에 기초하여 생활속에서 정서적인 계기를 바로 찾아내어야 한다.

정서적인 계기란 시적정서의 진실성, 충만성을 담보해주는 생활의 정서적인 매듭이다.

시인들은 생활속에서 시대의 정신이 산인간의 정서세계로써 자연스럽게, 풍만하고 조화롭게 노래되어나갈수 있도록 형상적으로 담보해주는 선택된 정서적매듭을 잡아야 하며 그것을 실마리로 잡고 감정을 풀어나가면서 서정세계를 펼쳐야 한다.

만약 생활속에서 정서적인 매듭을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고 사회적인 현상이나 미담적인 사건에 흥분하여 그것을 그대로 시의 정황으로 제시하면서 직선적으로 노래해나가려 한다면 거기서는 필경 생경한 웨침이 나올수 밖에 없고 극적인 사건이 주는 느낌을 그대로 서정인듯이 내세우는 결과를 가져올수밖에 없다.

시적계기를 형상의 표면에 드러내는 시나 그렇지 않은 시거나를 막론하고 서정적형상이 감정의 진실성, 충만성을 담아내기 위하여서는 시인에 의하여 정서적인 계기가 명확히 파악되고 시가 시작되어야 한다.

정서적인 계기를 찾아주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시인들이 언제나 산인간들의 생활감정에 깊이 잠기는것이며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건들을 구체적인 생활정서로써 파악하면서 거기에서 인간감정이 서정적으로 풀려져나갈 최초의 매듭을 골라내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이다.

뚜렷한 정서적계기를 골라쥐는것이 풍부한 서정성을 위하여 가지는 관건적의의는 단일한 생활적계기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서정을 펼치는 류형의 시들에서 명확히 찾아볼수 있다.

《창밖에 비가와도 눈이 내려도》(김석주)나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가도》(구희철)는 이 점에서 좋은 경험을 준다.

창밖에 비가 오고 눈내리는 곳은 날씨면 사람들은 흔히 길을 떠난 귀중한 사람들의 신변을 먼저 생각하고 그 여행길을 걱정하게 된다. 이것은 생활에서 보편화된 인간심리의 구체적인 움직임, 다시 말하여 일상적인 생활감정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체험하는 자연스러운 생활정서에 발을 붙이여 계기를 잡고 그것을 심화시켜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가 한결같이 느끼는 시대적인 감정을 서정적으로 펼쳐줌으로써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는 감정의 자연스러움과 진실성, 그 충만성과 절절함을 얻을수 있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험한 령을 모두다 넘으시며 한 평생 인민 위해 눈비를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목메여하는 이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인간감정의

발로속에서 친근하게, 가슴깊이 안겨들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경사스러운 밤, 차마 잠들수 없어 창문을 열어젖힌 시인, 이날따라 맑게 개인 밤하늘엔 별무리들이 찬란한 빛을 뿌리며 속삭이듯 굽어보는데 시인은 스스로 그 별무리들과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눈다.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가도》)

마음속에 그윽한 감정이 차고넘칠 때 우리 사람들은 예로부터 맑고 뜨거운 심장의 문을 열어 밤하늘의 별들과 더불어 속삭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하고 세여가지 않았는가, 이것은 생활에 뿌리박은 감정표현의 좋은 매듭이다.

정서적계기의 탐구가 없이 어찌 우의 두 시편들의 풍부한 서정성, 사상에술적성고가 담보될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생활에 대한 정서적파악이 시인의 섬세한 정서적감수성에서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정서적인 계기를 명확히 틀어쥐는데서 나타나는 생활에 대한 정서적탐구과정이라는데 대하여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생활을 정서적으로 파악할뿐 아니라 그 정서를 깊이있게 파고들어야 한다.

서정성의 탐구는 참신한 생활정서를 명확히 틀어쥐는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생활이 준 정서적감흥은 반드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그러한 느낌의 정수로 이루어질 때까지 깊이있게 탐구되어야 한다.

인간의 심리세계를 정서적으로 깊이 추구하는 이 과정은 생활정서적인것을 시대정신의 조명우에서 가장 본질적인것으로 세련시키는 과정이며 정서와 사색, 감성과 지성을 하나로 융합시키면서 인간감정을 승화시키는 창조의 과정이다.

섬세하고 풍부한 생활정서의 깊이에서 숭고한 인간정신의 빛발이 뜨겁게 뿜어질 때라야 우리는 참다운 서정성에 대하여 말할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혁명적서정의 마를줄 모르는 깊은 샘에 이르렀다고 할수 있다.

진정으로 서정적인 시가 진정으로 깊이있는 시로 되는것은 합법칙적현상이다.

이것은 시의 철학성이 본질에 있어서 정서의 깊이로부터 흘러나오는것임을 말하여주며 그것이 어떤 철학적인 경구의 기계적인 첨가나 까다로운 논리를 주관적으로 전개하는데서 달성되는것이 아님을 가르쳐준다.

물론 양상의 견지에서 시형상을 상대적으로 보다 정서적인것과 보다 철학적인것으로 나눌수는 있다.

그러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에 뿌

리 박지 못한 시의 서정성과 정서적인것으로써 파악 되지 못한 시의 철학성이란 있을수 없다. 정서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높은 지성과 웅심깊은 철학성은 특히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자주성을 지향하여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적품모의 요구로써 현대서정시의 시대적양상을 이루고있다.

생활이 주는 정서적감흥을 높은 지성에 기초하여 깊이있게 파고들기 위하여서는 시인들이 창작적사색과 환상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쳐야 한다.

시인의 목소리인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깊이를 가지려면 응당 거기에 시인 개인의 느낌만이 아닌 수천만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이 안겨오는 시대적정서가 흘러넘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색의 넓고 깊은 바다를 헤쳐나가는 탐구의 노력이 요구된다.

시인에게 요구되는 창작적사색이란 정서적인 사고의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생활감정의 본질을 탐구하여들어가는 철학적인 깊이를 가진 사색이다.

창작적사색의 이러한 철학적심도는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서정을 탐구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으로 절실하게 나서고있다.

우리의 시문학은 오늘 시대가 제기하는 거창한 주제들을 새시대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노래하여야 할뿐 아니라 독창적인 분석과 개성적인 목소리로써 당의 로선과 방침을 열렬히 옹호하고 그 관철으로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야 할 당적사명을 지니고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서정이 시인의 이른바 《자체표현》만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시대적인 폭과 사상정신적높이와 혁명적량만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시의 감정을 이러한 혁명적인 시대감정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철학적인 깊이를 가진 창작적사색으로 생활감정을 파고들어야 한다.

깊은 철학적사색으로 안받침되지 못한 시는 필연적으로 비본질적인 개인적감정을 일면적으로 예리화하는데로 나감으로써 자연주의에로 떨어지거나 당정책의 본질을 심오한 미학적리상으로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직선적으로 되거나 결단 번지르르하게 될뿐이다.

철학적사색을 깊이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문학에서 거창한 시대적주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요구이며 시적일반화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심장의 목소리로써 시의 전투적호소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담보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창작적사색이란 머리에 우연적으로 떠오른 그 어떤 《명감》이 아니라 작가의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

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이라고 가르치고있다.

우리 시문학에서 요구되는것은 내용 없는 사색적인 자세가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체험을 시대-사회적인 체험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깊이있는 탐구과정이다.

이 사색과정에 시인은 개인의 정서를 집단의 그것과의 대비속에 놓기도 하고 현실적인 감정을 과거나 미래적인것과의 련관속에서 파악하기도 하면서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시대적인것으로 거대한 사회적인의를 가지는 혁명적인 감정으로 확증하게 된다.

서정시 《나의 조국》도 진지한 사색의 힘으로 시적일반화를 실현함으로써 정서의 깊이를 이룩하였다.

이 시에는 고향땅에 발을 디딘 시인의 느낌과 더불어 그도 함께 살아온 곡절 많던 겨레의 운명이 비껴있다.

또한 시인의 사색은 조국이 겪었던 수난의 지난날과 영광에 찬 혁명의 행로며 오늘의 약동하는 현실과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한품에 안고 거창한 역사적진폭으로 펼쳐지고있다.

실로 이 시는 산인간들과 그 생활력사의 풍부하고 폭넓은 터전우에서 철학적사색을 깊이 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생활의 진리에 응심깊이 뿌리박은 숭엄한 혁명적서정으로 끌어올릴수 있었다.

폭넓은 사색과 함께 나래치는 창조적환상의 힘은 시의 정서를 승화시키는데서 필수적인 수단이다.

시인의 깊이있는 사색은 반드시 환상의 힘과 결합되어 독창적인 시형상에 마무리질때라야 열매를 맺을수 있다.

승고한 높이로 승화된 인간정신을 특색있는 시형상에 구현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시세계를 창조하자면 창조적상상력-시적환상의 힘이 있어야 한다.

시적형상의 독창성은 환상에 기초를 둔 정서적 재구성의 능력에서 나타난다.

서정시 《나의 조국》의 좋은 점도 나래치는 창조적환상의 힘으로써 조국과 하나로 이어진 수많은 인간들의 운명, 그들의 슬픔과 기쁨, 투쟁과 보람, 그 모든것을 뜻이 깊게 함축하는 새로운 시적형상을 찾아내었으며 그것으로써 조국과 참다운 삶에 대한 물음에 시적인 해답을 준데 있다.

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조국을 공민들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깊은 눈동자로, 그들모두가 자기의 정신적모습을 비쳐보는 맑은 거울로 노래하였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에 심장을 주기전에는 결코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특색있는 경구도 창조하였다.

시는 또한 미래를 가슴마다 지니고 내닫는 사람들의 정신적지향을 하나로 모아 세기의 하늘높이 나래치는 불새와도 같이 퍼덕이는 조국, 그 불새가 날아오른 아득한 창공의 휘황한 빛발과도 같이 찬란한 조국을 색갈있는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비상한 창조적환상의 힘을 발동하여 얻어낼 독창적인 시세계야말로 생활의 깊은 철학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면서 조국이라는 크나큰 개념의 참다운 본질과 조국앞에서 지니고있는 공민의 의무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이끌어가며 영광스러운 조국에 대한 무한한 공지와 충성의 열정을 북돋아준다.

나래치는 환상에 의한 참신하고, 깊이있는 서정적형상의 창조는 시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도》가 거둔 성과속에도 있다.

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추억만별무리들이 그속에 안겨 찬란히 빛을 뿌리는 우주의 품, 하늘에 비기고 그 끝을 모르는 무한대한 공간에서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정치생명에 상징함으로써 독특한 정서적감흥을 주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색과 환상의 힘있는 나래를 펼침으로써 생활의 본질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정서세계를 탐구하며 그것을 또한 특색있게 함축된 서정적형상으로 돌구어야 한다.

정서의 깊이있는 탐구를 위하여 중요한 수단인 창조적사색과 환상은 어디까지나 주체의 세계관에 뿌리박고 높은 창작적기량을 가졌을 때라야 웅당한 깊이에서 전개될수 있다.

사색의 넓이와 환상의 높이는 결코 허공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시 《나의 조국》이 조국에 관한 문제를 우리 시대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문제로서 제기하고 자주적인 인간이야 말로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조국앞에서 지닌 의무를 위해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칠줄아는 인간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할수 있었고 자주적인 인간의 참다운 삶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주체의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그 길우에서만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을 찾을수 있다는것을 소리높이 구가하게 된것도 시인이 주체의 세계관에 의거하여 사색과 환상을 줄기차게 펼쳤기때문이었다.

우리의 서정시는 주체의 기치높이 투쟁하며 전진하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생활감정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서 흘러넘치는 정서와 생활의 진리를 깊이있게 노래함으로써 주체의 세계관으로 빛나는 의의있는 시형상, 인간정서의 정수를 얻어내야 한다.

혁명적서정은 현실에 대한 강렬한 체험의 바탕

우에서 생활에 대한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이 하나의 지향으로 모두어지고 그것이 시대를 대표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정신의 빛을 뿌릴 때 시형상에 넘쳐나게 될것이다.

2

우리 시의 서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구성과 운률 등 시의 예술적형식들을 서정적묘사방식의 요구에 맞게 탐구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문에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틀동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들을 잘 알고 그것을 새생활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새시대의 혁명적 문학 예술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서정시의 예술적형식들에 대한 창조적탐구에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은 서정을 부각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요소들인 구성과 운률에 대한 작업이다.

그것은 시인이 골라진 종자를 혁명적서정의 꽃으로 피우는데서 시형상의 대를 정서적으로 세우며 정서의 흐름새와 색깔을 잘 살리는 문제가 기본으로 나서기때문이다.

특히 시의 구성과 언어는 소설이나 문학과는 달리 제기되는 까닭에 이것을 서정적묘사방식의 각도에서 다루는가 못다루는가에 따라 작품이 서정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삼는 시문학으로 되는가 못되는가가 중요하게 결정된다.

서정시의 구성은 본질에 있어서 감정조직으로 되어야 하며 언어는 정서를 질게 담고 운률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시의 구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서정적형상의 대를 옹계 세우는 문제와 정서세계를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엮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시를 구성하는데서 우리는 추상화된 논리적으로식이나 사건발전의 과정을 따라 형상의 대를 세울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동기를 타고 발전하는 감정선으로써 서정의 대를 굳건히 세워놓아야 한다.

논리적인 도식으로써 시형상의 대를 세우는것은 레컨대 첫부분에서 정황을 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부분에서는 해당한 문제의 본질이나

요인을 분석해명하며 끝에 가서 그것이 가지는 의의와 전망 및 결의를 강조하는것으로써 구성을 조직하는것과 같은 세부분으로 된 구성형식을 들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건의 과정으로 시를 구성한다고 할때 그것은 흔히 회고적인 방식으로 사건과 사실의 진행과정을 순차적으로 펼쳐하면서 결론을 주는 력사풀이식구성형식에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를 세울 때 거기에 아무리 참신한 세부와 현란한 시구가 첨가된다 하여도 그것은 기껏하여 론리와 사건을 윤색한 류형적인 시에서 벗어날수 없다.

물론 상대적인 의미에서 정론적이거나 사건적인 양상의 다양한 시들을 말할수 있으며 구성의 견지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이 허용되어있다.

그러나 추상화된 논리적으로식이나 사건의 인과적인 발전행정을 시에 도입하는 방식은 서정적구성 기본이 아니며 그것이 결정될때 서정이 나태를 피지 못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감정선으로써 시의 대를 튼튼히 세워나가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시형상의 바탕에 생활을 깔고 감정의 끊임없는 축적과 심화를 보장하는것이다.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은 생활이다. 사람의 감정은 생활에서 생겨나고 생활을 거쳐 심화되며 생활로써 표현된다.

그러므로 시에서 감정선에 대한 추구가 감정의 론리그대로 줄기차게 이루어지려면 생활의 자연스러운 동기에 기초하여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변화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감정선의 심화와 발전의 계기를 추상적인 논리적단락이나 사건발전의 고리들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철저히 생활의 축적에서 찾아야 한다는것이다.

서정이 넘치는 좋은 시들은 모두 생활에 근거한 감정선의 상승과 발전을 구성의 대로 확고히 세우고있다.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생활이 불러일으킨 감정체험을 들어 쥐고 그것을 또한 생활의 축적에 따라 심화하는 방법으로 감정선을 펼쳐나감으로써 서정의 충만성을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시는 그 어느 곳은 날씨에 문득 떠오른 가슴에 사무치는 생각, 눈비를 맞으시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세상의 험한 령을 다 넘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에 대한 고마움과 흠모의 절절한 감정을 노래에 담았을뿐아니라 그것을 생활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켰다.

시의 감정은 비오고 눈내리는 곳은 날씨를 이어 좋은 날, 행복한 나날에로 새롭게 번져간다.

그리하여 시인이 생활의 어느 한 순간에 느낀

그 절절한 감정은 우리 인민의 생활의 매 순간들을 충만시킨 크나큰 감정이 되어 더욱 세차게 파도치게 된것이다.

여기에는 사건의 과정이나 추상화된 논리가 아니라 철저히 생활감정의 진실에 뿌리박은 감정선의 발전이 있다.

시 형상의 이러한 대는 시점을 돈구어주는 믿음직한 기둥으로 될뿐아니라 서정의 구조에서 판박이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있는 방도로도 된다.

시의 구성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시적감정의 단순성을 극복하며 그 진실성과 풍부성, 감동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서정적주인공이 처한 구체적인 정황과 그의 체험에 따라서 한순간에도 다양한 색채의 감정이 얹혀지고 서로 다른 색채의 감정이 엇바뀌며 순간에 슬픔이 증오로 변하기도 하는것이 감정의 진실이다.

시인은 우선 인간감정의 다양한 색깔들을 정확하게 가늠하며 그 모든 감정들의 편관을 진지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의 종자와 서정적주인공의 주도적 감정에 따라 감정의 기본선을 틀어쥐고 이에 다양한 색깔의 감정선들을 결합시키거나 대조시키면서 조화롭게 묶어세워야 하며 시의 정서를 극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정서적충격을 강하게 주는 좋은 시는 거의다 감정조직이 빈틈없이 짜인 시들이다.

시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여》(홍현양)를 들어 보더라도 이 시에는 다양한 색깔의 감정들을 옮겨 포착하고 뚜렷하게 대조시킴으로써 독자들을 서정적주인공의 걱정속에 함께 이끌어들이는 감정조직의 좋은 경험이다.

이 시에는 부모를 잃은 커다란 아픔도 미처 못느끼던 그토록 천진한 어린이가 후날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감격의 울음을 터뜨리게까지 되는 하나의 감정선과 한 고아의 정상을 가슴아프게 받아들이시며 마음속에 그들을 지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후 농장의 주인으로 어엿이 자란 그를 만나시여 온갖 시름 놓으시며 기쁨의 밝은 웃음을 지으시는 그 숭고한 정서의 흐름이 섬세하게 교차되고 뚜렷이 대조되면서 감정의 절정이 극적으로 마련되고있다.

그리하여 시에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친어버이로 되시여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한가슴에 안고 나아가시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하신 정신세계와 크나큰 사랑, 그리고 그 은덕을 받으며 사는 우리 인민의 심장의 격동이 감정의 세찬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서정시가 즉흥의 산물이고 루적된 감정

을 터뜨리는것이므로 구성이 큰 문제로 나서지 않는듯이 생각하며 창작하는 유해로운 경향을 철저히 반대한다.

우리는 개념이나 사건의 논리가 아니라 생활에 발을 붙인 감정의 논리으로써 정서의 대를 굳건히 세워나가며 인간의 정서세계를 파고들어 그 변증법에 기초하여 치밀하게 감정을 조직하는 세련된 시적기교를 소유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을 벌려야 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의 서정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것은 시에 담겨진 정서가 음악적으로 조직된 언어와 조화를 이루어야만 풍부한 서정성을 담보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시에 운율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심오한 해명을 줌으로써 서정시에서 운물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에 대한 새로운 리해를 확립하여준다.

현실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인간 생활의 내면에 침투함으로써 그 형태상특성을 막론하고 일정한 서정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예술산문의 언어형식에도 시적인 정서가 담겨질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운물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것은 매우 그릇된것이다.

시의 서정은 문학예술일반에 존재하는 서정과 일련의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면서도 자기의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있다.

시적정서는 인간이 체험하는 정서가운데서도 가장 양양되고 승화된것으로서 태어나는 첫순간부터 자체내에 힘찬 박동을 안고있는 독특한 정서이다.

이것은 시적정서가 은물적인 표현형식을 내적인요구로 하는 독특한 생리의 정서라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시인의 느낌속에 음악적인 박동이 울려오지 않을 때 그 감정은 아직 시적인 정서가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시에 운율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의 심오한 정식화는 또한 시에서 음악적인 언어형식이 노는 정서적작용력에 대하여 밝혀준다.

시적서정의 원천은 물론 그 사상정서적내용에 있다.

이와 함께 시어의 음절수에 의한 길고 짧음, 소리색깔, 높낮이와 세기 등의 주기적이고 다양한 반복과 조화, 다시 말하여 시문장과 시어의 음악적인 조직으로써 조성되는 물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일정한 정서적색깔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시문장과 시어의 음악적인 조화, 그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정서는 서정적내용을 형식의 수단으로써 더욱 돋구는데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의 힘은 때 시어가 의미상으로만이 아니라 어감상으로도 예민한 작용을 하는 간결하고 집약된 형식인 서정시에서 매우 큰것이다.

우리는 시의 내용이 담고있는 정서가 더욱 확대되고 충만되도록 정서적운동의 합법칙성에 알맞는 운률형식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시의 정서적 흐름을 조화롭게 통일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정책적인 내용을 강연제강에서와 같이 직선적으로 전달하거나 미답적인 이야기를 묘사하고 서술하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운률의 정서적바탕을 확고히 마련하여야 하며 때 시의 정서적 파동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고 행을 끊고 련을 조성하는데서 조화를 보장하고 읊는 시로서의 호흡률을 순탄하게 조성하며 전도, 대구, 수사학적수단, 음향적효과 등 운률조성의 수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시의 운률은 내용의 정서적파동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면서도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는 형상의 범주인만큼 운률을 위한 형식과 기교분야에서의 탐구와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시대가 요구하는 서정시의 운률을 탐구하는데서도 전제로 되어야 할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에서 형성된 인민적시가유산에서 운률조성의 풍부하고 다양한 형식들과 수법들을 전면적으로 체득하는것이다.

서정이 있고 운률이 있는 좋은 시의 바탕에는 인민들이 창조하고 세련시켜온 운률조성의 경험에 놓여있고 그것이 창조적으로 개작되어 은을 내고 있다.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우리의 민요형식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7·5 조의 음수률형식이 정서적흐름새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사되어 서정성을 돋구고있다.

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간절히 흠모하는 인민의 다함없는 심정을 그 정서의 파동에 맞게 《3·4·5》의 음절군조직으로써 효과적으로 돋구었다. 음절군의 길이를 하나의 시문장안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한 이 시의 운률조성방식에는 7·5 조의 음수률형식에 대한 창조적적용이 있다.

이것은 가슴을 터놓으면 물밀어오르듯이 치솟기만 하는 서정적주인공의 그토록 간절한 마음의 파동을 인상깊이 강조하여주는 효과적인 음수률조직이다.

시는 또한 《3·4·5》의 음절군조직을 일률적인 틀로 고정격식화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유시

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시행조직으로써 굴절시켜 변화를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음절수의 다채로운 축소와 확대 등도 배합하였다.

이것은 감정의 자유로운 변화와 서정의 섬세한 음영을 효과적으로 담아나가게 하고있다.

이 하나의 례는 산문화를 극복하고 운률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인들이 인민적시가유산에 깊은 주목을 돌리고 그 경험을 창조적으로 섭취한다면 서정을 더욱 살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를 틀어칠수 있으며 한편 시적정서의 민족적인 색깔도 짙게 살릴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인민적시가유산에서 운률조성의 형식과 수법들을 섭취하면서도 결코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 형식과 수법들이 지나간 시대의 정서를 담는데 적응한 수단들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거나 특히 그것이 거의나 정형시가유산에 속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정형시가의 운률적유산들가운데서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현대시형식을 위하여 합리적인 요소들을 찾고 그것을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이고 현대적인 운률을 매개 시의 정서적파동에 맞게 독창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시의 산문화를 반대하면서 새로운 정형시를 고안해내거나 정형률의 단조로운 격식화에 떨어진다면 다른 하나의 과오를 범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만약 산문적인것을 피하여 모든 시행을 4·4조나 3·4 조의 음수률로 격식화해버리거나 또 분절없이 련속되는 장가형식을 취한다면 우리 시대의 다양하고 심오한 인간정서를 단순화하게 될것이며 현대적미감과는 인연이 먼 고루한 맛까지도 풍기게 할수 있다.

우리는 인민적시가의 진보적인 유산들을 바탕으로 삼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기상과 아름다운 정서세계를 조화롭게 돋구어내는 새로운 운률형식을 개척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탐구하여야 한다.

생활의 본질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담은 시의 힘은 참으로 크다.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에서 이끌어주는 시가창작의 방향과 방도들을 확고히 틀어쥐고 서정시의 고유한 특성인 서정성을 시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한 중심고리로, 투쟁의 기본파력으로 삼고 즐기찬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영광스러운 시문학력사에 반드시 빛나는 새장을 기록해넣어야 할것이다.

세부묘사와 형상의 매력

—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를 읽고 —

리유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른 개개의 꽃나무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원을 이룬다.

화원의 아름다움은 한눈에 비껴오는 전체의 현란함이나 눈부신 그 어떤 색조에 있는것이 아니라 개개의 꽃나무들의 각양한 성질과 형태의 특성에서 생겨나는 미묘한 조화에 있다.

언뜻 보기에는 범상한것 같은 아무리 작은 꽃나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만이 가지고있는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있는것이다.

만약 것처럼 그윽한 매력과 독특한 성질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작은 꽃나무들을 제거해버린다면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고 아름다운 대화원의 운치를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우리 문학을 하나의 대화원에 비유한다면 개별적인 작품은 꽃나무이고 작품에 담겨진 작가들의 개성은 그 꽃나무를 형성하고있는 독특한 성질과 같다고 볼수 있다. 같은 꽃나무들로만 이루어진 화원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함을 피할수 없듯이 독특한 개성이 없는 작품은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 개성이 뚜렷한 작품을 대하는것은 마치 넓은 화원속에서 제각기 자기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개개의 꽃나무를 보는것처럼 즐겁다.

우리 주제문학의 화원속에는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김문창)의 성과도 한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있다.

꽃의 아름다움은 그 꽃에만 고유한 독특한 성질이 풍기는 매력인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가치 역시 작가의 개성과 특성의 형상적반영인 묘사의 독특성, 참신성, 심오성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서 인상깊게 묘사하는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는 이에 대한 생동한 실례로 된다.

작품은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초원에서만 기르기에 습관된 양을 깊은 산속에까지 끌고들어가 많은 난관을 이겨내면서 끝끝내 성공하고야마는 한 축산일군일가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고 그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닐 때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사상이 작품에 심어

진 기본종자이다.

더 말할것도 없이 웅당하고 또 누구에게나 명백한 이러한 생활의 진리가 이 작품에서만 유독 특이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산속에서 양을 기르는 이야기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묘사라는 형상에서 유기적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구체적인 세부화의 원리를 옹계 구현하여 종자를 자래우고 꽃피나게 한 그 형상적탐구정신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모든 예술작품은 다 사람들의 생활을 그려야 합니다. 어떤 혁명가를 형상한다면 그가 어떻게 혁명가로 자라나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그려진 형상만이 문학의 화원을 향기로운 꽃으로 빛나게 장식할수 있으며 풍만한 예술적정서와 높은 감화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줄수 있다.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의 이러한 형상화의 모범은 우선 종자와 주제해명에 적합한 생활세부들의 적절한 탐구와 그의 능숙한 활용에서 나타났다.

문학예술작품에 그려지는 모든 생활세부는 반드시 종자와 주제해명에 꼭 알맞는 세부여야 한다.

종자와 주제해명에 꼭 알맞는 세부를 선택하는것은 작품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줄거리의 대를 세우며 종자의 의도를 선명하게 부각시킬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이 작품에서 군당위원장 세진이가 주인공 태창국에게 준 《양사양학》책과 철순이가 부는 《장새납》에 대한 세부가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생활세부들이다.

먼저 《양사양학》에 대한 세부를 보기로 하자. 풍덕리 축산반장 태창국이 지난해에 산속방목에서 실패하고 군당위원회를 찾아왔을 때 김세진은 이 《양사양학》을 주면서 실패에서 오는 당적책임감앞에 주저하는 그에게 고무적인 힘을 안겨준다.

깊은 산속에서 양방목의 성공여부에 대한 생활을 놓고 당정책에 대한 관점과 태도문제를 종자로 심어놓은 이 작품의 본성적요구가 벌써 작품첫머리의 이 《양사양학》이라는 하나의 세부속에 다 체현되어있다.

작품은 이 하나의 세부를 근기있게 끌고나가면서 작품전반의 흐름과 계기들마다에서 종자를 무르익히는 자양분으로 되게 하였으며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성격의 핵을 밝히는 생활적전체로 되게 하였다.

풍덕리에 나온 세진이가 새벽에 측사에 들렀을 때 경비실에서 이 책을 펼쳐놓은채 잠든 창국이를 목격하는 장면에서부터 이러한 발단이 시작된다.

이는 세진으로 하여금 창국에 대한 신뢰의 정을 더욱 두렵게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를 끝까지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지는 계기로 되게 하였다. 이로써 세부의 의미는 더욱 강화되고 사건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심오한 인간관계와 성격들의 예리한 심리적반응속에서 종자는 점차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느날 저녁 지난해의 실패로 산속방목을 달가와하지 않는 관리위원장 강석신이 창국이를 찾아와서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했을 때 《양사양학》은 창국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 이는 당의 의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관리위원장에 대한 기대의 어긋남이 잃으신 그의 심리적충격의 예리한 반응이다. 이어 측사에 대한 책을 위원장동무도 좀 보라고 하면서 책을 책상위에 놓고 매만지는 창국의 행동은 위원장이 당의 의도를 깨닫고 마음을 돌렸으면 하는 기대를 표현한것이다.

양을 많이 죽인데 대한 자책감에 휩싸여 당적책벌까지 각오하고 찾아온 창국에게 추궁이나 몇마디 혼시에 앞서 《양사양학》을 내주는 세진의 행동에서 벌써 그의 당일군다운 풍모가 다 드러난 이 의의있는 생활세부는 이처럼 인간심리의 섬세한 움직임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을 믿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겠다는 주인공의 성격적핵을 뚜렷이 밝혀주는것으로 맞물려졌다.

종자를 꽃피우는 과정은 이러한 예술적세부들이 형상의 매개 요소마다에 깊이 침투되어 부단히 사건을 계발하고 성격을 형성시키는 과정이다. 세부가 세부로서 은을 내게 하자면 그에 맞는 생활적 바탕을 정확히 찾아내고 다양한 수법으로 형상의 묘리들을 재치있게 응용해나가야 한다. 이는 하나의 세부라도 일단 주어진 다음에는 소홀히 하지 말고 창작전과정에 걸쳐 알맞는 정황과 계기속에 의도적으로 맞물리게 하여 종당에는 종자를 꽃피우는데까지 이끌어올리는데서 달성된다.

이 작품에 주어진 생활세부 《양사양학》이 그 이후에 창국의 4천마리 양을 기르기 위한 구상을 담은 략도와 글로 나타나게 한것이 바로 그러한

실례이다. 칼로 굵고 손가락으로 지운 이 략도를 보면서 우리는 끝없는 탐구와 답사의 밤을 지새웠을 주인공의 뜨거운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해 그가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느낄수 있다.

들뜬 생각을 하다가 빗장을 잘못걸어 양사에 범이 들어와 7 마리의 양을 물어죽게 한 날 아버지에게로 달려온 봄순이가 이 략도와 글을 써넣은 공책을 보면서 자신을 뉘우치는 장면이 진실하게 안겨오는 원인도 바로 이때문이다.

이것이 그이후의 산속방목에 대한 경험토론원고로 그리고 창국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산에 올라온 사명이앞에서 해보는것과 같은 그러한 확신에 찬 절절한 심장의 호소로 형상적연계가 이루어질때 우리는 잘 가공된 하나의 세부가 종자와 더불어 얼마나 향기롭게 빛을 뿌리는가를 알수 있게된다.

철순이가 부는 장새납에 대한 세부도 역시 주제의 요구와 종자해명에 알맞게 선택된 인상적인 생활세부이다.

이 장새납은 처음 철순이가 독주를 할 때부터 작품마감에서 산속방목을 성공하고 돌아오는 전과정에 걸쳐 사건의 기본선과 인간성격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흥미를 계발하고 이야기의 매듭을 지어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되었다.

처음 작품에서 인기있는 철순의 장새납독주는 녀자가 장새납을 분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태창국의 애초의 생각을 뒤집어엎는 계기로, 그이후 생활을 계발하는 수단으로 되게 하였다. 지난날 자기의 장새납에 대해서 아버지가 달가와하지 않았다는 철순의 말에 이제는 아버지도 생각이 달라질것이라고 하면서 창국을 돌아보는 세진의 행동은 산속방목도 힘들지만 녀자가 장새납을 부는것처럼 인내성있게 꾸준히 노력한다면 능히 성공할수 있다는 깨우침을 창국에게 주는것으로 작품의 사상적의도를 미리 암시해준것이다. 그리하여 산속방목에서 성공하고 돌아오는 마감장면에서 철순이 부는 장새납소리는 작품서두의 독주곡과 어울려 하나의 거침없는 줄거리의 인과관계를 지어주고있다.

작품에서 생활세부는 종자와 주제해명에 맞는 전형적인것으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또한 심리정서적이고 성격적이며 표현성이 강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그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 시대의 본질과 리념, 생활의 진모를 느낄수 있으며 성격의 특징을 꿰뚫어볼수 있는 그러한 세부들을 말한다.

성격적이고 표현성이 강한 세부들을 잘 골라써야 성격이 단순하게 되지 않고 개성이 있는 산

인간의 전형을 옹기 창조할수 있다.

주체적문제이론은 주인공의 성격이 평범하지 않게 되려면 그에게만 있을수 있는 그 어떤 특징적인것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성격에서의 이러한 특징적인것은 바로 표현성이 강한 세부형상을 떠나서 주어질수 없다.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는 인간성격을 특징화 하는데 필요한 성격적이고 표현성이 강한 세부를 끌라쓰는데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 하나가 바로 군당위원장 김세진의 담배와 관련한 세부이다.

세진은 자기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늘 가지고 다닌다. 이것은 무슨 치레거리거나 흔히 말하는 교계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사람들을 믿고 포섭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기 위한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격이 낳은 관습적행동이다.

작품에서는 담배에 대한 세부가 네번 나오는데 처음은 창국이 양을 많이 죽인 자책을 안고 세진을 찾아왔을 때이고 다음은 세진이 풍덕에 가서 창국이 지난 해와 같이 독단주의를 범하려 하는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에서이며 또 한번은 9.9 절날 강석신이들을 태우고 창국이 일하는 산판으로 올라 갈 때 승용차안에서이며 마감은 산에 가서 병률령감이 찾아왔을 때이다.

첫번째 세진이가 창국에게 담배를 권하는 장면에서 창국은 그것을 받아들고 방금 피웠다고 도로 놓는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세진의 당일군다운 너그러운 품성과 소탈한 풍격앞에서 어떤 처분이 내릴지 모를 조마조마한 순간의 창국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비쳐준것이다. 아울러 세진의 격식과 틀이 없는 고상한 당적품모, 창국의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성격적특성을 잘 나타내주었다.

만약 여기서 창국이 담배를 피우는것으로 묘사했다면 이는 정확하고 맞지 않으며 성격의 핵을 파괴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귀한 정신도덕적 품모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것이다.

두번째 풍덕에 나가서 창국에게 담배를 권하는 장면은 아래사람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우쳐주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세진의 어머니다운 품성과 사업에서 원칙성을 보여주는것이다.

작품에서는 그것을 담배를 먼저 창국에게 권한 다음 자기도 한대 붙여물고 서툰 숨씨로 입이 불룩하게 연기를 들이빨다가 사래들려 얼굴이 벌개가지고 비버끄는것으로 묘사하였다.

울퉁하는 성미그대로 군중과 토의없이 혼자서 중평과 상평일대를 답사하고 돌아온 창국의 행위를 못마땅히 여기는 세진의 심리세계가 이 하나의 세부속에 다 드러나있다. 이러한 세부적행동의 체시가 없이 직판으로 혼자 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창국의 독단주의를 비판하는것으로 그렸다면 세진을 인간성이 없는 딱딱한 성격으로 만들었을수 있으며 창국의 뉘우침과 작품전반의 예술적형상에 손상을 주었을것이다.

《강석신은 차가 들추는데다 나무뿌다구니같이 뭉툭한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간신히 담배를 꺼내 한대는 리당위원장에게 내밀고 한대는 자기의 입에 물었다. 차안에는 금시 향기로운 담배연기로 가득찼다.》

이는 승용차안에서의 담배에 대한 세부를 그린 장면이다.

방금 지난날의 그릇된 사업작품을 두고 자기를 심각히 반성하고난 강석신의 뒤숭숭한 심정을 들추는 차의 진동과 함께 담배도 제대로 못뿔아드는 행동세부와 일치시킨것은 얼마나 생동한가.

군당위원장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박병률령감의 대화장면에서의 담배에 대한 묘사도 역시 이와 다름없다.

《... 담배를 몇모금 맛스레 빨며 그 이름을 알아두려는듯 담배대를 눈앞에 가져다 글자를 눈여겨 보》는 병률의 행동세부는 순진하고 꼼꼼한 성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누구럽고 반죽좋은 성격과 잘 어울린다. 즉 군당위원장에게서까지 담배를 얻어 피운다는 흐뭇한 심정이 눈에 보이는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있다.

말하자면 김세진이 권하는 담배에 대한 세부는 당일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의 본연의 자세를 선명하게 집약시키고 깊이있는 인간관계와 개성화된 성격들의 심리정서세계를 섬세하게 펼쳐보였다.

세진이가 정우에게 봄순이를 주라고 꾸려보내는 양판리에 대한 기술잡지들과 소설책꾸레미도 이런 의미에서 선택된 좋은 생활세부이다. 봄순이와 정우와의 버그러졌던 사랑관계를 다시 이어주려는 세진의 다심하고 인정깊은 내면세계가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생동하게 안겨온다.

특히 부반장 장사명의 사업일지는 그야말로 성격적이고 표현성이 강한 생활세부로 특징된다. 겉으로는 열성이 있는체하면서 속으로는 재고 창발성이 없으며 어떤 후파로 인한 책임이 두려워 정당한 사업도 회피하려는 그의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의 본질이 얼마나 신통하게 나타나있는가.

박병률의 성격을 특징짓는 장기판에 대한 세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품에는 이 장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번 나오는데 박병률이와 장사명이 장기를 두는 장면에서 처음엔 기세를 올리다가 차가 떨어지게 되자 물러달라고 생트집을 거는 병률의 행동은 그의 고집스럽고 동요심이 많은 성격적특성을 생

동하게 대변한것이다.

산판에 들어갔다가 난판이 조성되자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던 그 고집대로 슬그머니 내려오는 행위나 그후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행동들이 이러한 세부화의 전제를 타고 흘러나오는것이기에 그만큼 진실하며 생활적타당성을 가질수 있었다.

이밖에도 작품에는 봄순이가 정우의 프락또르 유리창머리에 달아준 금실과 뜨개문양이라든가 정우의 숨저고리주머니에서 나온 편지사연, 세진이 창국에게 준 자주빛뚜껑을 한 수첩 등과 같은 빛이 나고 표현성이 강한 세부들이 매우 많다.

이는 다 생활의 본질에 맞고 전형적의의를 가지는것으로써 성격과 종자를 무르익히는데 효과적인 영양소로 되었다.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소설 문학의 화원속에 피어난 한떨기의 작은 꽃에 불과 하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그 꽃나무는 연연한 줄기를 타고 뻗은 이파리와 미묘한 색깔의 음영으로 하여 독특한 매력과 향기

를 풍긴다. 그것은 세부화의 빛나는 열매로 작품의 생기를 복돋우고 예술적형상수단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묘사의 영역을 특색있게 장식했기때문이다.

아무리 탐스러운 꽃이라도 어디서나 흔히 보이는것이라면 처음 보는 소담한 꽃에 비해 호기심을 덜끄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묘사의 경지를 개척하는것은 그것이 비록 하나의 작은 세부에 국한하는것이라 할지라도 작품의 예술적가치와 관련된것으로써 독자들의 미학적 감화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할바 없이 크다.

묘사의 영역은 광활하지만 그 종자와 그 성격에 알맞는 세부는 흔치않다. 그 종자와 그 성격에 알맞는 세부를 골라쥐고 근기있게 파고들 때 예술적형상은 매력적이고 심원한 화폭으로 안겨올수 있다.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자! 이는 예술적형상창조의 변함없는 요구이며 우리 소설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고 풍만하게 가꾸어가는 기본열쇠이다.

땅우엔 겨울이 한창인데

김화견

소리없이 내리는 함박눈 함박눈
무릎치는 스눈길을 걸어
탄부들의 일터를 찾아 갯도에 들어서니
꽤아닌 더운 바람이 이 가슴 후덥히누나

눈에 축축히 젖은 옷자락 -
후더운 갯도바람에 기분도 좋아
막장권양기장을 찾으니
반겨맞는 운전공의 마음이런가
떨기떨기 꽃송이 향기 뿜어라

땅우엔 함박눈이 한창인데
생각도 뜨거이
갯안의 휴식터에 소나무도 가꾸며
언제나 계절없이
싱싱한 봄철을 안고사는 그 마음들

오 사시장철
땅우에 피어나는 인민의 행복
더욱 만발히 피어나라
한겨울에도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올리는 검은금은 얼마이더나

한줄의 석탄을 두고도
유치원창가마다에 넘치는 노래 들으며
하나의 동발을 세우면서도
건설장에 일어서는 철탑들을 바라보며
번영하는 이 땅의 미래를 마련하나니

땅우엔 겨울이 한창이여도
탄부들은 땅속 깊은곳에서
조국땅우에 행복을 꽃피우누나
아버이수령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봄빛만을 안고사누나.

막장의 재부

한원희

《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서 이리 앉으십시오. 지금 1갱에 경사가 났답니다!》

내가 탄광참모부에 들어서기 바쁘게 이곳 탄광 참모일군이 나의 손을 반갑게 잡아흔들며 급히 말을 이어나갔다.

《폐갱한다던 갱이 다시 살아났단말입니다!》

《네? 참 대단하군요!》

우리는 피차 그간 건강했는가, 사업에서 얼마나 수고 많았는가 등 서로의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다시 살아난 1 호갱! - 이것으로 하여 흥분한 참모일군이나 나나 인사같은것은 어느새 잊어버리게 했는지 몰랐다:

나는 취재차로 여러번 이 룡등탄광을 다녀간 일이 있기때문에 참모일군과는 이미 구면이였고 탄광실정도 대개 알고있었다.

《1갱에서 종래의 기존관념대로는 켈수 없다던 얹은층석탄을 캐내는 새로운 채탄법을 창안도입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여러차례 탄을 캐낸 낡은 굴에서도 적용되기때문에 큰 실용적의의가 있는것이지요. 채탄기사 김희선동무가 이런 큰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새 채탄법창안이 올해 석탄생산계획을 당 제 6 차대회전으로 끝내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서둘러 작업복을 갈아입고 취재수첩을 꺼내들었다. 이러는 나를 바라보고있던 참모일군은 싱긋 웃으며 자기도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그럼 함께 갑시다.》

이리하여 우리는 탄광참모부 사무실을 나섰다. 하늘엔 별이 총총하였다.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솟아있는 룡문산줄기줄기를 가로건너 푸른 번개불이 번쩍이고 여기저기서 우뢰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탄을 가득가득 싣고 달리는 전차들이었다. 맞은편 산아래 넓은 부지에 자리잡은 저탄장은 저탄장대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대형 벨트콘베아에서 쉬임없이 쏟아져내리는 석탄폭포, 전조등을 환히 켜달고 렬을 지어 기운차게 석탄을 밀어내고있는 《풍년》호불도젤들, 적재기중기들과 굴착기들의 가락맞은 동음, 탄광은 이 밤도 거창한 창조의 숨결을 몰아쉬며 잠들지 못했다. 바로 김희선채탄기사와 같은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우리 탄부들의 량심이 그대로 저탄장에 쌓이는듯 석탄산은 잠간사이에도 키를 솟구는것이였다.

우리들은 걸음을 더욱 빨리하였다. 마침 갱으로 들어가는 인차편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몸을 실었다.

밝은 형광등이 빛을 뿌리는 영구화된 갱도를 따라 끝없이 달리는 과정에 나는 좌우로 수없이 뻗어나간 갱도들을 보았다. 그 가지쳐나간 지선들에서 또 무수한 간선들이 가지쳐나갔다고 한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석탄을 캐내였겠는가. 나는 빨리 만나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자고있었다. 우리는 갱휴계실앞에서 오락가락 거니는 한 채탄공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채탄기사의 잠을 지키는 엄격한 《보초병》이 었다. 새 채탄방법의 창안과 직접 채탄의 실현을 보장하느라고 련사할 께박 새운 채탄기사를 위해 탄부들이 이런 《초치》를 취한것이였다.

《막장은 채탄기사동무의 설명을 들으면서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제가 채탄기사동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는 워낙 제자량을 할줄 모릅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새 채탄법을 창안하기보다 더 어려워할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우리는 현장전투지휘부 옆방에 꾸려놓은 휴계실에 들어가 마주앉았다. 참모일군의 이야기는 곧 시작되었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 밤. 나이 사십이 좀 넘어 보이는 키 큰 사람이 깊은 생각에 잠겨 갱속으로 들어가고있었다. 그가 다름아닌 채탄기사 김희선이였다.

얹은층탄을 어떻게 하면 캐낼수 있겠는가. 그는 오직 이 하나의 생각뿐이였다. 그러나 그로서도 무슨 신통한 수가있는것이 아니였다. 다만 조건이 불리하여 켈수 없는 수많은 얹은층탄과 낡은 굴의 버력속에 묻혀있는 탄이 아까왔기때문이다. 이것을 버리고 탄이 많은곳으로 옮겨간다면 조국의 귀중한 재부는 영원히 잃어버리는것이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기간 수많은 협의회도 열었고 조금전에 끝난 참모회의에서도 분분한 논의들이 있었다.

일부 중대장들은 말했었다.

《지금 온 나라가 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각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안고있습니다. 계획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탐사하여놓은 새 탄밭구역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물론 얹은층탄을 아주 버리자는것은 아닙니다.》

한 채탄소대장은 또 이렇게 말했다.

《낡은굴에 묻혀있는 탄은 우리가 캐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번네번 반복채굴하였고 할수 있는것은 다 하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낡은굴을 불안고 앉아몽개는 사이에 다른 갱에서는 무진장한 탄밭에서 석탄을 팡팡 실어낸단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얼굴이 벌거우리해져서 자리에 앉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입니다. 석탄이 없이는 제철소와 제강소는 물론 다른 모든 공장들과 기차, 배 같은것을 움직일수 없으며 화학공업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석탄은 모든 공업의 동력으로 되며 중요한 원료로 됩니다.》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곰곰히 되새기는 희선이의 가슴은 심한 자책감으로 하여 타드는것만 같았다. 만약 내가 채탄기사로서 엷은총탄과 낡은굴의 석탄을 캐낼수 있는 방법을 담보한다면 그들은 다른 탄밭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결국 참모회의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끝난것이였다.

지금 갱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깊어가는 갱도, 깊어가는 생각은 마치 쌍둥이처럼 갈래갈래 수없이 뻗어나간 막장으로 향하는것이였다.

그는 오른쪽 1 호결굴구역으로 꺾어들었다. 여기서부터는 조명이 없었다. 벌써 십여년전에 켤수있는 탄은 다 캔뒤여서 조명선들을 철수한것이였다.

그는 간데라에 불을 달아들고 익숙한 걸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갔다.

그는 자기의 일터, 자기의 옛깡을 사랑하였다.

막장은 그대로 자기의 집이였으며 생활의 보금자리였다. 그는 여기서 채탄기사로 자랐고 영예로운 당에도 입당하였었다. ...

어데선가 석수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만약 옛채탄장들이 말을 할줄 안다면 뜨거운 이야기를 주고받고싶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정적을 몰아내고 또다시 벅찬 숨결을 안겨줄것인가.

그는 깊은 사색이 실린 눈빛으로 암반상태와 엷은총탄줄기의 생김새를 재검토하며 한걸음 두걸음 갱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수많은 탄부들의 귀중한 조언도 들었으며 젊은 제대군인탄부들의 엉뚱스럽기도 하고 기발하기도 한 의견도 들었다. 자기의 견해와 여러가지 탄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결론은 석탄모임점을 많이 만들어놓는것이다. 그렇다

면 석탄모임점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것인가. 무엇인가

실머리가 잡힐듯하면서도 잡히지 않았다. 이날도 그는 종일토록 모대기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다섯살짜이 막내딸이 아버지를 보자 금시 꽃같은 웃음을 담고 쪼르르 미끄러질듯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버지, 탄 많이 캐나?》

하고 쟁쟁한 소리로 묻는다.

《그럼, 탄 많이 캐단다!》

그러자 딸애는 《야!》 하고 손뼉을 짜락짜락 치며 부엌을 향해 달려간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탄 많이 캐고 오셨대요-!》

기쁨에 겨운 딸애의 모습을 바라보던 희선이의 눈에는 이슬이 내돌쳤다. 그도 다섯살, 흘러간 지난 세월에 그와 똑같은 물음을 어머니에게 한적이 있었다. 탄갱이 무너져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오소리굴같은 죽음의 고역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나날 어린 희선이는 굶주린 배를 그러안고 울면서 해종일 어머니를 기다리였다. 어머니가 오면 울먹이며 탄 많이 캐고 왔는가고 묻곤하였었다. 그래야 멀건 죽물이라도 먹어볼수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똑같은 물음이였지만 얼마나 판판 다른 소원을 담고있는것인가...

그는 안해와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 다 지새도록 책상앞에 앉아있었다. 그는 도면을 그렸다 지웠다 하면서 새 채탄법의 중요한 핵이라고 볼수있는 석탄모임점을 어떻게 구할것인가를 연구하여 나갔다.

어느덧 새벽녘이 다가왔다.

그는 지긋게 밀려드는 졸음을 이겨내려고 찬물에 세수하리라 생각하였다. 부엌으로 나갔다. 세면기를 찾아들고 물바게쓰앞에 다가갔다. 순간 그의 머리에서는 무엇인가 피뚝 뚝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사이 무릎을 탁 쳤다.

《됐다! 이것이였구나.》

그는 기쁨에 넘쳐 혼자 중얼거리였다.

자던 안해가 깨어나 부엌을 내다보았다.

《당신은 아직 자지 않아요?》

《여보, 됐소! 땀단말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망치와 큼직한 못을 가지고 다시 나왔다. 그는 바게쓰의 물을 쏟아버리고 그것을 얹어놓고는 구멍을 뚫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하여 남편이 하는 일을 졸음에 취한 눈으로 바라보던 안해의 눈이 단박에 동그래졌다.

《아니, 여보, 당신은 어찌자고 바게쓰를 못쓰게

해요?!》

그러나 이미 바깥에선 구멍이 세개나 나란히 뚫어진뒤였다.

《바깥에선 걱정 마오, 내 이제 열개라도 사올테니!》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구멍난 바깥에 수도 물을 받기 시작하였다...

참모일군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는 새로 담배를 한대 더 꺼내물고 성냥을 켜- 그어 불을 붙이였다. 막장휴게실은 조용하였다. 어데선가는 은은히 울려오는 압축기동음과 설새없이 오가는 전차들의 차바퀴소리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더 잘 어울려지는듯싶었다.

《채탄기사동무는 그 새벽으로 집을 나와 갯을 향해 급히 뛰어가기 시작하였지요...》

.....

숨이 턱에 닿을듯 강구를 지나 본선갱의 절반이나 너머 되는 거리를 달려들어갔건만 압축기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자기의 발자국소리만이 갯도의 이벽 저벽에 부딪쳐 웅근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 울뿐이었다.

아니나다를까 회선이 압축기장에 들어서니 거기엔 벌써 채탄공동무들이 압축기를 해체하느라고 땀뻘뻘하고있었다.

회선이는 가슴이 아파왔다. 이 모든것이 새 채탄법을 미리미리 내놓지 못한 자기의 잘못인것만 같았다. 그러나 해야 할 말은 해야 했다.

《수고들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였다.

《지금 새 탄발구역으로 이사하여가면 물론 탄을 쉽게 많이 캘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도 여기에서처럼 얇은층탄을 캘수 없다고 하여 또 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식으로 계속 일한다면 나중엔 어데로 가겠습니까?》

탄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신중한 얼굴들을 하고 앉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면적을 평방으로가 아니라 립방으로 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 땅속엔 금은보화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탄부답게 수령님의 교시를 지켜내야 합니다!》

낮으나 힘있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탄부들의 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뜨거운 심장은 뜨거운 심장을 부르는 법이다. 탄부의 심장은 탄을 닦았는가싶었다. 탄이란것은 종이장이나 몇가지의 장작개비로는 타지 않는다. 불땀이 센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일단 불이 달리기만 하면 탄은 수천도의 열을 내면서 철광석을 녹이고 쇠물을 끓이는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신념으로 탄부의 심장에 불을 일으켜 놓으면 그 불길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것이다. 회선이는 바로 지금 그것을 온몸으로 느껴지는듯싶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자고 생각하여보았습니다.》

하고 그는 들고왔던 도면두루마리를 쪽 펼쳐놓았다. 거기엔 새 채탄법에 의한 탄캐기그림이 일목요연하게 그려져있었다. 탄부들은 목말랐던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들듯 너도 나도 도면앞으로 다가들었다...

참모일군은 신나게 손시늉을 해가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때 누군가 우리들이 앉아있는 선전실문을 벌컥 열었다. 어느 채탄공이였다.

그는 우리를 보자 싱긋 웃으며 《실례했습니다.》 하고 머뭇거리며 문을 닫으려 하였다.

《소대장동무, 일이 잘돼가요?》

참모일군이 물었다.

《예, 지금 막 석탄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모동지가 내려왔다기에...》

하고 공연히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갔다. 그의 이런 행동은 제기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주겠느냐 하는 뜻을 은연중 나타냈다.

《어서 말하오.》

《광차가 딸립니다. 적어도 두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단하오. 좋소!》

하고 움쭉 일어나 방송전화가 있는 갯지휘부로 갔다.

《또 뵈겠습니다.》 소대장은 나를 향해 웃으며 자기들의 채탄장으로 갔다.

나도 참모일군을 따라 갯지휘부로 갔다.

참모일군은 운반대대를 찾아 지체없이 전차를 더 넣어줄것을 지시하고 나를 돌아보았다.

《자, 그럼 하던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그래서 말입니다.》

참모일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또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누가 또 들어왔기때문이다. 령장에 별 네개를 단 키 큰사람이였다.

참모일군은 금시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축하하오. 축하하오! 그런데 왜 벌써 깨여났소?》

그리고는 그의 대답을 들을 사이도 없이 나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있는 김희선동무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나는 그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정말 수고 많았더군요. 축하합니다!》

《뭘, 별로 한일도 없이》

그는 얼굴을 붉히며 난처한듯 웃었다.

그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어깨가 꺾 벌어졌는데 첫인상에 믿음성이 있어보였다.

이윽고 우리들은 채탄기사의 설명을 들으며 막장을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막장으로 들어가는 어귀에서 채탄기사는 우리를 멈춰세웠다.

《여기가 십여년전에 준비굴진해 들어갔던곳입니다. 이런 준비굴진갱은 여기서부터 8m의 간격으로 15개나 주련이 뚫어져있는데 그게 다 엷은 층을 만나서 내버려두었겠지요》

우리는 막장을 향해 좀 더 깊이 들어갔다. 사슬콘베아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나는 새 채탄법에 의한 석탄캐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볼수 있게 되어서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막장에 이르러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채탄막장 같지 않았다. 기다랗게 뻗어나간 갱도벽에 무슨 창문같기도 하고 조구통같기도 한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뚫어져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듯 탄이 흘러내리었다. 의아해하는 나를 바라보며 채탄기사는 설명하였다.

《지금 석탄이 내려오는 저 구멍들이 바로 석탄 모임점들입니다. 이 모임점 저쪽으로는 탄폭이 불과 0.7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탄층은 거의 수직방향으로 백미터가량 울리뻗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줄기와 평행을 이루는 암석층갱을 이렇게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갱을 따라가면서 엷은층탄을 향해 석탄모임점을 이렇게 여러개 형성하여놓았습니다.》

하고 그는 석탄이 쏟아져내리는 조구통같은 구멍들을 손으로 가리키었다.

나는 그들의 작업을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 서있던 참모일군이 안전모를 벗고 일하는 한 채탄공을 엄하게 꾸짖었다.

《동무! 안전모를 쓰시오!》

채탄공은 질겁하는체하며 얼른 안전모를 쓰고는 병긋 웃었다.

《여기야 뭐 암석층채탄장인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래도 써야 하오!》

하고 그는 나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하였다.

《채탄공동무들이 참 좋아합니다.》

사실 그랬다. 여기서는 석탄층을 뚫고 들어가며 탄을 캐는것이 아니라 암석갱에서 탄을 캐기때문에 노동보호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

는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동발을 들이지 않게 되니 동발을 운반하는 등 여러가지 힘든 로동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면서도 채취률은 95%라는 놀라운 수자를 기록하는것이였다.

로력과 자재는 또 얼마나 많이 절약되었는가, 이미 건설하여놓았던 갱을 그대로 리용하니말이다.》

탄광분야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있지 못한 나로서도 이 모든 우점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었다.

만일 채탄기사가 새 채탄법의 우월성을 한조항씩 짚어내려간다면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자량을 나타낼줄 몰랐다.

새 채탄법으로 탄을 캐낼수 있는 구역은 수없이 많았다. 이 방법은 룡등탄광의 모든 갱들에서도 받아들일수 있는 커다란 실용적가치가 있었다.

나는 막장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기사동무, 새 채탄법을 어떻게 이름짓겠습니까?》

채탄기사는 또다시 얼굴을 붉히었다.

《글쎄 뭐, 이름이 문제겠습니까... 석탄을 많이 캐내는것이.》

나는 말끝을 마무리지 않고 빙그레 웃음짓는 채탄기사가 한없이 돋우보였다.

그와 뜨거운 악수를 나눈후 나는 난장을 향해 걸기 시작하였다. 막장에서 난장까지는 십리가 넘었다. 그러나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오래오래 걷고싶었다.

내옆으로는 탄을 가득가득 실은 탄차를 이끌고 전차가 달려갔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 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기 위한 이곳 탄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았다. 올해 석탄생산계획을 당대회전으로 끝내고 충성의 보고를 마련하려는 그들의 투쟁은 높이높이 쌓아지는 석탄산으로 이루어진다.

끝없이 실려가고 하늘높이 쌓아지는 저 석탄!

그것은 그대로 탄부들의 마음의 높이였다.

석탄! 그것은 그대로 우리 탄부들의 아름다운 량심이며 자량이다. 막장의 이런 탄부들에 받들려 조국은 오늘도 높이 솟아 빛을 뿌리는것이다!

난장에 나오니 벌써 새날이 시작되고있었다.!